

다인치과 봉사회
"이주민 齒痛 치료하며
세상의 벽 허물죠"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불유교경〉
권력과 결탁해 서민을 업신여기지 말고
좋지 않은 뜻을 품어 남을 현혹말라.
지나친 부를 탐내지 말라.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7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04호 2014년 8월 7일 목요일

위례신도시 포교 활성화 조계종, '초석'을 놓다

31일 LH와 종교용지 매입 계약… 세종시 이어 두 번째

조계종이 세종시에 이어 위례신도시에 종교용지를 매입해 신도시 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그간 부진하다고 지적됐던 도심 포교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31일 위례신도시 내 종교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박수홍 위례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부장 보경 스님과 신도시 종책특보 허운 스님의 부지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이번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내 종교용지에 전통가람 양식과 도심사찰의 특성을 잘 반영시켜 건립하고, 건립이후 수행과 신행활동의 거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지역 단일 사찰들이 종교 용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신도시 종교 용지에 대한 공고를 종단에도 알려줬으면 한다. 용지 매입에 있어 종교 간 안배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영 사장은 "종단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제공하기도 한다. 경쟁 입찰로 분양되기 때문에 종교적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힘들어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교는 우리 전통문화로 국민 생활과 밀접해 활발한 것으로 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찰 부지로서 적합한 용지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계종이 매입한 위례신도시 내 종교용지(종1부지)는 하남시 감이동 산 85번지 일대로 면적이 10,000㎡(약 3,025평)에 이른다. 이 용지는 그동안 특수전사령부 및 제3특전여단의 군법당으로 사용하던 호국 사자사와 그 일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부대 이전에 따라 폐사 예정인 부지를 종단 신도시 포교의 거점사찰로 재탄생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31일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1만㎡ 규모 폐사 부지 매입
33 · 34대 집행부 노력의 성과
신도시 포교 거점 사찰 건립
안정적 구입 기금 마련 '숙제'

위례신도시 부지 확보는 자승 스님의 제33대 임기부터 진행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제34대에 이르러 그 성과를 보인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실제 자승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 임기 초반 주요 종책으로 신도시 포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세종시와 함께 수도권 포교거점으로 위례신도시 내에 포교거점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확보는 지난 4월 세종특별자치시 종교용지 확보와 더불어 제34대 집행부의 성과"라면서 "기존 군법당인 호국 사자사의 명맥을 유지 계승하고 수도권인 위례신도시 내에 포교의 거점을 확보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입한 부지위에 전통사찰의 양식과 현대적 감각을 갖춘 건축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교용지 구입 대금은 남은 숙제 중 하나다. 지난 3월에 매입한 약 3000평 규모의 세종시 종교용지는 구입대금은 50억 원 가량이고, 위례신도시 종교 용지의 대금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신도시에서 종단 차원의 포교 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자금 조달이 급선무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원을 대상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과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면적이 약 678만㎡에 인구 약10만 8천명, 4만 3천여 가구가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유리건판으로 보는 불교미술〉에 실린 황해도 황주 심원사 보광전 처마의 옛 모습(사진 왼쪽 · 1930년 촬영)과 현재 모습(사진 오른쪽). 귀공포 위 추녀를 받치고 있는 인물상(사진 왼쪽 점선 부분)은 특이한 양식이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신라말 도선 국사가 창건한 황주 심원사의 보광전은 다포계 팔작집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계 건축 양식으로 그 가치가 크다.

일제시대 北불교문화재 옛 모습 대거 공개

국립중앙博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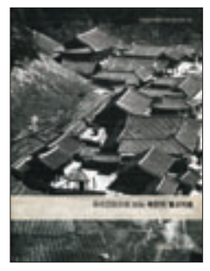
사찰 · 성보 169점 소개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
건축사적 학술 가치 높아

1900년대 초 북한 불교문화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펴낸 북한 지역 문화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집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에는 일제시대 북한 불교문화재 총 169점이 소개됐다.

830여 장의 사진을 수록한 이번 사진집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감독 하에 촬영된 것으로 △사찰건축(30점) △불교회화(15점) △불교조각(33점) △불교공예(10점) △석조미술(81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 사진들은 문화재 복원과 한국 불교건축사 연구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북한 지역에는 1945년까지만 해도 8개 대본산과 400여 사찰이 있었으나 한국전쟁과 북한정권의 종교탄압으로 현재 60여 사찰만이 남아있다.

사진집에는 대찰이지만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황해도 패엽사, 금강산 장안사 등의 옛 모습과 조선시대 신앙 대상이었던 개성 화장사 고려 공민왕 진영, 북한 불화 화승 계통을 살필 수 있는 개성 대흥사 감로도 등 현재 전해지지 않는 문화재를 볼 수 있다.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현황이 소개되는 것이 전부였다"며 "현존하지 않는 북한사찰의 모습을 알 수 있으며, 복원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진집의 원자료가 된 유리건판은 조선 총독부의 식민통치 방안으로 1909년부터 1940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총 3만 8000여 장에 달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목록화 사업 이후 2007년 1차로 궁궐 편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8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제26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9월 30일까지 접수, 11월 발표

제26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찰의 공로를 치하하고 불법홍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26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은 교구본사 주지와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등 추천권자가 종단 소속 기관 및 단체, 사찰, 스님, 종단신도등록자로서 5년 이상(대상 후보자는 20년 이상) 해당분야 포교활동중인 자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포교대상 추천분야는 △계층포교 △직능포교 △문화체육포교 △사회포교 △매체포교 △지역포교 등이며, 포교대상(종정상)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원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하게 된다.

포교대상 후보 추천자는 소정 양식의 추천서와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 등 구비서류를 9월 30일까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11월중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1004호 INDEX

시방세계 5
(사)자비명상, 부탄 가사공양



종합 2·3
끝이 안보이는 조계종·선학원 갈등
사찰·종단, 신도 주민번호 수집 금지
특별한 여름 템플스테이 10選
진제 스님 전법게 등 8종 문화재 추진

신행 · 복지 6·7
한마음과학원 어르신 마음공부 회향
폭염 대비 교계 복지관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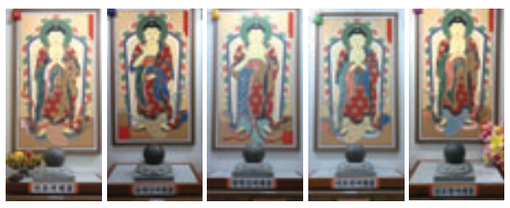
불교로 읽는 고전 24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누구나 오셔서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오여래 부처님이 들려지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학봉당 진성큰스님의 40여년 수행결과가 부처님의 가피로 환희롭게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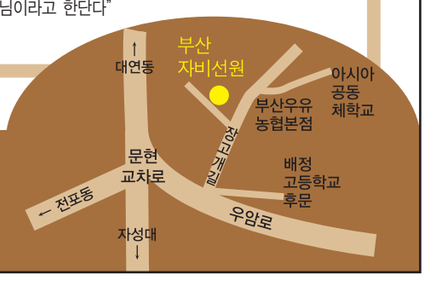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오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다보여래부처님 :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시준비, 고시 응시생, 재판 중 사건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득남발원, 결혼인연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사업발전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 · 불치병 · 우울증 · 빙의 등 병고해탈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 · 제조 · 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오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홀연히 나타나신 큰 노스님이 주장자를 쥐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써라!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가던 중 계곡 입구에서 아주 볼품없는 못생기고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에 싣고 와서 황등석 재공장에 맡겼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둥근 돌이 다듬어져 왔다. 그 돌을 신중단에 놓고 다기물을 올리기 위해 옮기려 하자 움직이지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지정을 말씀드려 큰스님 역시 들려고 하자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시며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 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으셨다. 그리고 석재공장에 전화를 하시어 똑같은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석장이 "큰스님, 왜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원래 이 돌은 묘색신 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다섯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묘색신여래부처님, 셋째 광박신여래부처님, 넷째 이포외여래부처님, 다섯째 감로왕여래부처님이야."하시며 "이 모두를 오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단다"라고 말씀하셨다.



NAVER 부산자비선원 검색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개방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교과서 1종만 '한국 원폭피해자 기술'

합천평화의집 중 · 고교 교과서 분석… "정부 무관심 방증"

국내 중고교 역사 교과서 24종 중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서술을 한 경우는 1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폭2세환우 쉼터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은 고교한국사 8종 · 고교세계사 4종 · 고교동아시아사 3종 · 중학역사 9종 등 국내 중고교 역사교과서 29종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원폭피해 관련 기술을 한 곳은 두산동아 단 한 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월 31일 밝혔다. 2013년 검정 〈두산동아 고교한국사〉는 "한국인 사망자가 4만여 명에 달한다"고 기술했으나 그마저도 1줄 서술에 그쳤다.

합천평화의집은 "일본군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방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출판사들의 무관심 역시 이를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관한 사회적 무관심이 그대로 교과서 기술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 교과서의 경우 관련 내용 누락은 물론 갈수록 분량마저 축소되고 있다.

2011년 두산동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얼마나 될까?" 라는 제목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무게 3톤의 원자 폭탄, 한 기가 품어낸 엄청난 양의 빛과 열기가 한순간에 16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 중 35만 명도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 그중 3만여 명이 살아남아 귀국하였지만, 그 자녀들까지 각종 질병과 질환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다"고 기술했으나 2012년 이후 중학교 검정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합천평화의집 이남재 사무총장은 "피폭자들에 대한 지원 · 보상의 법적 근거와 복지 지원이 미비한 현실"이라며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평화의집은 8월 5~6일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경남 합천 일원에서 핵 · 방사능 피폭자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제3회 2014합천비핵 · 평화대회'를 개최했다.

배현진 기자

3천배 · 서명운동…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조계종 노동위 · 불교 NGO,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전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 역시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적극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살자는 7월 17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보름 동안 서명 받은 인원은 8천5백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두 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1백배씩 절명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평균 10여명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 참회와 서원의 기도를 낭독하며 100배의 절을 올린다.

한편 8월 2일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와 불력회(부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박종린)는 광화문 광장에서 3천배를 봉행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절을 올리며 여야 당쟁에 갇혀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심주완) 또한 8월 1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단식장을 찾았다. 사회국장 덕문 스님을 비롯 조합원 10여명은 단식 중인 도철 스님과 유가족에 합장 반배를 올리며 위로를 전했다.

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중인 이는 김영오씨와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 단 세 명이다. 13명의 유가족이 단식으로 탈진해 쓰러졌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종무원조합원들이 8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단식장을 찾아 세월호 참회와 서원의 기도를 낭독하고 있다.

"이사진 해종행위 중단" 對 "내부 회의 방해"

끝이 안 보이는 조계종 · 선학원 갈등… 분원장 회의 놓고 '攻防'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선학원 분원장 회의에서 연일 표면화됐다. 수덕사 대중은 선학원 분원장 회의처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수덕사 측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과는 물리적 마찰을 빚어 폭행 논란에 벌어지기도 했다.

7월 30일 진행된 서울 · 경기 지역 분원장 회의에서도 조계종 · 수덕사와 선학원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회의 시간인 1시에 앞서 서울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는 수덕사 측 스님들이 상경해 피켓 시위에 들어갔고, 선학원은 중앙선원 입구를 철저히 봉쇄했다.

이날 수덕사 측 시위에 동참한 수좌 낙운스님은 "선학원의 설립 목적 중에는 선원 수좌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현재 선학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 계신 스님들은 제방 선원에 돌아가서도 선학원의 현실이 어떤지 낱낱이 알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위에 앞서 덕숭총림 수덕사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효성)는 7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학원 임원진의 악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수덕사 선학원대책위는 "선학원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진은 만공 스님과 수덕사의 숭고한 뜻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재단 사유화를 위한 탐욕스런 행보와 전횡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하며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와 이사진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 △정혜사 분담금 10배 인상 및 사고사찰 지정 재산관리인 임명 △견성암 토지수용대금 6,400만 원 착복 △분원장 혼란 피해 가중 △분원장 회의 결과 허위사실 유포 △정범 스님 폭행 정당화 등을 악행으로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역시 '선학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자료집을 제작 · 배포하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총무원은 자료집에서 "선학원은 조계종단의 사찰과 스님들이 선풍진작의 목적으로 설립했음에도 현재는 사찰을 등록받아 관리하는 별개의 종단 역할을 하고 있다"

수덕사 측 회의장 앞서 연일 시위
"선학원 더 이상 종단 기능 하지마라"
종단, 선학원 자료집 제작 · 배포
300여 분원 중 147곳 "이사진 지지"
서울 · 경기 회의 취소, 서면 대체
"견제 아닌 함께하는 포용력 보여라"

면서 "선학원은 본래의 설립 취지로 돌아가 선풍진작 사업과 수좌 후원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학원의 설립 주체는 조계종단이며 조계종 스님들은 하나의 종단 체제 아래 육화(六和)의 정신으로 화합해 수행과 전법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선학원은 더 이상 사찰 등록 및 관리 등 종단 기능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학원 측은 내부 의견을 모으기 위한 분원장 회의를 해종행위로 규정하고 시위를 통해 방해한 것은 유감임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 수덕사와 선학원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7월 30일 열린 서울 경기지역 선학원 분원장 회의에 수덕사 측 스님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선학원 이사진은 7월 30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의 회의 방해를 비판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회 임원들은 "서울 · 경기 지역의 분원장 스님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참석하기로 한 스님들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면서 "많은 고민 끝에 지역별 분원장 회의를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학원 이사진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이사회 결의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서울 경기지역 분원장 스님은 총 63명으로 앞선 회의 지지자를 포함하면 총 147명의 분원장 스님들이 이사회의 의견을 동조한 것이다.

종단과 수덕사의 회의 방해에 대해서 이사진은 "분원장 회의는 법인관리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면서 "조계종과 수덕사가 이를 막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도리어 지역 불교의 위상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덕사 측이 제시한 재단 임원진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故 법장 스님의 수덕사 주지 당시 청원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선학원 임원진은 "수덕사 임회가 추천하고 선학원이 임명한 정혜사 · 간월암 주지가 법인에 허락없이 간월암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해 이를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며 "수덕사가 이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공개하면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덕사가 요구하는 토지 보상금 6,400만원은 예산군이 수용한 토지 수용금으로 재단에 예치돼 있다"면서 "이 돈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수덕사가 요구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며 더욱이 써서 없애야 할 재화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종단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불교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내외적으로 불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종단의 포용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진 스님은 "백양사 도박 사건과 종단 지도층 스님들의 도박 의혹, 표충사 횡령 등 불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과 선학원의 파열음은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견제와 장악이라는 마인드가 아닌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 종단 등 신도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기존 주민번호도 2년 내 파기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역시 2016년 8월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도와 사찰?불교단체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해 주민 번호를 수집해 온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의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의 분실과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이용 목적과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된 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당시 받은 주민번호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대비하고 있다. 스님들의 경우는 승적번호로 대체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종단 관련 사이트의 경우에도 시행에 맞춰 주민번호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신도등록의 경우 생년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스님들이 이용하는 연수 사이트의 경우에도 승적번호로 대체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8월 1일자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사실상 당선

문중 내 합의로 단독 입후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차기 주지에 현 주지 호성 스님〈사진〉이 사실상 당선됐다.

제16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고운사 주지 후보 등록 결과 현 주지 호성 스님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고운사는 그동안 문중간 합의를 통해 주지를 선출해왔고, 이번에도 호성 스님을 차기 주지에 연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월 4일 고운사 산중총회는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짓게 됐다.

신성민 기자

공고

불기 2558(2014)년 | 제26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종단에서는 포교활동을 통하여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전법활동에 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제26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 선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추천 바랍니다.

다 음

1 시상종별
가. 포교대상 : 종 정 상 ○명
나. 공 로 상 : 총무원장상 ○명
다. 원 력 상 : 포교원장상 ○명

2 추천분야
가. 계층포교분야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나. 직능포교분야 : 군, 경찰, 직장직능 등
다. 문화체육포교분야 : 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라. 사회포교분야 :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마. 매체포교분야 : 방송 · 언론, 출판 · 인쇄, 인터넷 등
바. 지역포교분야 : 신도 교육 및 조직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

3 추천대상
가. 종단스님 및 재가불자로 5년 이상 당해 공적분야에서 활동한 자
나.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는 종단등록 및 설립경과 5년 이상
다. 재가불자는 종단신도등록 필한 자
라. 포교대상[대상] 후보자는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자.
마. 추천시 유의사항
- 포교대상(공로상, 원력상 포함)을 수상한 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사항으로 추천될 수 없음.
-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표창을 수상한 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될 수 없음.

4 추천권자
가. 교구본사 주지
나.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다.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5 제출서류
가. 추천권자의 추천서 〈소정양식〉
나.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 〈소정양식〉
다. 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소정양식〉
라. 종단부여 자격증 또는 품수증 사본, 종단기관 재직증명서,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 신도는 신도증사본 및 교무금납부영수증 사본
※ 〈소정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4년 8월 4일(월) ~ 9월 30일(화)
나. 후보자 추천서류는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로 함 (인터넷, 이메일,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우편접수 시 9월 30일까지 우체국 소인 유효함.
라. 서류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 취소 됨.

7 문의 및 접수처
가. 전화 : 02)2011-1891 / 전송 : 02)720-7065
나. 담당자 : 포교팀 주임 최윤영
다. 주소 :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팀
라. 조계종 홈페이지 : www.buddhism.or.kr

8 시상일자 : 불기 2558(2014)년 11월 중 (일자 추후 공지)
※ 수상자 발표는 시상일 2주 전 불교신문 및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발표하며,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일자는 종단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9 시상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불기 2558(2014)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경허 스님부터 진제 스님까지 '傳法의 궤적'



경허 → 혜월 스님 전법게 | 혜월 → 운봉 스님 전법게 | 운봉 → 향곡 스님 전법게 | 향곡 → 진제 스님 전법게

진제 스님 소유 전법게 등 8점
부산시 유형문화재 지정 추진

한국 전통불교의 법맥을 증명하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전법게와 일종의 법맥도인 등등상속이 부산시유명문화재로 지정이 추진된다. 진제 스님은 7월 26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전법게 4점, 등등상속 4점 등 총 8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진제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전법게 4점은 1967년 향곡 스님이 진제 스님에게 전한 전법게부터 경허 스님이 혜월 스님에게, 혜월 스님이 운봉 스님에게, 운봉 스님이 향곡 스님에게 전한 전법게다.

한편 부산시는 9월까지 부산시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모든 조사와 절차를 마치고 등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여름 산사에 내 마음을 부탁해볼까

불교문화사업단 선정 여름 템플스테이 10選



올해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과 바다로 떠난다. 휴가의 절정인 8월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색다른 피서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10선을 선정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아름다운 산사에 마련된 풍성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자.

자연으로 돌아가 동심을 즐기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최초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성주 심원사에서는 '검정고무신 동심체험' 이 기다리고 있다. 녹음이 우거진 가야산 생태학습 · 트레킹은 물론, 별빛달빛 레크레이션과 만다라 명상으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피로를 말끔히 해소해 줄 예정이다. 8월 17~18일은 중학생, 22~23일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聽)' 들어주고 '마음' 을 '풀' 어주는 '청마풀 템플스테이' 로 유명한 대구 동화사와 역사와 문화의섬 강화도에 위치한 전등사에서는 8월 7일까지 각각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두 템플스테이 모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가족과 함께 산사로 'GO GO'

솔 내음 가득한 소나무 숲길이 인상적인 공주 마곡사에서는 '수리수리 가족 여름캠프' 를 통해 가족여행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된다. 숲속명상체험, 탑돌이 및 발우공양, 징검다리 걷기명상 등 자연 속에서 누리는 체험이 준비돼 있다.

소박하고 안온한 사찰로의 가족 여행은 어떨까.

서산 부석사에서 8월 23~24일, 30~31일까지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서로에게 108배하기, 우리 가족 자랑하기 등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다.

도심 어디에도 없는 피서를 꿈꾼다면 계룡산 갑사에서 열리는 본격 가족캠프에 참여해보자. 계룡산의 힘찬 기운을 받은 쾌청한 산사에서 진행되는 여름 템플스테이가 8월 초부터 말까지 총 6차례 준비되어 있다. 108염주 꿰기, 탑돌이, 발우공양으로 수행자의 삶을 체험해보고, 용문폭포 포행과 계룡산 트레킹을 통해 유명 피서지 못지않은 청량함을 맛볼 수 있다.

'기차게 노는' 놀이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영암 도갑사에서 선보이는 '함께라서 좋은' 가족 템플스테이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행복충전을 위한 다채로운 놀이 프로그램(웃음꽃 놀이, 숲속놀이, 아빠 힘내세요 외)을 가족과 함께 신나게 누려볼 일이다.

내면을 찾는 여행을 떠나자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절,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부산 범어사의 독특한 수행정진 프로그램 '용맹정진 템플스테이' 에 도전해보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삼천 배와 참선에 오롯이 집중해본다.

만해 한용운의 기운이 서린 인제 백담사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꿈, 희망 찾아가는 숲 명상' 을 준비했다. 자비명상, 돌탑 쌓기, 맥놀이, 마음 나누기를 통해 설악산 깊은 자락에서 소중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례 화엄사에서는 내 삶의 자존감 형성을 위한 '나는 참 예쁘다' 템플스테이를 연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금강경 독송, 에니어그램, 물붓기 명상 등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깨우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에 대한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 이벤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 약탈 유물 '오쿠라 컬렉션' 되찾기 본격화

혜문 스님, 1일 도쿄博에 도난 의혹 34점 소장 중지 신청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이 일제시대 일본이 한반도에서 반출해간 문화재 중 가장 중요한 유물들로 꼽히는 '오쿠라 컬렉션' 을 반환받기위해 나섰다.

조선왕조 의궤 등 해외 반출 문화재 반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혜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은 7월 31일 "오쿠라 컬렉션을 보관하고 있는 도쿄국립박물관 측에 8월 1일 문화재 소장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 를 발송한 뒤 20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일본 도쿄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쿠라 컬렉션은 일제시대 남선합동전기회사 사장인 오쿠라 다케노스케(1896~1964)가 1922년에서 1952년까지 수집해 반출한 문화재 1100여점이다. 이 중 39점이 일본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성보문화재로는 석가여래좌상, 약사여래상, 사천왕사 기와 등이 있다. 이 문화재들은 오쿠라 사후 '재단법인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 가 관리하다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혜문 스님이 소장 중지 및 반환을 요청한 것은 도난 혹은 도굴의 의혹이 짙은 34점으로 △'조선 대원수 투구' 등 왕실 유물 9점 △경주 금관총 출토 유물 8점 △부산 연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4점 △경남 창녕 출토 유물 13점 등이다.

혜문 스님은 "이들 문화재는 왕실이 관리했기 때문에 오쿠라가 이를 수집했다면 도난품을 사들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한편, 오쿠라 컬렉션은 1960년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반환을 적극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 '민간의 소장품' 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혜문 스님은 "일본 최고의 박물관인 도쿄국립박물관이 도난 · 도굴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당시 민간 소유 또한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31면〉 **노덕현 기자**

"'조당집', 한국 禪師 10명 편찬때부터 포함"

변인석 아주대 명예교수, 기존 학설 반박
편찬자 중 '균 선사' 해동 구법승 추정돼

초기선종사의 중요한 선문헌 '조당집(祖堂集)' 에 수록된 한국선사 10명이 고려에서 개판되며 포함됐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인석 아주대 명예교수는 〈한국고대사탐구〉 16집에 게재한 '조당집의 증보에 관한 논란의 부정적 시각' 논문에서 "〈조당집〉에 있는 '동국선사 10인전(十人傳)' 은 편찬 당시 포함된 것으로 특히 편찬자 중 한명은 해동구법승으로 동국선사가 실린 것은 선종사 흐름상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당집〉은 952년 중국 오대 남당(南唐)의 천주(泉州) 초경사(招慶寺)에서 정(靜)과 균(筠) 두 스님에 편찬됐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 〈조당집〉은 1912년 일본 학자에 의해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본 조사 당시 발견됐지만 1928년 일본학자 오야 도구죠가 고려에서 광준스님이 개판하며 10명의 신라 스님을 포함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해 정설처럼 자리했다.

변 명예교수는 "조당집에 수록된 동국선사들 중 혜철과 홍직 스님의 경우 23~25자의 단문으로 서술됐는데, 만약 고려에서 증보했다면 상세히 보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또 천주지역의 방언과 속어, 불교지리 등이 그대로 나와 고려에서 증보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변 명예교수는 "조당집은 서천(인도)과 동천(중국)의 조사를 함께 다루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동국선사들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특히 이 조당집의 편찬자 중 한명인 '균' 선사는 해동구법승으로 보이며 천주에 가까운 신라원에서 자료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명예교수는 "〈조당집〉은 편찬에서 개판까지 해동선사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드러난 한류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대 종교 지도자 '이석기 선처' 탄원서 파문

불교 자승 · 도법 스님 참여… 보수단체 반발 잇달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4대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 염수정 추기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선처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면서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다.

탄원서가 종교인의 인도주의적 자세임을 강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보수 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보수우익단체 활빈단은 7월 29일 조계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28일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친 뒤 내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캄보디아 우물 2030기 건립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 따께오주 썸므라옹면 마을에 7월 30일 39번째 우물을 건립했다. 공생회의 캄보디아 우물은 2030기가 됐다.



생명나눔본부에 5백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20주년을 맞아 7월 26일 발전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해인사 자비원에 1억원 기부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은 7월 24일 해인사 자비원 운영기금 1억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탁했다.



김영택 작가 전시 롯데갤러리서

펜화가 김영택 작가의 'Pen and Ink Drawing Works' 전이 9월 29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롯데 갤러리에서 열린다. (02)723-3340

"희망의 발걸음으로 평화 발원"

부산 불광사 순례단 10보 1배 728km 대장정 9월 1일부터



남북평화 · 사회화합 발원
부산에서 고성까지 75일 일정
"침체된 사회에 희망 전하고자"

남북평화와 사회화합을 위한 10보 1배 순례가 열려 화제다. 부산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9월 1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나아가 사회의 상생을 발원하는 10보 1배 728km 순례 대장정에 오른다.

보광 스님은 화합되지 않고 불신과 논쟁이 만연하는 사회에 이해와 화합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와 같은 순례를 기획했다. 부산에서 시작해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총 7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장정에는 구미 관음정사 주지 자중 스님, 부산 우리선원 주지 석광 스님, 그리고 김동현 불광사 봉사회 총무가 동참한다.

순례단은 '경제난 극복 기원과 남북통일 및 상생을 위한 10보 1배 대순례' 라는 이름하에 9월 1일 부산 불광사를 기점으로 오대 적멸보궁인 양산 통도사, 태백 정암사, 영월 법흥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등을 거쳐 11월 15일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회향한다. 열 걸음을 옮기고 절을 올리는 10보 1배를 통해 화합과 공존에 대한 간절한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한다. 또한 침체된 경제, 세월호 참사 등으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희망과 위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순례를 기획한 보광 스님은 "은사인 지준 인산 스님은 불광사 창건 당시 실천과 공덕은 닦지 않으면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함께 사는 공존의 시대가 필요함을 사회에 알리고자 직접 행동에 나섰다"며 이번 순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보광 스님은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매우 위태롭다. 경제난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이 생존의 어려움이 됐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화합과 소통보다는 경쟁이 치닫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스님이라는 업을 가지면서 그냥 가만히 수행만 할 수는 없었다. 동참해준 순례단과 함께 중생구제와 더불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장정에 합류하기로 한 자중 스님과 석광 스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긴 여정의 10보 1배 순례라 체력이 염려된다. 하지만 부처님이 항상 어디서든 계신다는 믿음 하나로 보광 스님과 함께 평화를 발원하고자 한다. 길이 곧 법당인 셈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광 스님의 10보 1배 순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광 스님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10보 1배로 오대 적멸보궁을 참배했다. 보광 스님은 과거 라오스 불교성지를 순례할 때 길 위에서 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라오스 비엔티엔 근교 반껀마을에 초등학교를 설립했다. 국내 어려운 이들을 제쳐두고 "왜 라오스에 학교를 건립했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보광스님은 "순수함이 남아있는 나라이다. 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에서 라오스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 세계의 평화와 행복은 우리에게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보광스님의 세상을 위한 평화의 서원이 이번 순례로 다시 한 번 시작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에
송석구 前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송석구 前사회통합위원장(前 동국대 총장)은 7월 25일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삼성 그룹이 사회 소외계층의 교육균등 기회 제공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송석구 이사장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총장, 가천의과학대 총장,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송석구 이사장은 "사회통합위원장으로 있으며 소외계층 사다리 교육을 주창한 것이 이번 장학재단과 뜻이 맞았다"며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고, 그로 인해 소외계층의 교육의 기회가 너무나 줄어들었다. 봉사의 마음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단으로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석구 이사장은 특히 "꿈장학재단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사회갈등을 채유하고 우리나라의 동량을 키워내는 설립이념을 갖고 있다"며 "그 이념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통해 국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꿈장학재단 이사회는 선임 배경에 대해 "송석구 신임 이사장은 교육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재단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며 "향후 삼성꿈장학재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 추모비 제막



7월 25일 제막식을 가진 배춘희 할머니의 추모비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를 추모하는 비가 7월 25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제막됐다.

추모비에는 배 할머니가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 '소녀 아리랑' 의 가사가 새겨져있다.

배 할머니 추모비 곁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6개의 비와 공동 추모비 1개가 세워져 있다.

192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배 할머니는 19세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고 정신대에 자원, 중국 만주에서 성 노예 생활을 했다.

배 할머니는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모은 8천만원을 중앙승가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배현진 기자

BBS 불교방송 노사파트너십 워크숍



BBS 불교방송은 7월 18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소통을 통해 하나되는 신명나는 일터' 라는 주제로 '노사파트너십 워크숍' 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원 사장과 전영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본사와 지방사 임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지오영 이희구 회장의 '열정, 인생을 바꾸는 강력 힘' 이라는 주제 강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정혜숙 기자

"종교인들, 청소년 발심에 힘써야"

김용표 교수, 불교종립학교 교직원 연수회서 강조



불교교육연합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제48차 불교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 에서 김용표 동국대 교수는 "보통 16세를 전후한 청소년기에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기에 종교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이런 회심을 발심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교법사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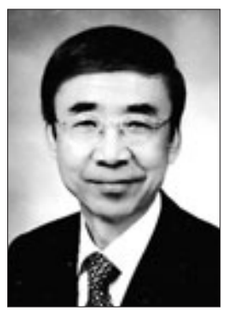
'종교적 회심과 발보리심'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김 교수는 "회심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인생에서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발심에 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매순간 보리심을 일으키는 불퇴전의 정진이 필요하며, 항상 깨어서 정진하려는 결단의 연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 산하 13개 법인 29개교 학교장 및 교법사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수련회에서는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장 이학주 법사(동대부여중)가 '비폭력 교실을 위한 자비의 대화법' , 이동배 정광고 교법사가 '불교의례의 이해와 실천' 그리고 '교사 행복코칭' 등을 강의했다. 불교교육연합회는 1962년 창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불교종립학교 연합기구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소 108 사찰 동참하도록 노력"

박종수 신임 직할교구신도회 회장



"임기 2년 동안 108곳의 사찰이 직할교구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이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직할교구회 대의원총회에서 3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종수 신임 직할교구신도회장은 2016년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직할교구 사찰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직할교구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박 신임회장은 "직할교구에 해당되는 사찰이 450여 곳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40여 곳 사찰만이 동참하고 있다. 임기동안 봉은사, 도선사, 영화사 등 주요 사찰을 비롯해 적어도 108개 사찰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수 회장은 "신도직할교구에서 실질적으로 포교도 하고 조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임기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대 감사에 한말선 화계사 신도회장, 이금석 노적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박종수 신임 직할교구신도회장 이ㆍ취임식은 오는 8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재안 스님, 부안군에 장학금 기탁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학생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이 7월 31일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군청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서 재안 스님은 "예로부터 부안은 많은 문인들이 배출된 학문의 고장이었다"며 "부안군 나누미근농 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확보하여 반값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듣고 작은 돈이지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2월 개암사 주지로 부임한 재안 스님은 2012년에도 장학기금 300백만원을 기탁한바 있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자비의 쌀을 전달해왔다.

재안 스님은 전국승가학인연합 조직부장, 동국대 석림회장, 봉은사 포교국장을 지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 지도자들의「이석기 선처」탄원을 규탄한다

사문의 한사람으로 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규탄하기에 앞서 호국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교가 한 종단의 사판승으로 하여, 참회와 반성없이 반국가범죄자로 재판중인 자를 선처하라는 호소는 어떠한 이유에도 전 불교도들을 욕보이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규탄하는 바이다.

급변하고 있는 제 5정보화 시대의 지구촌의 격랑은 기도교적, 유교적 사회를 급격히 무너뜨리고 IT시대의 새로운 사회 규범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 모든 사회 구조는 상명 하복의 질서와 가부장적 질서를 새로운 동반 관계를 유지시켜줄 도덕적 규범과 종교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적 유일 신성론의 신앙은 더이상 횡적 사회질서에서 규범과 질서를 지탱해줄 종교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반면 3,000년전부터 이 시대의 혼란을 예견하고 가르친 불교의 평등사상은 혼돈과 무질서의 횡적 사회현상을 지탱하고 도덕적으로 완성시킬수 있는 유일한 종교적 가치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종교 문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근대적 종교집단과 어울려 불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자승자박하는 일이며, 21세기 불교의 사명을 깊이 알고 서구에 화살의 속도로 번지는 교리 정리에 몰두 하고 있는 사문의 긍지를 헛되게 하지 말았어야 하였을 것이다.

이판승의 계와 율의 존엄한 가치는 정치 경제 사회의 파사 현정을 가르키고자 함이고 결코 부정과 사특함을 동정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판승의 책무는 계와 율이 더욱 청정 하도록 지키는 일일 것이며 그들의 묵언 만을 전할 것을 재삼 재사 강조하는 바이다.

불기 255년 7월 28일

화쟁교단 분황종 총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현불**





파로종 사원의 스님들이 순례단의 보시한 대중공양을 하고 있다.



순례단의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승무를 선보였다.

마가 스님과 자비명상 순례단은 7월 19일 전통사원 파로종을 방문해 부탄 스님에게 가사를 공양했다. 부탄에서 스님들이 입는 가사는 한 벌에 35달러로 고가에 속한다. 때문에 가사 한 벌로 생활하는 부탄 스님들에게 가사공양은 더없이 좋은 공덕이 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가사는 여래의 웃옷이며, 보살의 큰 옷이다. 이 가사를 수하는 자는 큰 복전이 되며, 가사를 조성하는데 동참한 사람은 수승한 과보를 쉽게 얻는다"고 말한다.

행복지수 1위… 국민 대다수 멘토는 '불교'

마가 스님, 사부대중과 부탄 성지순례… 300명 스님에 가사공양

네팔 동쪽, 히말라야 오지에 위치한 작은 왕국 부탄은 국토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인구의 75%가 티베트불교를 믿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부탄은 불교가 생활 깊숙한 곳까지 배어있다. 부탄의 국왕은 화려한 왕궁을 정부에, 왕가의 토지는 무상으로 농민에게 나눠주고 경호원 없이 운전을 하는 검소함을 몸소 보여줘 국민들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부탄의 국민들 대다수는 멘토가 있어 정신적 의지처로 삼고 철저한 연기법과 인과법을 믿으며 살고 있다.

힐링멘토로 잘 알려진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과 사부대중 28명이 7월 17일~23일 불교국가 부탄으로 색다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는 불교성지순례만 하는 기존 여행과는 달리, 부탄 스님에게 가사와 음식공양을 올리는 기념식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7월 17일 인천을 출발한 순례단은 18일 도착해 국립기념탑, 탕가 미술학교, 창강카 사원, 타시초종 사원, 체리곰파, 질루카 힌중절(비구니)사찰, 청동 석가모니 등을 순례한 뒤, 20일 가사 공양을 올릴 파로종 사원으로 이동 했다. 파로종 사원은 부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200여 부탄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다.

순례를 이끈 마가 스님은 "행복지수 1위인 부탄의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지 불자들과 함께 직접 경험하기 위해 순례를 다녀왔다. 부탄 국민들은 이번 삶을 내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선을 베풀며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부탄 스님뿐 아니라 국민 모두 타인의 시선에 신경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려고 애 쓰기보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진정한 수행자와도 같았다. 많이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가 스님은 "순례에 참여한 불자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부탄 스님의 가사와 대중공양에 써달라며 보시를 해분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순례에 참가한 이경미 불자가 부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이다.

7월 18일 둘째 날

부탄 파로 공항에 도착한 우리를 낄레 스님이 맞이했다. 낄레 스님은 한국을 4차례 다녀갈 정도로 한국과 인연이 있는 스님이다.

파로에서 부탄 수도인 팀푸로 이동해 팀푸의 상징인 국립기념불탑을 관람했다. 탑은 1974년 부탄 3대 왕인 지그메 도르지 왕축의 명으로 만들어져 전통 티베트 양식을 담아냈다. 늦은 오후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거나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다. 부탄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 국가를 비롯해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부처님께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 한다.

부탄과 티베트의 산에는 어디를 가나 오색천인 '룽다'가 나부끼고 있다. 오방색 천이 걸리는 곳과 색에 따라 고엔다(집), 마니다(망자, 병자), 룽다(부처님 말씀), 라다(사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오방색의 천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에 걸어 놓고 세상 널리 그 말씀이 퍼지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비는 것도 있고, 병자의 쾌유,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도 있었다. 어디를 가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람에 실려오는 법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강카 · 체리곰파 등 5박 6일간 순례
파로종, 1647년 창건된 부탄 대표사원
300여 스님에게 가사 및 대중 공양
순례단 중 비구니 스님 '승무' 선봬

이어서 아이들의 성장에 영험이 있다고 믿는 창강카 사원으로 향했다. 법당 안에는 많은 스님과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후 팀푸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붓다뷰에 올라 69m의 청동 석가모니 좌상을 참배했다.

7월 19일 셋째 날

우리는 부탄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하기 위해 팀푸에서 파로종으로 이동을 했다. 파로종은 1647년 창건된 전통 사원이다. 파로는 지역 이름을 말하며 종은 사원 기능과 행정 기능을 가진 복합 건물을 말한다.

부탄 스님께 외국인이 가사공양을 올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며 파로종 스님들도 들떠 있는 분위기였다. 법당에는 이미 주지스님과 대중들이 모여 좌정해 있었다. 우리가 부처님과 부탄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난 후 부탄 스님들의 기도로 가사 공양 의식이 거행됐다. 장엄한 염불소리와 함께 가사가 올려졌다. 우리 순례단의 한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승무를 선보여 부탄 스님들에게 새로운 공경의 찬탄의 모습을 보여줬다.

7월 20일 넷째 날

'호랑이의 둥지'를 뜻하는 탁상사원으로 향했다. 티베트와 부탄에 밀교의 전통을 남긴 파드마삼바바가 수행했다고 전해진 곳으로, 세계의 신비한 10대 사원에 선정될 만큼 유명한 곳이다. 해발 3024m 높이에 절벽에서 솟아난 듯 걸려있는 사원의 풍경이 신비스러움을 더했다.

탁상사원에 이르는 길에는 룽다가 끝없이 이어져 펄럭이고 있다. 위태해 보이기까지 한 사원은 거대한 폭포수와 함께 자리하며 모든 번뇌를 씻어 내주는 듯, 자연의 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탁상사원은 부탄인 들이 가장 성스러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카메라, 휴대폰 등 모든 소지품을 맡겨두고 사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법당에 올라 예불을 올린 후, 마가 스님의 인도로 스님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을 담아 재가불자들을 한명씩 꼭 안아주었다. 그대로 차별 없는 부처님 세계로, 너와 나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몸으로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잔잔하면서 묵직한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부탄=이경미 (순례참가단원)



세계 신비한 10대 사원에 선정된 탁상사원



파로종 불단에 예불의식을 거행하는 순례단 스님들.



부탄 수도 팀푸의 상징인 국립기념불탑에서 예를 올리는 스님들.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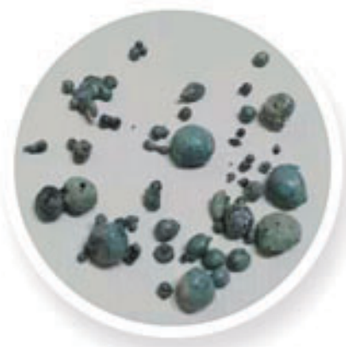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봉안

천혜의 명당 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체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체로 혐오감이나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고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이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마음은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초, 성묘, 제사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고인을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 하시면 지장부처님의 월력으로 극락환생 발원. 잘못된 묫자리 또는 화장 후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과 부정적 악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운사 자성사리는 가정집, 교회, 성당, 사찰,납골묘, 납골당 및 문중사당 재실 등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천운사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 자리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의정부IC에서 2Km거리에 있으며, 수락산 전철역 3번 출구에서 700m에 있어 찾아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천운사 지정전에 지장부처님 안에 자성사리로 봉안하시면 매일 영가 축원과 재수음식을 차려 정성껏 축원을 해 드립니다.







국제선불교조계종 천운사 TEL.02)952-9918 / HP.010-3566-3019 분양문의 (주)천운효행 TEL. 02)935-0521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00-6(수락산)

도심 떠나 천년 숲서 만나는 '인문캠프'

시민행성, 월정사서 8월 28~30일 '나눔' 주제로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은 한국의 대표적 명찰 오대산 월정사에서 '나눔'을 주제로 제2회 인문캠프를 연다.

'가장 빛나는 것을 당신에게 주었네' 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인문캠프는 8월 28~30일까지 3일간 월정사 템플스테이 공간을 비롯해 전나무 숲길, 상원사 등에서 이뤄진다.

인문캠프는 〈시민행성〉의 정기 행사로, 참가자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인문캠프에서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특강을 비롯해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을, 이희경 문탁네트워크 연구원이 '선물의 공동체' 를,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마음이 마음을 넘어서는 일' 을, 이형대 고려대 교수가 '이야기의 보고-오대산이라는 자리' 를 주제로 각각 강연하며, 인문학자와 시인 이원 등이 인문학 특강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끈다. 또한 국악그룹 '숨' 의 공연과 음악평론가 송현민의 해설이 어우러진 '천년의 숲' 음악회도 예정돼 있다.

〈시민행성〉은 " '나눔' 을 통해 우리 시대와 개인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민행성〉은 인문캠프에 이어 8월 31일 강원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3회 청소년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잊지 못할 나의 선물 목록'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청소년 지혜학교에는 관성적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이나은 기자

학부모·자녀 함께하는 감정 조절 프로그램

무안 봉불사서 진행… 포교원 인증 프로젝트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명상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는 7월 26일 봉불사의 '명상센터 쉼' 에서 학부모와 청소년 20여 명을 초청해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명상과 감정조절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청소년 문제를 진단 및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인 '청소년 마음등불' 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프로그램은 △호흡과 춤 △이완 명상을 △감정다루기와 상담 △부모와 아이들 간 소통의 장 △화해의 장 △저녁 공양 요리대회 △레크리에이션 △비폭력 대화와 역할극 등으로 마련됐다.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는 7월 26일 '명상센터 쉼' 에서 학부모와 청소년 20여 명을 초청해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명상과 감정조절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지오 스님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참가한 청소년들의 낯빛은 처음엔 어두웠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얼굴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회향하는 순간은 모두가 환한 모습으로 다음을 기약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마가 스님, 마음치유사 과정 개설

동국대평생교육원서 3월 4일부터

마음치유사 양성을 위한 무료 공개강좌가 열린다.

한국마음치유협회(회장 마가)는 8월 24일 오후 2시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마인드힐링 지도사 및 방과후 명상학교 지도사 과정' 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마인드힐링지도사는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치유와 예방, 교육과 수련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템플스테이와 복지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정이다.

방과후 학교 명상지도사는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주의 · 집중 · 기억력을 강화시켜 학습 효과를 내게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자격 과정이다.

각 강좌 모두 총 30주과정으로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2)2260-3728

이나은 기자

"비우고 버리는 행복한 삶 살겠습니다"

한마음과학원, 어르신위한 '행복한사계절' 회향

"여러분이 이 멋진 묘법을 모르고 육신을 그냥 버린다면 참 원통할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원통하고말고요! 남 날 때 나서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그냥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먹고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도리를 알아서 세세생생 끝간 데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문제니까요."

(대행 스님 법문 中)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행복한 사계절' 을 진행했다.

노년은 우리 인생에 있어 결실을 맺는 시기다. 누구나 나이를 먹기에, 노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평균나이 74세의 어르신 36명이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에 모였다. 74세라면 대한민국 광복, 민주화 과정 등 역동의 시절을 지내온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들이라 말할 수 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 '나' 를 잊고 살아온 어르신들이 인생의 말미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할지 고민을 했다.

한마음과학원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행복한 사계절' 을 진행했다. '행복한 사계절' 은 한마음과학원과 조계종 포교원이 노인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남녀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평균연령 74세 36명 참가
조계종 포교원과 시범적 운영
음악 · 율동 · 미술활동 등 참여
내면 알아차리고 공감능력 길러

어르신들은 7주 동안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김영래 고려대 연구교수, 박소진 연세대 강사, 이경욱 원광디지털대 교수, 황수경 동국대 강사와 함께 △사바의 인연-소중한 만남 △감사하기-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보물찾기 △미워도 다시 한번-용서와 화해 △내가 살던 고향은-동심을 찾아 △당신은 모르실거야, 내 마음! △타임머신-소원을 말해 보세요 △마음 꽃을 피워요-변화하는 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매회 명상을 하고 내면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증장시켜 가족, 친지 등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은 교육시간 동안 음악, 율동, 미술, 조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매주 변화하는 자신을 위해 실천하고 싶은 것을 정해 일상에서 체험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공부하며 느낀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공팀의 김정옥(77 · 여) 어르신은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그동안 남에게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심팀 명을식(78 · 남) 어르신은 "7번의 교육 통해 옛 추억을 살릴 수 있어 좋았고, 인생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버릴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중한 인연들과 마지막까지 정진하며 비우는 삶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향식에는 주지 혜원 스님이 참석했다. 스님은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선업이든 악업이든 되돌려 받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과학원은 "평균나이 74세의 어르신들은 남존여비가 강하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성장해 자신을 억누르며 성장해 왔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나이가 들면서 위축되는 부분을 좀 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감을 찾아 비우고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푸른 눈' 의 외국인도 반한 한국 사찰 체험

대흥사 · 골굴사,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체험 콘텐츠인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범각)는 7월 26~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 소속 원어민 교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캐나다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과 해남 교육지원청이 양해각서를 맺어 매년 실시하는 교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지도법사 현진 스님과 함께 사찰문화해설, 아침예불, 오감명상, 운력, 108배하며 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이번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니콜씨(28,여)는 "천년이 넘은 오래된 사찰에서 1박2일 머물며 수행자를 만난다는 것이 경이로운 체험이었다"며 "많은 곳을 여행 다녀보았지만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선무도 본찰인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에서는 외국인 태권도 선수들이 선무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움직이는 선의 숨결 선무도 템플스테이' 는 경주국제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미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등의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선수단이 골굴사를 찾았다. 이들은 선무도 공연 관람과 체험을 하며 한국 사찰문화와 불교 비전 무술 선무도를 배웠다.

독일의 한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와는 다르게 온 몸을 사용하며, 부드러움과 강함이 조화된 선무도는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아주 좋은 수행법"이라며 "선무도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다시 골굴사를 찾아와 선무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11~16일까지 경주 국제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단이 골굴사에서 선무도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있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선무도 대금강문 문주)은 "현재 국내외 여러 무술단체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많은 단체들이 골굴사를 찾아 선무도를 수련하고 있다. 선무도를 통해 불교무술의 깊은 수행 단계를 깨달아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8월 2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8월 2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8월 18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시원한 나눔… 저소득층 교계 지원사업 활발

"아이고~ 시원타.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좋다. 이번 여름은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세평 남짓한 판자집에서 홀로 사는 안장임 할머니(78)가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한여름 땀에 들러붙는 여름 돗자리를 대신해 쿨매트 위에서 한결 시원하게 여름을 나게 돼서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 취약 계층에 교계 복지 지원이 답지하고 있다.

가장 먼저 팔 걷어 부치고 나선 곳은 모금 재단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다. 지난 5월 26일부터 저소득가정에 쿨매트 보내기 캠페인을 두 달간 실시해서 모은 5백만원으로 서울시 75곳에 쿨매트와 여름 이불을 전달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천한 저소득 홀몸 노인가구 27세대에게는 이미 지원이 완료됐다. 안장임 할머니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번 나눔의 일원이 됐다.

지난해 폭염으로 사망한 숫자는 14명. 그 중 65%가 노인이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4째 주에만 119명의 사람들이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더위에 생명 위협까지 받고 있는 노인 및 아동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물론 복지시설에서도 손길이 바쁘다.

해마다 더위로 몸살을 앓는 경북도의 경우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 3939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냉방비용으로 5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폭염특보 즉시 SMS 문자를 전송해 주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역시 7월 14일부터 지역 내 홀몸 어르신 759명에 대한 폭염 대비 비상연락체계망 구축에 들어갔다. 복지관 직원들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동원해 직접 방문 또는 안부전화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챙긴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에서도 복지관 일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중이다. 복지관 1층에 '무더위 쉼터' 팻말을 달고 8월 말까지 지역 주민들이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폭염 특보기간에는 주말에도 개방하며 저녁 9시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쉼터에

더위 취약계층 노약자 대상
쿨매트 · 선풍기 · 홑이불 지원
복지관 내 무더위 쉼터 개설하고
비상연락체계망 구축 · 방문까지

는 에어컨, 선풍기, 부채, 얼음, 비상구급품과 함께 폭염 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에 대한 응급처리요령 안내서 등 폭염 대비 매뉴얼이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 롯데 하이마트, 한국야쿠르트와 연계해 독거어르신 50명에게 선풍기, 이불, 청소키트, 쿨매트 등을 지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저소득층 혹서기 지원사업에 이백만원을 후원해오기도 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운)에서도 지난 7월 삼성물산과 함께 '행복愛 물들다' 를 실시했다. 인견이불, 파자마, 구급



아름다운동행이 저소득층 가구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원한 쿨매트를 받고 안장임 할머니가 기뻐하고 있다.

함, LED 비상조명 등 안전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원한 것이다.

저소득층 혹서기 지원사업은 대개 자체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모금과 기업 후원에 의존한다.

아름다운동행측은 쿨한 나눔 캠페인을 준비하며 당초 모금금액을 5백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좀처럼 모금액이 모이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바자회를 개최, 다행히 목표액에 맞출 수 있었다.

기업 후원 역시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20곳에 사업 제안서를 보내면 1~2곳에서 답변이 오는 정도다. 그래서 일찌감치 캠페인을 시작해서 후원 기업들을 물색한다.

이러한 노력 덕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소희)은 지난 7월 저소득 가정 200세대에 쿨매트와 냉풍기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계 복지시설 대부분 내년 혹서기 지원사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쪽방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로 제대로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워 있는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이러한 지원 사업은 건강이 약한 어르신들이 여름을 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스스로는 여력이 안 돼 후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물품 전달차 들르는 방문 역시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지지가 될 수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하계계절학교 열어

성폭력 예방교실도 함께 진행

강원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방학 중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관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개선하고자 하계계절학교 소나무 교실을 실시했다.

계절학교에 참가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은 25명이다. 학생들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7월 21일부터 2주에 걸쳐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측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향상시켜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었다. 대인관계, 사회성향상 등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7월29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하계계절학교에 참가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한 참가 학생이 즐거워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동영상 자료를 통해 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평가했다.

배현진 기자

비껴간 인연에게…첫사랑 추억담긴 편지

부천 원종복지관 회원, 한글 배워 편지대회 수상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갑표)은 복지관내 성인문해교실 수강생이 제10회 비문해(非文解)성인학습자 편지쓰기대회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회원인 정정자씨와 이화복씨는 이 대회에서 각각 장려상과 늘배움상을 수상했다.

정정자씨는 '비껴간 인연에게' 라는 글로 지나간 연인에게 전하는 애잔한 글을 써 주위에 감동을 줬다. 편지에서 그는 처음 연인과 만난 "살구꽃 활짝 핀 날"을 떠올리며 회상에 잠기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 늙어가는지" 궁금해하며 한 편의 서정시를 완성해냈다. 정씨는 "이따금 하얀 편지지에 연필로 편지를 쓰고 싶었으나 글을 몰라 마음 한구석에 밀린 숙제처럼 남아있었다"며 "이렇게나마 모모씨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 마음이 즐겁고 세상이 참 좋아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배현진 기자

청담복지관, 자비 쌀 나눔 모금

한가위 맞이 저소득 가정에 20kg쌀 후원

서울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에서는 금천구 지역내 저소득 가구에 쌀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에 나선다.

다가올 한가위를 맞이해 저소득 가정에 쌀을 전달하는 자비 쌀 나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9월 3일 혜명보육원 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금천구 지역 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및 조손세대 결식아동,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가구당 쌀 20kg씩 총 250가구에 후원할 예정이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의 자비 쌀 나눔 행사는 여느 복지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들릴만큼 복지관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후원은 대개 기업들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약 1천만원 정도 되는 후원금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들에 후원 제안서를 보내서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번도 거르지않고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내년에도 줄곧 이어갈 예정이다.

자비 쌀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온라인 기부 혹은 쌀 20kg을 직접 후원할 수 있다. (02)806-1377, 후원 하나은행 574-910001-31804(예금주: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배현진 기자

행복한 조부모되기 프로젝트

전주 서원복지관 '내리사랑…' 참가자 모집

어린 손자녀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양육 해답을 알고 싶다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석초)에서는 행복한 조부모되기 프로젝트 내리사랑 치사랑 참가자를 모집한다.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 ·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 코치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수업에 이어 하반기 강좌도 개설됐다.

손자녀 양육기술 특강 등 이론 수업은 물론 동화구연, 전통놀이, 체험학습 등 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려준다. 양육에 지친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법도 배울 수 있다.

복지관 측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양육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관한 특강은 물론 가족과 함께 양육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까지 코칭해준다"고 밝혔다.

관련 교육 기회가 적은 탓에 이용자들의 관심도 높다.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입소문 덕분에 참가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참가자들의 수강료는 무료다. 7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1회씩 운영되며 총 14회기 수업이다. 시간은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063)227-7483

배현진 기자

"내가 만든 피자가 제일 맛있어"

나래꿈터, 청소년 요리사 직업체험 교실

서울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나래꿈터(센터장 보련)에서 요리사 꿈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26일 요리사 특강을 진행했다. 요리 특강에 참여한 약 30여명의 학생들은 요리사가 되는 과정과 다양한 분야의 요리사에 대해 알아가며 직접 피자를 만들었다.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래꿈터 센터장 보련 스님은 "청소년들이 요리사의 직업관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체계적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는 '나래꿈터' 는 '나의 미래를 꿈꾸는 터전' 의 줄임말로 지난해 개소됐다.



요리사의 꿈을 꾸는 청소년들이 피자를 직접 만들어보고 있다.

나래꿈터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직업체험장 지원발굴,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는 허브역할, 토요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배현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활안스님
제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3회 선문염송 특강

◇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1권 ~ 81권 (각권 10,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南 일제 강점기 남북한 불교 모습은? 北



구례 화엄사 사사자석탑(1914년 촬영)=사자를 네 모퉁이에 기둥삼아 세워 놓은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됐다. 국보 제35호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을 상징한다. 바로 앞 석등아래에서 탑을 향해 앉아 있는 스님상은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화엄사 창건주인 연기조사의 모습이다.

남한 사찰 40여곳, 2백여장
북한 문화재 169점, 830장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1910~1940년대 남북한 옛 불교 모습들이 대거 공개돼 화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펴낸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에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촬영한 불교문화재 169점이 실렸다. 사진은 총 830장이다. 이와 함께 국립나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남도지역 유리건판 200여 장을 받아 8월 17일까지 열리는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 전을 통해 불교사찰 40곳을 소개했다. 대부분이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북한의 종교탄압으로 사라진 문화재여서 그 가치가 높다. 불교계의 근현대 옛 모습을 돌아보자. **노덕현 기자**



금강산 장안사 전경(1912년)=신라 551년(진흥왕 12) 고구려 혜량 법사가 창건한 금강산 4대 사찰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불타고 현재 그 터만 남았다. 일주문을 지나 6전 7각 1문의 건물이 두 개 영역으로 나눠 배치된 대가람으로 김윤겸과 김홍도의 '장안사도' 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터는 북한 국보 제96호로 지정됐다.



순천 송광사 우화각 (1928년 촬영)

육당 최남선은 저작 심춘순례에서 송광사를 '조선불교의 완성지' 라고 평가했다. 송광사에서 가장 절경으로 꼽히는 것이 대웅보전 앞의 우화각이 보이는 풍경이다. 우화각은 일주문을 들어서 대웅보전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다리 위에 놓인 집으로 '깃털과 같이 몸이 가벼워진다' 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주 서성문 석등 (1930년대 촬영)

원래 나주읍성 내에 있던 것을 1929년 경복궁으로 옮겨 창고에 보관했으며, 2001년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세워졌다가, 지금은 용산 중앙박물관 앞에 있다. 나주 읍성에는 보물 49호 '동문밖 당간지주'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절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암 도갑사 도선수미비 (1934년 촬영)

도갑사 도선수미비는 신라 도선 국사와 도갑사를 중창한 수미왕사를 추모하는 비로 1653년에 완성됐다. 귀부(龜趺), 비신(碑身), 이수가 구비된 석비로 도갑사의 부도전(浮屠田) 부근에 건립된 보호각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최근 보물 제1395호로 지정됐다.



화순 쌍봉사 대웅전 (1932년 촬영)

대웅전으로서는 희귀한 3층 전각으로 목조탑파(木造塔婆) 형식의 희귀한 건물이다.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과 함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둘 밖에 없는 목탑 양식으로 1984년 화재로 소실 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보물 163호였지만 소실 이후 복원으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 유리건판 사진에서는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황주 성불사 극락전 (1909년 촬영)

성불사는 황해도의 관문인 황주 정방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898년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 황해도의 중심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자은종 중심사찰이자, 수륙재가 열리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는 31본산 제도 하에 황해도 본사로 31개 말사를 관리했다. 현재 극락전을 비롯한 6동 건물과 오층석탑이 남아 있는데,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고려말 건립됐다. 한국전쟁 당시 불탔으나 복원하였다.

유점사 백의 관음보살입상 (1912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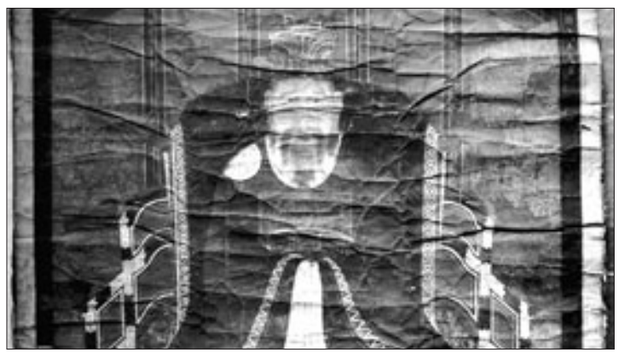
유점사 백의관음보살입상은 1912년 촬영된 것으로 높이 42.8cm에 대좌, 상, 지물이 별도로 만들어져 결합된 것이다. 독일신부 안드레 에카르트가 1929년 발간한 〈조선미술사〉에도 실려있다. 현재는 소실됐으며 13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은율 석조삼존불상 (1916년 촬영)

은율 석조삼존불상은 처음 공개된 것으로 1916년과 1929년 두차례 조사됐다. 촬영 당시 경작지 안에 방치됐다. 머리에는 꽃무니가 새겨진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썼다. 이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유행한 형식으로 제작 시기는 고려초인 10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화장사 공민왕 진영 (1916년 촬영)

화장사 공민왕 진영은 조선시대 화장사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귀중한 유물로 꼽혔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다. 원유관을 쓰고 왕의 복식을 착용한 모습은 한 불화양식이다. 시왕도의 시왕과 여러 도상적 유사점을 볼 수 있다. 이 진영은 별도의 전각에 보관됐는데, 고려 유민들이 화장사에서 제사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조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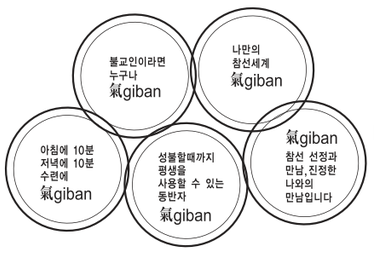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의례 정비 통일법요집 기준에 맞춰야”

신규탁 교수, 정토학연구 제21집서 비판 시론 실어



1998년 통일법요집 이후 발간된 법요집. 신규탁 교수(오른쪽 사진)는 개별 법요집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공인 법요집 이후 개정 거듭
일부 학자·스님 편중 해석 위험
각 파트 사안 제작후 통합 공표 제시

종교에 있어서 의례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불교에 있어서도 이 점은 중요하게 인식돼 그동안 의례를 정비했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글의례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한글통일의례집을 발간한 상태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정토학연구 제21집에서 ‘일요법회 의례 한글화 시론’을 통해 기존 조계종에서 만든 기존 의례집, 특히 한글의례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표준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신 교수는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래, 통일법요집 편찬이 종책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스님용과 신도용 통일법요집이 발간됐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종단이 공인한 최초의 법요집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하지만 이 통일법요집이 만들어진 지 2년 후 2000년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수정작업으로 2002년 수정본이 발간했으며, 다시 2005년 한글통일법요집 천도다비의식집과 2006년 한글통일법요집 상용의식집을 펴냈다”며 “문제는 한글통일법요집을 명시했으면 통일법요집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실상은 짜깁기 식 편집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또 “2008년 다시 ‘한글표준법요집’을 기획했는데 여기에는 표준도, 기준본도 명확하지 않았다. 편찬위원회 구성도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1998년에 비해 떨어지고, 불교의식 한글화와 불교의식 및 음악 두 부문으로 위원을 위촉했는데, 사실상 두 부문을 넘나드는 전문가는 한두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런 상황이 한국불교계에 의해, 훈고, 시문, 역사, 운곡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율하는 대가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 “종단의 법랍이 높고 실력있는 대가를 명실상부하게 모셔야 하는데, 이름만 빌려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작업은 일부 몇 명이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중을 속임은 물론, 불교 수준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표준법요집을 보면 채택한 자구에 대해 각주를 달고 교감하고, 그 이유를 밝히지만 사실 한명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단독 저서로 출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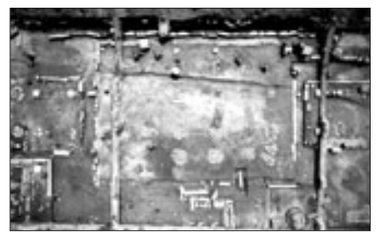
신 교수는 통일법요집의 한글화 과정은 기존 통일법요집을 기반해야 하며, 종령에 의해 종단차원에서 모든 이들의 총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불교는 뿌리가 있는 전통종교이기에 의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결국 예로부터 전해오는 의례를 오늘날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한글화 과정은 먼저 종단에서 공인된 1998년 발간된 통일법요집을 기준으로 삼고, 공신력있는 절차를 통해 종단 법령으로 제정공표해야 혼란이 줄어 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끝으로 “1998년 이후 12년 간 세차례의 시도는 결국 실효성 없는 실험에 불과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기에 포교원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법요집이 나오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여러 의례를 종합적으로 담은 의례집을 만들기 보다는 각 파트별 시안용을 만들어 실험한 후 그 경험으로 종단법령 의례집을 제정 공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경주 남산 창림사지, 금당지와 회랑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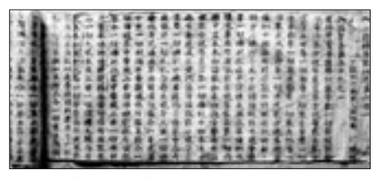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 계림문화재연구원(원장 남시진)은 경주 남산 일원에서 신라 창림사지로 추정되는 금당지와 회랑지, 종각지 등 유구를 확인했다. 신라 창림사지는 상, 중, 하 3권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1차 발굴조사는 중 권역에서 진행됐다.

이 권역에서는 금당지와 회랑지, 쌍귀부의 비각지, 종각지, 축대, 담장 등의 유구들이 세 차례 이상 중복돼 발견됐다. 또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편년되는 연화문 · 보상화문(寶相華文) · 비천문(飛天文) · 귀목문(鬼目文) 와당(瓦當)과 명문기와 등이 출토됐다. 이는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창림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재 지역 문화재로도 대거 지정

인천 흥륜사 법화경 등 3건 ·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인천 흥륜사 법화경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가 지역 문화재로 지정됐다.

인천 흥륜사(주지 법륜)가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권3’, ‘몽상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 ‘대방광불화엄경 주본(周本)’ 등 3점은 7월 22일 인천시문화재로 지정됐다. 을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3’은 1245년 고려 고종 32년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재조 본 고려대장경 판본 전 7권 중 하나다. 불상 복장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전기의 간행본으로 추정된다.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67호인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39년(중종34) 안동 광흥사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이보다 40년 앞선 1497년 8월 판본은 보물 제1737호다.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68호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1은 1244년에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재조본 고려대장경 판본이다. 이외에도 안성 봉덕사 대웅전 목조여래좌상은 7월 28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90호로 지정됐다.

봉덕사 목조여래좌상은 1666년(현종 7년) 수화승 금문과 법림 등이 제작한 불상으로 조성발원문과 묘법연화경과 다라니경 수십점이 복장물로 수습됐다.

노덕현 기자

홍익대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강좌

홍익대 문화예술평생교육원(원장 이한순)은 2014년도 2학기 과목으로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을 개설한다.

강의는 9월 4일부터 홍익대 대학로캠퍼스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주 동안 진행된다. 강사로는 불교미술전문가로 명상을 가르치며 대중과 만나는 심영신 경기도박물관 학예사가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성보와 조형물을 일주문 요사채까지 차례대로 살피고 어떤 이치로 배치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참가 신청은 평생교육원(hica. hongik.ac.kr)으로 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 17집 원고 모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9월 발간 예정인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9집의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마감은 8월 15일까지로 이메일(eastbuddha@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과 투고요령, 논문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easternasia.kr)에서 참조하면 된다. 심사료는 3만원으로 학회지 게재시 연구비로 전임 30만원, 비전임 20만원, 일반논문 전임 10만원, 비전임 5만원이 지급된다.

논문 분량은 학회지 편집기준 25쪽 내외로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051)581-6320

노덕현 기자

“임란 후 불교, 사회 위상 높았다”

고영섭 교수, 한국불교사연구소 세미나에서 주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극복의 주역으로 나선 불교계는 당대 사상사에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했으며, 사회적 위상도 높았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사진〉는 남양주 봉인사와 한국불교연구소가 7월 27일 공동으로 개최한 ‘임란 호란 전후의 사회상과 불교상’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교수에 따르면 불교는 17세기 후반 양란을 거치며 억불숭유 정책에 배척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학자들과의 상호소통으로 주요 사상으로 떠올랐다.

고 교수는 “조선 후기에는 선법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문으로 비석을 건립하고, 행장 기술과 문집 간행이 발달 하는 등 불교계에 변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불교가 구심점을 세우고 대중화를 시도했던 반증”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특히 유학자들과의 교유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고승비문 중 유자들이 쓴 것이 40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고승 비문 건립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국가 영역이었지만 전쟁 후 불교계가 이를 맡으며 활발히 진행된다.

고 교수는 ‘표훈사 백화암 청허당 휴정대사 비문’의 시주자 452명이 모두 유자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고 교수는 “특히 사명대사의 비석 건립에는 유자들이 시주자로 대거 참여했는데 이는 불교가 사회적 위상이 높았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전법학연구〉 제6호 발간

윤리교과서 불교서술 체제 등 논문 10편 수록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최근 〈전법학연구〉 제6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중국불교의 전법론과 전법정신’ 주제 논문 5편과 ‘초중고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체재와 내용’을 다룬 논문 4편,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등 총 10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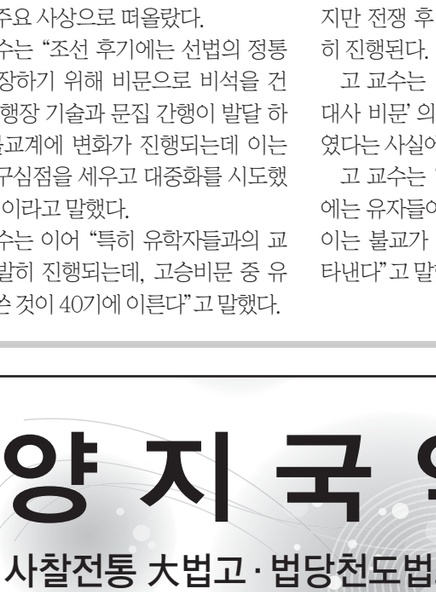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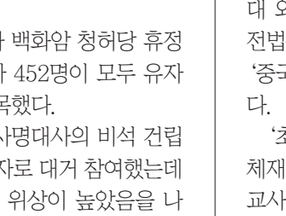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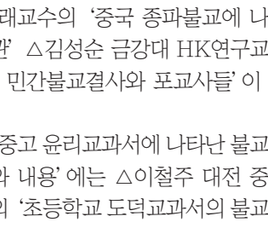
‘중국불교 전법정신과 전법론’ 파트에서는 △최은영 금강대 HK교수(금강대)의 ‘역경과 찬술을 통한 중국불교의 전법’ △석길암 금강대 HK교수의 ‘변문을 통해 본 중국불교의 대중 전법’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의 ‘중국 종파불교에 나타난 전법관’ △김성순 금강대 HK연구교수의 ‘중국 민간불교결사와 포교사들’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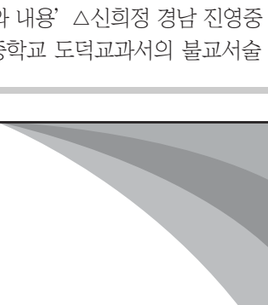
‘초중고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에는 △이철주 대전 중원초교사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신희정 경남 진영중 교사의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이철훈 경기 상현고 교사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윤리교과서 체재에 대한 불교 윤리적 비판과 대안 모색’이 수록됐다.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전법이란 단지 교세를 확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여 중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견탁을 씻어내는 것”이라며 “세상을 맑고 투명하게 바꾸고, 모든 생명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실천이 바로 전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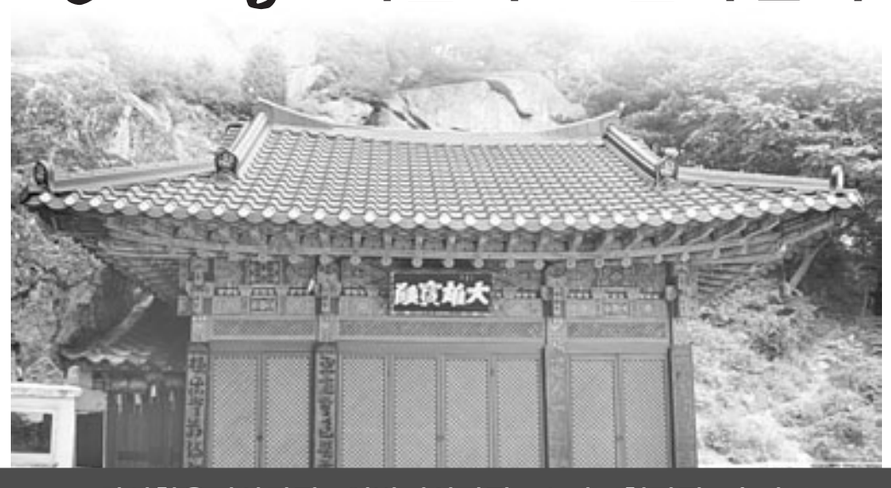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성보 수탈 아픔, 마애불 조성으로 승화

서산 부석사 8월 9일 마애아미타석불입상 점안법회

관음보살상 반환논란 계기로 조성
신도들, 자연석에 불상 모시기로 합의
기능 보유자 김대연 씨가 석조각

서산 부석사에 마애아미타석불입상이 조성됐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8월 9일 오전 10시 부석사 경내에서 '마애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덕숭총림 수덕사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수덕사주지 지운 스님 등 총림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할 예정이다. 부석사가 마애부처님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초 일본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이 논란에 일면서부터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 봉안돼 있다가 왜구들이 약탈해 간 불상으로 대마도 관음사에서 소장돼 있던 것이다. 국내에 들어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부석사는 현재 '불상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과거에 부석사에 불 · 보살상이나 성보들이 많이 모셔져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도록 모실 수 있는 마애부처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석사 측은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반환 문제로 그동안 부석사에 소장됐던 성보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32년까지 부석사에는 불상 4점과, 불화 · 범종 등 성보 10여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분실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석사 신도들은 이에 부석사 인근에 서쪽 방향을 바라보는 자연석 바위에 아미타부처님을 모시자고 의견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았다.

이번에 조성된 마애불입상은 부석사 산신각 아래 우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높이 4.5m, 폭 1.5m 규모다. 석조각은 석공예 문화재기능보유자 김대연 조각가가 맡았다.

서산 부석사는 지난 부처님오신날에 마애불입상을 미리 공개한 이후 지역 불자들의 기도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경 스님은 "마애아미타부처님 조성을 계기로 부석사를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많아지고 지역불교가 활성화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번에 조성된 마애불 입상. 높이 4.5m, 폭 1.5m 규모다.

광주전남불교영산회, 무형무화재 지정



광주지역 영산작법이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용전들노래', '광주영산재'를 무형문화재 제 22호와 23호로 지정고시하고 지난 7월 31일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증서를 전달했다.

'광주영산재'의 보유단체로 선정된 (사)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 소속으로는 범음분야 혜령스님(광주 율곡사 주지), 범패분야 호산스님(곡성 무각사 주지), 월인스님(광주 법륜사 주지)이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통불교연산회 회원스님, 윤장현 광주시장, 송광운 북구청장, 일반신도 등 100여 명 참석했다.

월인 스님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무형문화재로 처음 지정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불교계의 전통의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광주불교계의 큰 기쁨이자 앞으로 계승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인 스님은 "회원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스스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후계자 양성으로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영산작법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많은 콘텐츠가 없다고 하지만 오래된 우리 것이 지정한 문화"라고 말했다.

이번 무형문화재 등재된 광주영산재는 "조선시대 호남지역에서 다양하게 발달했지만 전승의 맥이 거의 단절된 지역의 영산재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습득해 전통적인 특성을 잘 유지한 보전 가치를 인정한다"고 광주광역시는 밝혔다.

광주영산재는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로 사람이 죽은지 49일 되는 날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불교의식이다. 석가모니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장면인 '영산회상'을 상징화해 재현한 전통의식이다.

한편, 광주전통불교영산회는 지난 1992년 창립됐다. 전주영산작법 보존회 일암 스님과 석정 스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아 현재 50여명의 회원스님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 연수교육과 9회에 걸친 시연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불교계, 올해도 세계순례대회 불참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추진되던 세계순례대회에 불교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지역의 신행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불교연합대책위(상임공동대표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택회 익산불교신도회장. 이하 대책위)는 최근 대회 조직위와 전라북도에 세계순례대회 불참을 통보했다.

세계순례대회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등 각 종교성지를 순례하며 종교간의 화합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추진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종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세계순례대회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교계의 불참으로 대회규모도 반쪽 대회로 전락해 그 의미는 이미 퇴색된 상태다.

그동안 불교계는 세계순례대회가 천주교의 성지를 중심으로 이어진 순례길로 구성되어 있고 전주, 김제, 완주, 익산 등 일부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성지의 명칭도 불교는 00사암으로 불리는 방면 유독 천주교 성지만 치명자산 성지, 천호성지로 불리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2013년 불교계의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대회가 강행됐다. 또 전주시의 특정종교 예산지원 정책발표가 겹치며 불교계의 반대 속에 대회가 치러졌다.

대책위는 "상대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성보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 등록

화엄사 성보박물관이 1종(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성보박물관이 전남도청의 실사를 거쳐 지난 7월 22일 제1종(전문) 박물관(전남-제29호, 관장 원묵스님, 학예사 강선정)으로 정식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2012년 공사를 완료 한 뒤, 2013년 한 해 동안 성보문화재 정리와 전시관 점검 등으로 유물보존에 대한 준비를 거쳤다.

이후 2014년 상반기 전시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시설들에 대한 최종점검을 마친 뒤 제1종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하게 되었다.

박물관에는 보물 1040호 화엄석경과 1348호 서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많은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앞으로 사찰 소장 성보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소중한 전통불교문화를 계승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세월호 희생자 천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북영산작법 보존회(회장 법륜, 전주 동고사 주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참사 100일째를 맞는 7월 24일 전주 동고사에서 봉행된 이 날 천도재에는 전북영산작법 보존회 회원 30여명과 전주 운전기사 불자회 등 신행단체 회원들이 동참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총 2시간 30분에 걸쳐 바라춤, 나비춤의 작법과 범패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영산작법 고유의식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생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염원했다.

이날 법회는 또 세월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북도 영산작법 보존회는 현재 33명의 스님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18호 지정돼 불교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주 죽림사 '연꽃들의 향연' 행사



나주 죽림사(주지 법룡)는 7월 27일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들의 향연' 주제로 지역에 나눔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수 정용주의 소리마당과 이문귀, 최영준, 다음(퍼포먼스) 등 노래와 음식, 연꽃 감상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연이 피는 세상'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현중순 시인은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은 나눔을 실천하는 청청한 영초이다. 꽃 · 잎 · 줄기 · 뿌리 · 씨앗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인연의 꽃을 피우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법룡 스님은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에 와 저녁을 먹고 부침개를 같이 만들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매월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죽림사는 향후 정기적 음악회와 문화나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거사품수 수계법회 성료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는 7월 27일 성흥사 원통전에서 거사품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7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거사품수 수계법회에는 김승수 신도회장, 김용화 전 전북도의원 등 21명의 거사들이 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송월 스님은 "오랜 기간 성흥사에서 수행을 해 온 신도들에 대해 수계식을 치르게 됐다"면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안전교육 여름 불교학교

청소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여름 불교학교를 개최했다.

7월 28~30일 열린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40여 명의 청소년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안전교육을 비롯해 부처님 노래 배우기, 만다라 명상체험, 미니 올림픽, 부채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송광사 템플스테이 국장 각정 스님은 "학생들이 사찰에 와서 불교적인 정서와 예절을 통해 바른 습관을 익히고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신행·나눔 통한 청년 불교 중심 40년

창립 40주년 맞은 삼광사 청년회 기념법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 청년회(회장 홍정표)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7월 2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40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삼광사 청년회는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이헌승 신도회장, 정은우 동아대 박물관장, 전 청년회 회장 및 회원 30여명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청년회의 발전과 앞날을 축하했다. 행사는 연혁보고, 40년 발자취 영상 시청, 개회사 및 축사, 발원문 낭독 등을 통해 청년회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나아가 청년회가 부산 청년불교의 중심이 되기를 발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광사 불사 당시 청년회의 원력은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청년회가 40주년의 경사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회원들의 선근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념법회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청년회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닦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춘광 스님은 "앞으로도 더욱더 훌륭한 공덕의 열매를 맺어 향기로운 연꽃을 피우기를 바란다"며 청년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청년회의 신심이 40년이나 이어져 왔다. 덕분에 삼광사가 부산의 불교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청년회장과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청년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무원 스님은 "오늘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맞춰 앞으로 청년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 청년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7월 2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기념법회를 가졌다.

1974년 첫 창립법회 봉행
97년 청년회 산하 봉사단 조직
청년회 출신 '청고회' 발족도

정원성 청년회 교무부장은 발원문에서 "삼광사와 인연 맺은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육바라밀 수행 대자대비행을 펼쳐 봉사, 나눔의 기쁨, 감사의 정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수행문화를 꽃피어 청년회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혜의 광명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내빈의 축사 및 격려사 이후에는 삼광사의 발전에 기여한 청년회 회원 3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삼광사 청년회는 초대회장 김인태 회장을 중심으로 1974년 7월 1일 첫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그 후 청년회는 월 2회씩 정기 법회를 봉행하며 수행에 정진했고 1977년에는 부산지역의 복지관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선행에 뛰어들었다. 또한 1997년 이후에는 청년회 봉사단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이동희 전 청년회 회장(4·8대)은 "순수한 신심으로 한자리에 모여 법회를 가졌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회원들 간 서로 독려해주고 이끌어주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던 중 30여명이 입산하는 등 신심이 꽃 피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30여년 전의 끈끈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며 청년회 법우들 간의 두터운 우정을 자랑했다.

청년회의 이러한 역사와 정신은 최근 발족한 청고회(회장 이동희)로 이어지고 있다. 청고회는 과거 청년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회원 30여명이 모인 신행단체로 지난 6월 삼광사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청고회는 "사회 속에서 신심이 흐릿해지기 전 순수했던 신심을 되찾고 싶었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부처님께 나아가고 사회적으로 회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고회는 청년회 운영 및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봉사 통해 행복한 여름 방학을…

부산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출범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2014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출범식서 자원봉사 선서를 하고 있는 학생들.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2014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출범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7월 28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2014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출범식을 갖고 부산지역 내 학생 총 850여명의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출범식에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갑준 부산광역시 안전행정국장은 "98년부터 시작된 맑고 향기롭게의 나눔·실천의 교육의 장은 여러분을 행복과 사랑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또한 봉사활동 기간 동안 우리는 행복을 위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빈들의 축사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의식을 다짐하는 선서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들은 7월 28일~31일 장애인 종합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 내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한국남부발전 용호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

소외이웃 위한 쌀 라면 지원… 어르신 식사 대접도


한국남부발전이 용호종합사복지관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한국남부발전(주)(대표 이상호)이 용호종합사복지관(관장 이춘성)에 5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7월 28일 김만년 한국남부발전 본부장 및 임직원 30여명은 용호종합복지관을 방문 라면 200박스, 쌀 200포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께 공양도 대접했다.

김만년 본부장은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남구 금융단지로 이전하게 됐다. 따라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이웃이다. 잘부탁드린다. 또한 공기업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남부발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춘성 관장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나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이렇게 선뜻 마음을 내주신 한국남부발전 직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서울에서 부산국제금융센(BIFC)로 이전하게 되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소외된 이웃 돌보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숲속 여름 불교학교서 불교 배웠죠"

은적사, 7월 24일~26일 찬불가 배우기, 참선 등


은적사가 7월 24일~ 26일 숲속여름불교학교 수련회를 열었다.

조계종9교구 말사 대구 은적사(주지 허주)가 7월 24일~ 26일 숲속여름불교학교 수련회를 열었다. 초등부 35명의 수련생들은 주지 허주 스님, 불교학교 교사들과 함께 입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련생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 생활하던 그릇된 버릇을 고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법우들의 공동생활에 적극 따르며 스님의 가르침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발원하는 선서로 수련을 시작했다.

주지 허주 스님은 "부처님 곁에서 수련을 통해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배워 큰 그릇이 되어 가자. 수련생들은 집을 잠시 떠나 가족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숲속여름불교학교는 찬불가 배우기, 참선, 숲길 걷기, 행복캠프, 도전골든벨을 울려라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련 마지막날인 7월 26일에는 은적사 유치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계식도 가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학교 개강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산하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 2014 청소년복지학교를 개강했다.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청소년복지학교는 7월 28일~30일, 8월 4일~6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의 2014 청소년복지학교는 노인 및 장애인 체험활동, 노인인식개선 등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노인체험장비를 활용한 노인체험 활동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김나영 객원기자

"선수행 교육 분야에도 유용해"

동명대 세계선센터 교직원 대상 선수행 연수


동명대 세계선센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선수행 모습

부산교육연수원 지정 연수기관인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가 교원들의 인성·창의교육 신장을 위한 '선 명상과 힐링' 연수를 진행한다.

8월 18일~22일까지 총 5일 동안 특수분야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 명상과 힐링' 연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 수행 관련 인성·창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의 이해와 치료, 108배 수행과 선, 심리학과 선 수행, 명상실습 등 이론과 실습이 적절하게 조화된 이번 연수는 교원들에게 선 수행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심신 및 스트레스 완화에도 기여해 선 명상을 교육분야에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동명대 세계선센터는 지역주민들과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좌선·행선 등 선 수행을 익힐 수 있는 '제2기 선수행학교' 수강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051)629-3582

김나영 객원기자

안동보경사 수련회 '유식 20론' 집중 강좌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 부설 정해학당이 경전 강의 2차 수련회를 8월 16~17일 보경사에서 개최한다.

'유식 20론'을 풀어내는 이번 강의는 오경 스님의 강의를 듣고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집중 강의로 구성되며 〈유식불교, '유식이십론'을 읽다〉(예문서원)를 교재로 한다.

정해학당은 "오경 스님의 철저한 강의 준비를 통해 깨부수기 어려운 잘못된 관념, 아집, 사고의 오류 등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며 사고의 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환시키는 집중강좌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054)842-4080



해돋이 황홀함 머금은 해수관음도량

암자를 찾아서- ④ 여수 향일암


향일암과 멀리 오동도 앞바다가 보인다.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남쪽 나라 전라남도 여수(濾水)는 '물이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항이자 손꼽히는 휴양지로 여수의 바다는 유인도 51개와 무인도 269개 등 총 317개 섬이 연꽃처럼 내려앉아 그야말로 넓은 바다에 꽃이 피어난 듯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 준다. 강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언덕에 붉은 동백꽃이 피어나는 인상적인 오동도를 비롯하여 317개의 연꽃이 그려 놓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검은 모래의 만성리 해수욕장,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왜적을 막아 낸 군사적 요충지로 충무공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있다.

여수에서 돌산방향으로 차로 30여분을 가면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도량이자 해돋이가 황홀한 금오산 향일암(向日庵)을 만날 수 있다.

사찰이 위치한 금오산의 형상은 마치 거북이가 경전(經典)을 등에 지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다고 한다. 절은 이러한 금오산이 바다와 맞닿는 가파른 언덕에 법당을 짓은 아담한 암자이다.

향일암은 '해를 바로본다'고 해서 붙여진 사찰이름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를 머금고 있는 사찰'이라고 한다. 향일암이라는 명칭은 금오산의 기암절벽 사이에 울창한 동백이 남해의 일출과 어우러져 절경을 빚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일암을 오르는 길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여수 돌산갓지를 판매하는 상점이 늘어서 있다. 그 길을 따라 경사로를 오르면 화엄사의 일주문과 함께 긴 계단을 만난다. '유서 깊은 기도처에 갈려면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속설처럼 길게 이어진 돌계단을 10여 분 오르면 금오산 중턱에 자리한 향일암에 도달한다.

절의 왼쪽으로는 왼쪽에는 중생(衆生)이 서원(誓願)에 감응하였다는 감응도, 앞바다에는 부처가 머물렀다는 세존도, 오른쪽에는 아미타불이 화현하였다는 미타도가 있다.

〈여수군지〉와 〈여산지〉에 따르면, 659년(백제 의자왕 19) 원효 대사가 원통암(圓通庵)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고, 950년(고려 광종 9) 윤필(允弼) 거사가 이곳에 수도하면서 원통암을 금오암(金鰲庵)이라 개칭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1713년(숙종 39)에 당시 돌산 주민들이 논과 밭 52두락을 헌납한 지 3년 뒤인


향일암 대웅전 전경. 거북이가 경전을 이고 용궁으로 간 설화가 오롯이 전해진다.

659년 원효대사가 '원통암'으로 창건
2009년 화재 소실 대웅전 최근 복원
매년 연말 일출 기도객으로 불야성

1715년에 인묵대사(仁默大師)가 지금의 자리로 암자를 옮기고 향일암이라고 명명하였다.

근래에 경봉스님이 영구암(靈龜庵)으로 고쳐 현판까지 써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향일암이라는 이름이 워낙 널리 알려져 현재는 향일암을 사용하고 있다. 원효대사가 처음 개창한 원통암은 관음보살의 원통자재(圓通自在)를 일컫는 말로 사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향일암은 관음신앙의 중심처이다.

기도처서 만나는 최고의 일출과 월출

매년 12월 말일이면 향일암은 일출을 보려는 탐방객으로 불야성을 이룬다. 남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로 꼽히는 이곳에는 해마다 '향일암 일출제'가 열린다.

남도의 바다 위로 촛불을 켠 듯 어둠을 밝히는 향일암의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태양의 아름다움은 눈이 시리도록 바다를 바라보게 만든다. 기암절벽을 올라 거침없이 탁 트인 남도의 바다를 눈 아래로 내려다보는 일출은 일상적인 아침과는 다른 하루를 열어준다. 일출제에는 31일 자정을 기해 33회 타종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향일암 일출이 최고라면 월출(月出)은 백미이다. 해가 진 저녁, 청명한 하늘이면 보름이 돼서야 비로소 둥근 달이 뜨는 것을 본다. 일출이다. 일출을 보기 위해 기를 쓰는 사람은 월출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일출이 마음을 들뜨게 한다면 월출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힘이 있다. 이제 월출을 보면서 철야정진기도를 하는 맛에 취해보면 좋을 듯하다.

1개의 대웅전과 2개의 관음전, 그리고 해수관음

향일암은 관세음보살을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교한 곳이라면, 대웅전 좌측위로 30여 미터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관음전이다. 사찰에서는 상관음전이라 칭하는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수도도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곳으로 향일암은 창건설화를 나타내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전각이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중생과 같은 몸으로 나투시어 중생을 구제하신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 중생이라도 그의 이름을 지극정성으로 부르고 의지하면 고난과 불행을 면하고 해탈케 하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보살이다.

향일암 관음전은 남해바다를 앉아서 볼 수 있는 기도처이다. 관음 중에서도 해수관음이라 칭해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전면 2칸에 옆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만든 건물은 소박하면서 조용해 기도하기에는 좋은 장소이다. 관음전에 모신 관음보살은 1991년에 구리로 만들어 조성했고, 관음탱화가 후불탱화로 조성돼있다.

관음전을 나오면 바로 좌측에 해수관세음보살상이 남해바다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

"누구나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뤄준다"는 주지스님의 말처럼 좁은 공간에 늘 기도객과 관람객들이 붐비지만 108염주 한번 돌려볼 시간이 있다면 이곳이 적격이다.


해수관음상과 관음전 전경



원효 스님이 처음 수행한 설화가 전해지는 관음전

대웅전 오른쪽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또 다른 관음전을 만난다. 향일암의 성보(聖寶)는 모두가 관음이다. 계단을 장식한 돌거북도 관음의 화신이고, 대웅전 처마의 용(龍)도 관음에 화신이다. 바다의 특성을 상징하는 용왕이 모셔진 전각에도 관음전을 붙인 것은 전혀 낯설지가 않다. 중생이 원하는 모습이면 어떤 모습으로도 화신하는 관세음보살의 너그러운 품덕분일 것이다. 용왕전이라 불릴 수 있는 이 관음전에는 1900년대 조성된 아미타불상과 신중탱화, 아미타삼존탱화, 독성탱화가 모셔져 있다. 향일암 대웅전은 2009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최근에 복원했다.

원효스님의 가르침 오롯이 전해져

향일암을 지나 위쪽으로 한참을 오르면 경전바위 또는 불경바위를 만난다. 이 경전바위가 생기게 된 것은 옛날 원효대사가 수도를 끝내고 이 향일암을 떠날 때 그 많은 불경책을 가져갈 수 없어 공중에 날려 보낸 것이 멀리가지 못하고 이곳에 경전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이 바위는 한사람이 흔드나 열 사람이 흔드나 똑같이 흔들리는 흔들바위로서 한번 흔들면 한 권의 경전을 읽는 공덕이 있다고 한다.

저작거리에서 민초들의 고통을 함께했던 원효스님의 마음을 보면 스님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효대사가 경전을 던져 버렸어도 그 경전은 돌이 되어 다시 나타났듯이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삶과 실천이 자연과 함께 드러나 있음을 나타내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험난한 산새로 인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광지보다 중생치유 기도처로"

여수 향일암 주지 우석 스님



"관광사찰보다는 관세음보살이 현신하여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 향일암 주지 우석 스님〈사진〉은 향일암이 신도들의 기도도량으로 지속되기를 바랐다. 최근 향일암은 일출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을 한다. 단순히 경치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치관을 쉽게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우석 스님은 "다양한 불교적 행사를 개최하고 일반인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는 사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수 향일암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변관광지

▲흥국사

흥국사는 사적기에 의하면 1195년 보조국사 지눌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이후 원나라 침략 때 모두 불타고 사찰은 폐사가 됐다. 1560년 법수 대사가 학준, 신잠, 수인, 양희, 영두 등과 더불어 흥국사를 재건했다. 이때 법당과 전각을 복원하고 원정과 선방을 건립해 가람을 중건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흥국사에서 의승수군 400명이 조직됐다. 법수대사가 건립한 건물들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에 모두 불타 없어졌다. 계속된 불사에 의해 혹은 예전과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며 혹은 새롭게 조성하기도 해 현재의 흥국사를 이루고 있다.

▲오동도

여수시에 있는 섬으로 멀리서 보면 섬의 모양이 오동잎처럼 보이고, 예전부터 오동나무가 유난히 많아 오동도라 불리게 되었다. 현재는 곳곳에 이 섬의 명물인 동백나무와 조릿대의 종류인 이대를 비롯하여 참식나무 · 후박나무 · 팽나무 · 쥐똥나무 등 193종의 희귀 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자생하는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데 그 때문에 '동백섬' 또는 '바다의 꽃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섬의 위치는 여수역에서는 1.2㎞, 여수공항에서는 19.7㎞ 지점에 있다. 면적은 면적 0.12㎢, 해안선길이 14㎞이다.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탑의 진화
⑯ 중국의 불탑(3)–전탑

전탑, 석재보다 가볍고 다양한 조각 가능

지난 호에는 나무를 주요 재료로 조성한 누각식 형태의 목조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벽돌을 주요 재료로 하는 전탑(塼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벽돌은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인공건축 자재로 약 8,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6,000년 전부터 메스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기 시작하여, 바빌론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부터 고대의 벽돌제조기술이 서쪽으로는 이집트 · 지중해,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생산되어 묘를 만들거나 성을 축조할 때 사용되었으나, 불교가 전래되면서 탑을 조성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불탑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양식은 전탑 양식이다. 그 이유는 벽돌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벽돌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석재와 비슷하고 무게가 돌보다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양식을 표현할 수 있고, 조각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명나라 이후에는 벽돌 제작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전탑이 크게 유행하여, 목탑과 석탑을 거의 조성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전탑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외형상 목조건물을 모방하여 두공, 대들보, 기둥, 서까래 등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벽돌 구조 건축의 예술적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초기 목탑의 외형적 모방에 그치는 한계를 담고 있다. 더구나 전탑의 취약점은 벽돌 사이에 잡초를 비롯하여 수목에 이르기 까지 각종의 식물이 자랄 수 있어 뿌리나 줄기로 인해 탑이 쉽게 붕괴되기도 한다. 또 인위적으로 쉽게 벽돌을 빼내갈 수 있어 폐불의 시대에는 전탑이 붕괴의 수난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탑 조성에 사용 된 벽돌의 제작 방법은 보다 나은 내구성을 위하여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 당대(唐代)에는 황토 진흙을 사용했고, 송대(宋代)에는 황토진흙에 벼의 왕겨를 섞어서 내구성을 강화 시켰으며, 명대(明代)이후에는 석회를 사용하여 안정성이 크게 발전하여 고층으로 불탑을 조성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누각식 전탑으로 유명한 것은 서안의 자은사 대안탑<사진1>을 들 수 있다. 수나라 대흥성에 있던 무루사(無漏寺)의 옛 땅에 648년(정관 22년) 황태자 이치가 돌아가신 어머니 문덕황후를 위해 건립한 것이 대자은사이다. 대자은사의 규모는 대단하여 전각이 모두 1,897칸이었으며, 상주하여 수행하는 스님만 300명이 넘게 살았던 큰 절이었다.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삼장법사 현장스님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자은사의 상좌로 있으면서, 번경원에서 불전의 한역 사업에 종사했다. 자은사에서 현장스님의 불경 번역은 658년(현경 3년)까지 11년에 걸쳐 40 여부의 경전이 한역되었으며, 652년 대안탑이 조성되었다. 대안탑은 현장스님이 인도 · 서역으로부터 지참한 불상이나 경전을 봉안하기 위한 탑이었다. 당(唐)나라 때 혜립(慧立)과 언종(彦悰)이 688년 4월에 저술한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 대안탑 조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사진1>



전탑은 벽돌을 주재료로 한 탑이다. 벽돌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석재와 비슷하면서 무게가 돌보다 가벼워 다양한 양식을 표현하고 조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남아있다. 누각식 전탑 양식으로 유명한 서안의 자은사 대안탑.

영휘 3년(652) 3월에 삼장법사 현장스님은 대자은사 정문 남쪽에 돌로 만든 석탑을 조성하여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경전과 불상을 봉안할 계획을 세웠다. 현장스님은 세상이 워낙 무상한 것이므로 경전이 산실(散失)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탑을 선택하였다. 석탑의 폭과 높이는 30장(丈)으로 하여 대국(大國)의 숭엄한 기틀을 나타내고 불심을 고취시키고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적을 모방하여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런 석탑 조성의 계획을 세웠지만, 황실에서는 칙사 이의부(李義府)를 시켜 석탑은 공력(功力)이 크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벽돌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어 스님도 이에 동의하여 전탑으로 조성 되었다. 탑의 기단은 4면으로 각각 140척인데, 인도의 양식을 모방하여 중국의 옛날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탑은 5층으로 되었고, 상륜(相輪)과 노반(露槃)이 있으며 총 높이는 180척이나 되었다. 층마다 그 속에 사리를 안치했는데, 어떤 것은 1천, 2천 개씩이나 들어가 무려 1만여 립(粒)이나 되었다. 상층에는 돌로 감실(龕室)을 만들었다. 탑의 남면에 두 개의 비석이 있는데, 각각 태종(太宗)과 고종(高宗)의 '삼장성교서기(三藏聖敎序記)'가 새겨져 있다. 이 글은 저수량(?遂良)이 쓴 것이다. 처음 탑을 완성하던 날에 삼장법사 현장스님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서원을 기술하였다. 간략하게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복이 박하게[薄祐]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을 뻔했는데, 그나마 작은 선업[微善]에 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말법(末法)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귀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경사스럽게도 어려서 출가하여 직접 신령한 부처님의 모습[靈相]을 보았고, 어려서부터 법을 사모하여 남기신 가르침[遺茎]을 들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생령(生靈)이 박운(薄運)하면 함께 의지할 하늘을 잃을 것이기에 오직 삼장(三藏)의 범본(梵本)이 갑자기 모두 사라져 버릴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이성(二聖)의 천문(天文)이 텅 비어 버리고 기록했던 것들이 다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 탑을 정중하게 높이 세워서 범본을 안치하기로 하고 또 풍비(豊碑)를 세워서 이 서기(序記)를 새깁니다. 바라옵건대 영겁동안 우뚝 솟아 천분 부처님[千佛]께서 함께 보셔서 이 성스러운 발자취[聖跡]를 빛나게 하시어, 해와 달과 더불어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삼장법사는 직접 삼태기를 지고 벽돌을 운반하였다. 이렇게 2년이 걸려 완성되었다.

〈대정신수대장경 50권 260쪽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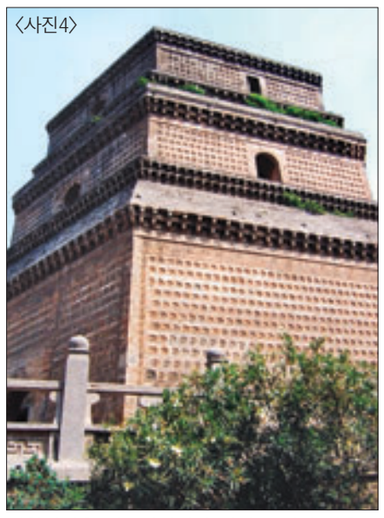
이처럼 현장스님의 발원에 의해 조성된 당시의 명칭은 경탑(經塔)이었다. 그러나 '대안탑' 이라는 명칭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에는 이와 관련된 설화가 소개되어있다. 육식을 허용하였던 인도의 한 가난한 절에서 밥을 짓는 한 스님이 주지스님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만 짓고 있는데, 때마침 한 무리의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데 신기하게도 기러기 한 마리가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에 놀란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주지 스님은 "이것은 기러기가 아니라 보살이 희생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일로 절의 모든 스님들이 감동을 받아 다시는 육식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희생한 기러기를 위하여 5층탑을 조성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중국에 전해져 '큰기러기탑' 즉 대안탑(大雁塔)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대안탑은 현장 스님의 원력과 당 고종의 보시로 경전을 봉안하기 위하여 인도의 불탑형식을 모방하여 벽돌로 조성되었으나, 외벽에 잡초가 자라서 얼마 가지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측천무후는 장안(長安 701~704) 연간에 같은 자리에 4각7층의 누각식 전탑을 조성하였다. 이후 766년에 다시 10층으로 중수하였는데 전란으로 상층부분이 무너져 7층만 남았는데 명대(明代)에 탑신의 외벽에 벽돌을 다시 덧대어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다. 현재 높이는 64.1m 이고 기단부 한 변의 길이는 25m에 달한다. 각 층마다 4개의 아치형 출입문이 있으며, 내부에는 원형으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이 대안탑은 1719년에 처음으로 매년 1mm 이상 서북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이 발견되어 현재는 약 105cm 기울어져 원인과 대책이 모색 중에 있다.

<사진2>



예술성이 돋보이는 경림사탑

<사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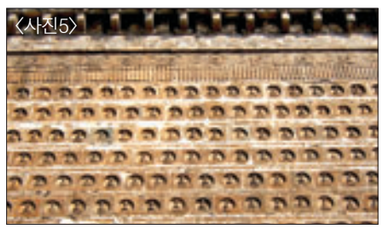
천청사탑은 개봉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사진3>



경림사탑은 벽돌만을 사용했음에도 외형이 나무를 조각한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정교하다.

<사진5>



천청사탑 외벽에는 벽돌마다 불상을 조각했다.

현존 중국불탑 중 전탑 가장 많아
명나라 이후 목 · 석탑 거의 없어
벽돌 사이 식물 서식 단점
황토진흙→황토왕겨→석회 진화

자은사 대안탑 대표 누각식 전탑
경림사탑 목탑 이상 화려 정교해

천청사탑, 개봉지역 현존 最古
1천여개 벽돌 일일이 불상 조각

또 다른 누각식 전탑으로 예술성이 뛰어난 것은 중국 8대 고찰 중 하나였던 경림사(慶林寺)터에 있는 경림사탑<사진2>을 들 수 있다. 하북성 형수시 고성현에 있는 8각 7층탑으로 높이가 35m에 달한다. 이 탑은 약 800년 전인 북송(北宋) 초기에 조성된 전탑으로 순수 벽돌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의 구조가 마치 나무를 조각한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정교하다.<사진3> 이 불탑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초층 탑신 일부가 흙에 파묻혀 있었으나 2011년 대대적인 보수를 하여 입구를 봉쇄하게 되었다. 그러나 2층 이상의 탑신은 온전하여 2중 구조의 처마와 두공 및 각 층의 탑신, 사방 벽면에는 아치형 불감이, 다른 사면에는 벽돌로 창문과 다양한 문양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탑상부에는 동으로 제작된 보병(寶甁)식 탑찰이 있으며, 내부는 계단이 있어서 탑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구조이다.

하남성 개봉시 천청사(天淸寺) 경내에 있는 천청사탑<사진4>은 6각형 누각식 전탑으로 인근 거주민들의 성씨가 대부분 번씨(繁氏)이며, 번대(繁台)라고 부르는 높은 언덕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번탑(繁塔)이라고도 부른다. 이 천청사탑은 북송(北宋) 974년에 세워졌으며 개봉에 현존하는 건축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원래는 6각9층탑으로 높이가 80m에 달하였다. 그러나 명(明)나라 태조 주원장의 아들이며, 뒤에 영락황제가 된 주체(朱 ᶚ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는 이 탑을 보고 탑의 기운을 누르고자 3층 이상을 파괴하는 폐탑의 과오를 저질렀다. 현재는 높이 약 32m로 3층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1층은 남쪽에 한 개의 출입문이 있지만 2층은 6면에 각 하나씩 모두 6개의 출입문이 있고 또다시 3층에는 하나의 출입문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불탑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벽돌에 새겨진 불상조각이다. 탑신 외벽과 내부에 약 1,000여개의 벽돌을 이용하여 각 벽돌마다 불상이 새겨진 것이다.<사진5> 그렇기 때문에 이 불탑을 천불지탑(千佛之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불상들은 모두 108 종류의 다양한 도상으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송대의 뛰어난 예술성과 신앙심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서안의 흥교사탑, 항주의 육화탑, 천태산의 국청사 수탑, 안경의 진풍탑, 상해의 흥성교사탑, 은천의 승천사탑 등등이 누각식 전탑으로 유명하다.



글 · 우인보
〈동국대부속여고 교학실장〉

지장보살님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 현신하신다!!

'영산불교 현지사 대구분원'은 지장보살님의 주처(住處)로서 영험한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가피로 딸아이가 취직을 하다

2012년 음력 12월 1일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에 입재한 후 지금까지 계속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지장보살님 가피를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은 제 딸입니다. 제 딸은 2013년 5월에 국민보험공단에 입사할려고 시험을 보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지자 낙심을 하고 다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공무원시험에서도 낙방의 쓴 맛을 또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장보살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딸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년 그대로 국민보험공단에 원서를 내고 필기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고 이제 면접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기대를 안했고, 제가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보험공단에 원서 내는 것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면접을 보고 드디어 합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던 합격이 이번에는 너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기 직전에 딸이 꿈을 꾸었답니다. 길을 가는데 하늘에 큰 화분이 매달려 있고 그 화분에서 네 잎 클로버를 두 개 따는 꿈이었는데, 지장보살님께서 주신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딸은 연수를 끝마치고 자기에게 딱 맞는 직장이라고 매우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도 불자로서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 대구시 서구 평리로 54길 이상혜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품씩 나누어 읽는다)
츰부다라니를 7회 정도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미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654-5557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이비 · 외도 · 사마외도의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 · 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 · 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화엄의 꽃 절집 천정

〈3〉 달마산 미황사 대웅보전

만다라적 천불 벽화… 중중무진의 불국토





▲향우측 대량에 베푼 천불부처. 연보라빛과 옥빛의 색상이 다정다감하다.



◀빗반자로 구현한 궁륭형 천정과 천불도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문양을 재배열한 사진. 첫 행의 학에 입힌 금니기술은 연금술을 연상하고, 둘째 행에 나오는 연꽃문양의 변화는 '개(開)→시(示)→오(悟)→입(入)'의 일승법의 원리를 보여준다. 셋째 행은 천정의 중앙칸에 장엄된 범자문양 30칸 중 부분이다.

천불출현지지의 정토

'달마산 미황사 사적비명'(1692년)에 미황사 창건설화가 전해진다. 사적비에 따르면 우전국(인도)에서 바다를 통해 해남 땅끝에 닿은 배 한 척이 여러 경전과 함께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40성중, 53선지식, 16나한 등의 탱화를 싣고 와서 법등을 전하니, 그곳이 달마산 미황사다. 그 때가 신라 경덕왕 8년, 서기 749년인데, 전법의 반야용선이 닿은 날에 달마산 사자봉 정상엔 일만의 부처님이 나투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미황사 가람은 부처와 뭇 나한성중, 선지식께서 내영하신 청정가람이며, 반야용선이 닿은 정토이고, 일만의 부처께서 출현하시는 불국토이자 '천불출현지지(千佛出現之地)'인 셈이다.

미황사 가람의 중심엔 대웅보전이 있다. 대웅보전은 정유재란 이듬해인 1598년에 중건되고, 다시 1754년에 중수된 목조건축이다. 건축과 장엄에 250여년의 내력이 담겨있다. 대웅보전의 외부장엄이 빛과 비바람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무소유의 경지라면, 내부장엄은 색채와 문양, 천불벽화의 만다라다. 어둠은 빛을 품어 자신의 내부에 깃든 무명(無明)을 밝히고, 빛은 채도를 비워 내부로 침잠하는 사찰건축의 윤리적 덕목이 읽혀진다.

빗반자 가설한 천정구조 시선 끌어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 건물이다. 기둥의 평방 위에 4출목의 포작을 올려 공간의 깊이를 확장한 후, 그 포작 위에 약 60cm 정도 높이의 흙벽과 판벽을 되올리고는 우물천정을 경영했다. 천정은 다시 높이를 확장하기 위해 사방 벽에서 비스듬히 반자를 밀어올려 빗반자를 가설하고, 빗반자 위 중앙 칸의 천정에 바닥과 평행인 평면반자를 올려 천정구조를 마감했다. 그런 까닭에 내부공간은 중앙 상부 칸으로 점점 좁아지고 깊어지는 궁륭형 천정을 연상시킨다. 대웅보전 내부로 들어서면 저절로 시선이 중앙칸 상부공간으로 향하는 것은 그러한 천정구조 때문이다.

게다가 천정에는 다양한 문양과 다채로운 빛이 베풀어져 있어 천정공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연방 매료된다. 삼존불을 배관하고 고개들어 천정을 둘러보면 그때서야 왜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에 건축공학적, 예술적 역량을 쏟아부었는지 그 이유를 금세 알 수 있다. 천불출현지지 희유의 천불벽화가 구현되어 있는 까닭이다.

천불도 벽화는 국내 유일무이한 미증유

중국 돈황의 천불동 벽화가 따로 없고, 인도 아잔타석굴 천불벽화가 따로 없다. 경주 남산의 불국토가,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이, 구례 화엄사 구층암의 천불상이 미황사 대웅보전에 벽화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웅전 안에 조성된 천불벽화이니 중중무진의 불국토를 경영한 셈이다. 이것은 한국불교미술에서 천불도 벽화로 현존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미증유의 사례다. 인근의 강진 백련사 대웅전에 그와 같은 조형이 개략화 되어 조영되어 있을 뿐이다.



달마산 미황사 대웅보전 전경.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문양은 수리적 작도만큼 엄격한 좌우대칭의 구도를 갖추고 있다. 중앙칸에 부처님과 범자문이 있다. 문양을 베푼 우물반자의 총 칸수는 177칸이다. 네 모서리에 5×3칸씩, 어칸 빗반자에 9×3칸, 양측면 빗반자에 3×6칸씩, 중앙 평반자에 금니로 베푼 범자문 6×5칸, 그 양측면의 백학, 모란문양 2×6칸씩 해서 총 177칸이다. 내부장엄의 색조는 수묵담채처럼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움이 넘친다. 천정하부 공포가구가 담록색이라면, 천정면은 연지와 노랑 금빛이 주류를 이룬다. 연한 녹청과 자주빛이 보색의 효과를 이끈다.

엄격한 좌우대칭 구도와 프랙탈 기하학

시문된 문양은 총 일곱 가지 모티브를 갖고 있다. 연꽃, 모란, 학, 범자에서 모티브를 취하고 있다. 하나 하나의 문양 모티브들은 프랙탈 기하학처럼 반복해서 표현된다. 반복을 통해서 문양은 확장되고 심화되어 조형언어로서 고유한 뜻과 상징체계를 창조한다. 그 때의 연꽃은 늪에서 길러 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신심에서 길러 올린 처염상정의 불보살이다.

그런데 네 모서리마다 5×3칸씩 조영(造營)한 연꽃문양은 다섯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경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찬찬히 살펴보면 고구려 벽화고분 강서대묘 널방벽화 중에 연꽃에서 보주가 화생하는 연속장면이 연상된다. 연꽃의 모티브에서 신령한 기운이

중앙 점점 좁아지는 궁륭형 천정

시문된 문양 7가지 모티브 갖춰

도상은 자기복제 및 순환과정 암시

범자와 학, 꽃씨방 등 세 곳 금니 입혀

새싹처럼 뻗쳐나와서→ 보주, 잎이 나오고→중도의 연화좌가 생기고→절대경지인 텅 빈 공(空)으로 순환하는 구조다. 자기유사성을 가진 프랙탈 도형의 자기복제 및 순환과정을 보여주는 놀라운 도상이다.

개(開)→시(示)→오(悟)→입(入)의 일승법

이것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어떤 인연으로 세간에 출현하시는가에 대해 설하신 〈법화경〉의 제2 방편품을 떠올리게 한다. 석가모니께서는 오직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세간에 나투셨는데, 그 이유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열고(開), 보여주고(示), 깨닫게 하여(悟), 중생이 무량삼매에 들어가기(入) 위함이시다. 순환하는 연꽃문양 도상은 바로 그 '개(開)→시(示)→오(悟)→입(入)'의 근기에 따른 일승법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미술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양가치를 지닌다 할 것인데, 미술사에 문외한인 한 개인의 오버이거나 넋두리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웅보전 천정법계의 소실점은 닫집이 있는 중앙칸에 위치한다. 중앙칸의 문양은 비구상적인 산스크리트어 범자다. 여섯자 오행의 범자 만다라다. 범자는 卍자처럼 그 자체가 문자이면서 조형적 상징을 지닌다. 경험세계인 색계너머의 절대적 진리, 여래를 상징한다. 30칸에 시문된 범자는 몇 겹의 원 속에 있는데, 원의 테두리는 붉은색과 초록색이 농담으로 풀어져 있다. 그것은 무명을 밝히는 빛, 곧 불변의 진리가 파동형식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금니의 빛은 무명, 곧 내 안의 무지와 미혹함을 밝히는 빛이다.

연금술 구사하듯 화학적 치밀함 입힌 금니

금니의 금빛은 고려불화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수승한 외경에 입혀져 거룩한 신성을 부여하는 색채의 힘을 갖고 있다. 금니가 지닌 종교적 색채의 힘이다.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장엄에는 세 곳에 금니를 입혔다. 범자와 학, 그리고 관념화 된 꽃의 씨방 부분이다. 금니의 금빛은 〈관무량수경〉에서 비유해서 설하듯 '잠무강의 황금'으로도 견줄 수 없는 부처님의 광명이다. 곧 금니의 범자와 학과 꽃의 씨방은 불성이자 부처다. 특히 학에 입힌 금니채색은 단언하건대 금니를 입힌 벽화중 이 나라에서 최고의 예술적 품격을 지닌 것이라 자평한다. 금니 색채조영에 마치 연금술을 구사하듯 화학적 치밀함을 입히고 우아함마저 갖춘 까닭이다.

미황사 대웅보전에는 연기설화에서 전하는, 곧 달마산 사자봉에 나투신 일만 부처님을 대웅전에 증명이라도 하듯 희유의 천불벽화를 베풀어 '대웅전 속의 천불전'을 경영하고 있다.

부처님은 시방삼세에 시공을 초월하여 항하사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이 존재하신다. 그런데 〈현겁경〉 경전에 의하면 현겁의 시기에는 천 분의 부처께서 출현하신다. 고창 선운사 천불탱이나, 해남 대흥사 천불전, 김천 직지사 천불전 등은 그의 방편설로 경영한 탱화이자 불전일 터이다. 미황사는 반야용선의 배가 닿은 천불 인연의 땅이다.

행과 열 정형속에 구현한 만다라

천불 부처님은 대웅보전 대들보와 사방 공포 위 벽면 곳곳에 모셨다. 천불의 도상은 일반적으로 행(行)과 열(列)의 정형 속에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경향이 있다. 대량생산과 자기유사성이 반복되는 일정한 모듈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른 조형미술은 집단이 주는 거대한 공명의 파급력을 갖춘다. 만다라적 불국토가 현현하는 것이다.

공포 위 벽면의 부처님들은 구름 형상의 신령한 기운 속에 입상으로 나투시는데 반해, 대량 위의 부처께선 하얀 대연화좌에 저마다의 수인을 자내증으로 보이시며 결가부좌를 트시거나, 합장한 모습에 입상으로 나투신다. 부처님의 법의에 베푼 색조는 파스텔톤으로 더없이 부드러우며 상냥하다. 옥빛과 연한 보랏빛이 보색의 대비를 이루는 까닭에 천불벽화는 선연하고 맑다. 그 투명하고 청정한 색조로 인해 미황사 천불벽화는 우리로 하여금 미증유의 소중함을 각성시킨다. 배열과 군집의 밀도에서 밀고 당기고, 결집시키고 풀어낸 방식이 마치 학년별, 반별, 모둠별 기록으로 남은 졸업사진첩을 보는듯 하다.

불현전의 친근한 부처님 상호

벽화의 군집들은 조선민화의 병풍첩처럼 유기적이면서 독립적이다. 벽화 칸칸이 혼자로도 되고, 전체로도 예술작품이 된다. 그 예술성에 희소성, 역사성을 두루 갖춰고 있으니 나라의 보물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천불 부처님의 표정들은 만면에 푸근함이 흘러 참으로 인자하신,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상호이시다. 고향 고샅에서 한번쯤은 뵌 듯한 향안이다. 중생이 부처임을 깨치는 '관상(觀想)' 수행의 근기에 안성맞춤이다. 눈 앞에 나투신 불현전의 친근한 상호를 보고 내 안의 부처를 관(觀)하게 되는 것이다.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내려올 때 보는 법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쇠소의 혓바닥이 설법을 하네

중생불 ③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 이만큼 됐으니 이젠 솔직한 말로 누리의 진리를 아는 거 아니라요? 누리의 진리 어찌 알았나. 그거 절대성이라 말이여. 절대성자리 아무 모습도 없더란 말이여. 냄새도 없더라. 그렇구나. 꼭 허공 한가지더라 말이여. 여기서 공기에서 비료가 나오고 태평양 바다에서, 여기 영도 앞바다에서 파도를 생기듯이 옳지 여기서 상대성 나투었구나. 상대성은 변하는 도리로구나. 절대성은 변치 않는 도리로구나. 생사 이것도 상대성이다. 선악도 상대성. 정도니 사도니 상대성. 성인이니 범부니 상대성. 부처니 중생이니 상대성이거든. 전부 절대성자리 의젓하게 있으면서 상대성놀이를 하기 때문에 말이지 아이고 나는 중생이로구나… 하지만 인제는 여러분들이 알았단 말이지. 알았으면은 요 말 그대로 받아들여. 또 받아들여서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여. 해보는데 과학적으로 해보시란 말이여. 좋다 말이지. 견문각지 동원시켜도 좋아. 공부하는데 견문각지는 크게 금물인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견문각지 동원해서 딱 하게 맞으면 이렇구나 하고 자신 딱 가져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말이죠 이 자신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말이지 누리의 진리 알지 안 했어요? 누리의 진리 알았다면은 부모미생전의 면목,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 소식 알지 않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도 절대성, 지금도 절대성, 나중에 흙구덩이나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후에도 절대성자리 그대로 뚜렷하게 있단 말이죠. 이걸 알아버리면은 그것이 그만 견성이지 뭣이에요? 견성하기 쉬워요. 옳은 스승 만나면 견성하기 쉬워요. 그러나 옳은 스승을 못 만나면 천 년 했봤자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딴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나올 택이 있나요? 상대성 속에서 구해져야지? 상대성 속에서는 억년 해도 공부가 안 돼. 우리는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이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상대성 속에서만… 어떻게 그거 알 거냐 말이여.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거든. 여러분들은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이 소식을 알았다 말이죠. 그 소식 알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말이죠. 간추려서 요새 신식말로 하면 그 바로 절대성이더란 말이여. 이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거 알면 그 이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려 하느냐 말이여. 그 이상 더 알려 하면 절대성자리에 한 점 구정물을 퍼붓는 거나 한 가지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일 첫째 견성부터 해 놓으면 망념도 없어지고 진경이니 뭣이니 전부 우리가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더라도 전부 공성이란 걸 알게 되요.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이라든지 이전 선사들의 말을 거꾸로 확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었다 해봤든 부처님의 뜻을 조금도 어긴 것이 없어. 그말이 그말이고 그말이 그말이지 어긴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하니 이 장에서 벌써 온갖 법이 벌어져. 굉장한 법이 벌어져.

어허 이러한 조화가 없었던들 불보살

> **견성 해놓으면 망념 없어지고**
> **전부 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
> **쇠소의 혓바닥 법신에**
> **들어 앉아 설법**
>
> **진리 내 몸 안에 있음을 알면**
> **부처님의 은혜 갚는 길 나온다**

님네는 어디에다 발을 붙이시지? 히힛! 머리없는 쇠소의 혓바닥이 설법을 하네.

소는 머리가 있지 안 해요? 머리가 없는데 쇠로 만든 소의 혓바닥이 설법을 한다 말이야. 도대체 이거 비과학적인 말이라. 그러나 이것이 몸뚱이, 가죽주머니에 들어앉으면 비과학적인 말인데, 법신에 들어앉으면 왜 이것이 어찌 비과학적인 말이냐 말이죠. 아래저녁에 돌장승도 뛴다 이런 말 했잖아요? 돌장승도 뛴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러하니 자 머리없는 쇠소는 뭣이요? 머리없는 쇠소의 혓바닥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깜빡 잊어버렸어. 그런데 왜 쇠소냐 말이야. 이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했느냐 한 번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질긴 쇠라. 요렇게 한 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면 아하 쇠소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아닌가?

옳지 머리가 없는 쇠소라고 하니까 옳지 이거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해주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좋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를 캐내어서 답을 내한테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돼. 또 그러고 물론 이걸 내가 쓴 거지만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거요? 만약 내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말은 금강경 강송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이거 설명 못 합니다.

그러하니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색신인 여러분에 들어앉지 않고 허공인 여러분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은 이 답이 곧 풀려 버려. 아 그렇구나. 쇠소보다도 더한 그렇구나. 또 소는 어떻게… 소의 성품은 어떻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또 이거 하나 첨가해도 좋아요. 안다면 망심이고 모른다면은 무기고 이러하니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하면 무엇이지? 망심 아니에요? 나는 다 알았다 말이에요. 망심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몰라 하면 돌멩이나 흙덩이나 한 가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당장 어떤 것은 안 온다 할지라도 이 금강경을 들어나가면 아하 머리 없는 쇠소, 그거 서푼어치도 안 되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솔직한 말로 이전 어른들의 화두니 무엇이니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화두죠? 물론 내가 만든 화두라고 이래 하고 있지만 말이죠. 알고 보면 서푼어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무엇을 뜻하느냐. 진리가 한 자 밖에 있지 않아. 한 자 안에 있지 진리가. 다시 말하자면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자라는 것도 말마디를 빌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그 때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여기서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방편설법으로서 약 오십 년 동안 하셨는데 전부 방편설법이시거든요. 이거 방편이 아니면 설법이 안 돼. 왜 그러느냐. 이 당처가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딱 정해진 법이 있으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하면 그대로 돼. 아니거든. 그것이 아니거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믿음은 일체 모든 행동의 바탕

⑩-3보개회향

믿음은 이렇듯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신은 모든 부처가 돌아가는 바며 일체의 모든 행동이 비롯하는 바탕이라고 하여 신은 근본이라고 일컫는다. 이 믿음, 신심(信心)을 설명할진대 대략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근본을 믿는 일인데, 근본은 진리이며, 이 신근본(信根本)이란 진리를 사랑하고 이에 귀의하여 늘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과, 이것이 모든 부처의 돌아갈 바이며 갖가지 행동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믿는다.

둘째는 부처를 믿는다. 부처를 믿으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 우리가 왜 부처를 믿느냐 하면 그는 선근(善根)을 일으키는 원 토대며 또 일체의 모든 지(智)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진리를 믿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모두 옳다고 하는데서 그 중에도 특히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행위이다.

셋째는 법(法)을 즉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앞의 것은 불보(佛寶)이고, 이 법보(法寶)를 믿으면 큰 이익이 있으며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수행하여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승(僧)을 믿으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신승능정수행(信僧能正修行)이다. 승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믿음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 신심(信心), 보시로서 들어가는 문이다. 누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의 사정을 이해하여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그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베풀어 준다. 기쁜 마음으로 간탐없이 보시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액난을 당하여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난처한 지경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시다. 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몸소 실천하는 행동으로써 큰 힘을 주되 조금도 겁을 내거나 아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게 진리와 지식, 또는 좋은 말씀을 들려 달라고 할 때 자신이 아는 대로 일러 주는 것이며 그것도 방편(方便)을 써서 순서를 따라 정도에 맞추어 알아듣도록 간곡히 말해 주어야 한다. 보시(布施)는 흔히 우리가 시쳇말로 자선사업(慈善事業)이라고 일컫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위선(僞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일이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베푼데 대하여서는 미련스런 애착은 아예 갖지 말고 상대방이 아마 고마워하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계문(戒門), 계로서 들어가는 문이다. 이른바 죽이지 말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음란치 않고, 양설(兩舌)을 하거나 거짓말 않고, 악구와 망령된 소리 하지 않고 비단결처럼 발라 맞추거나 하지 말고, 탐(貪)과 치(癡)를 멀리 하고, 남을 기만하거나 첨곡하거나 성을 내거나 삿되거나, 삿된 견해를 가지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출가(出家)한 사람은 번뇌를 끊어버려야 하며 멀리 시문(市門)의 시끄러운 데서 떠나, 항상 정적(靜寂)한 곳에서 스스로의 수행을 한다. 자

> **근본 · 부처 · 법 · 승**
> **네가지 믿는 신심은**
> **보시로 들어가는 문**
>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 **베풀고 난 후에는**
> **미련 없이 애착 버려야 한다**

기 자신의 몸가짐을 늘 이렇게 가다듬어 늘 공부하는 이로써 족한 것을 알아야 한다. 항상 마음에서 공포를 몰아내고 참괴(慚愧)를 가져, 회개하며 그러므로서 여래(如來)에 가까운 덕행(德行)을 늘 본뜨고 여래가 마련하신 모든 제도를 잘 지켜 이에 대해서는 자기기만(自己欺瞞)을 경계하고 또 중생으로 하여금 망령된 허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한다.

셋째는 인문(忍門). 참는 길. 문은 길. 참는 길이란 어떤 것일까? 모든 것을 우리는 참아내야 한다.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이래 가지고는 남에게 떳떳이 무슨 할 말이 있을 턱이 없다. 좀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자고 싶은 것도 덜 자서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남을 위해 자기는 입지 말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어 이리 저리 허둥대는 그런 것도 안 해야 되고, 이렇듯 우리는 참아 나가는 것인데 이는 오로지 부처님께 봉공하는 뜻으로 참는 것이지, 아끼고, 참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내가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데다 목표를 둔다는 일은 삼가야 되는 것이다.

넷째에는 진문(進門)이다. 정진하고 나아가는 문이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하는 데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고, 성스러운 뜻이 있어야 하고, 비겁한 생각을 떠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과 몸에 큰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지만 만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우리가 애써 정진하고 얼마간 비축을 해 놓으면 우선 경제적으로 별 궁색이 없는데 만일 비축하는 그런 정진성이 없으면 단박에 물질로 크게 궁핍해질 것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공덕을 닦고, 자신의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익이 되고 동시에 남을 이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크게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저 고해(苦海)로부터 건져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모자라는 점이 있다. 물질적으로 정진을 게을리 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정신적으로 학문 같은 것을 부실히 하여 정진이 모자란다면 낙후되어서 늘 남의 뒷 꽁무니만 따라다니게 되다. 이러다간 한번 남을 가르쳐 보진 못하고 늘 상 배우다가 볼 일 다 본다. 그러므로 진문(進門)을 깊이 헤아리고, 이 문을 늘 두드려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나아가 지도할 수 이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를 이겨 나갈 수 있다. 장애의 극복, 이것이야말로 육시(六時)의 행원(行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경(禮敬)하고, 성심으로 참회(懺悔)하소, 근청(近請), 수순(隨順)하고, 회향(廻向)해야 된다. 그리하여 모든 장애(障碍)를 물리쳐 자꾸만 선근(善根)이 증장되어 나간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교육원
학 인 모 집



◈ 염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종보유자 동현스님!
◈ 사모곡,회심곡,백발가,참회곡,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교육대상 : 비구, 비구니스님, 또는 사찰에 항시 상주하시는 스님이 계시지 않아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겠습니다.
◈ 초 급 반 : 교육과정 –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초급(일반)수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초급(속성)수업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초급일반 : 10개월 / 초급속성 : 5개월
◈ 중 급 반 : 교육과정 – 시련.대령관욕, 시왕불공, 시식편, 봉송편, 상가염불 불상점안, 전점안, 안택고사, 방생편
중급(일반)수업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중급(속성)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중급일반 : 15개월 중급속성 : 10개월
◈ 작법 (3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오공양작법)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 팩스 053)851-2666 / H·P 010-2547-4200
원장 동현 합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8〉

제대로 깨닫고자 한다면…



경봉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만약 일생(一生)의 일(깨닫는 일)을 원만, 구족하게 하고자 한다면, 옛 조사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방편적인 어구(語句)로써 스승과 벗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조국사께서는 일생토록 〈육조단경(六祖壇經)〉으로 스승을 삼고, 〈대혜서장〉으로 벗을 삼았습니다.

조사의 언구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책은 대혜선사의 〈서장(書狀)〉과 보조국사의 〈절요(節要)〉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입니다. 이 어록들은 모두 다 활구법문이니,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고 수시로 점검해서 자기에게 돌리면 일생의 일은 거의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나 또한 여기서 힘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서장〉과 〈간화결의론〉과 〈절요〉의 끝 부분을 의지하여 활구(活句)를 참구 거각(擧覺)하는 것이 매우 좋고 매우 좋습니다. 나의 이 말이 비록 번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 역시 일찍이 헤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수행자, 납자)의 심정을 잘 아는 것이니, 부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시적인 깨달음에 만족하여 깨달음 뒤에 더 닦음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영가(永嘉)스님이 말한 "모두 공(空)이라고 여기면서 인과(因果)를 무시하고 어지러이 방탕한 행동을 한 결과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니, 절대로 식견이 얕은 자들이 잘못 알고서 떠드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편견에 사로잡혀서 인과와 죄복(罪福)을 무시하는 짓을 배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일 활구(活句)를 깨닫지 못하고 다만 문자(文字)만 본다면 그 또한 의리(義理)에 걸려서 도무지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증상만인(增上慢人)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간절히 모름지기 뜻을 두소서.

무진(戊辰, 1928)년 3월 7일

이 편지는 1928년 3월 7일, 경봉스님에게 답한 편지이다.

내용은 만약 일생사(一生事, 깨닫는 일)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대혜선사의 〈서장(書狀)〉과 보조국사의 〈절요(節要)〉와 〈간화결의론〉이 활구법문이므로, 수시로 이 3-4가지의 어록을 참고한다면 일생의 일, 즉 깨달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암선사 자신도 이 어록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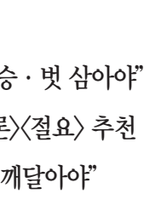
그러나 조심할 것은 만약 일시적인 깨달음에 만족한 나머지 오후(悟後)의 수행(修行) 즉 깨달은 뒤에 보임을 하지 않고, 또 모두 다 공(空)한 것이라고 하면서 인과를 무시하고 방탕하게 행동한다면 깨달은 것도 허위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체개공이요, 죄의 본성이 공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여색(女色) 등 막행막식을 하고 음주식육을 한다면 재앙을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재앙을 초래

"조사들의 활구 스승 · 벗 삼아야"
〈서장〉〈간화결의론〉〈절요〉 추천
"문자 보다 '활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수행자로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뜻이다. 즉 공(空)에 빠져서 파계를 일삼는 등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불제자가 아니다.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라고 했는데, 주색을 일삼는다면 그는 '마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도 모르고 공에 빠져서 주색잡기 등으로 불법(佛法)을 망친 선승이 한 둘이 아니다.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또 활구를 참구하지 않고 문자(文字)만 본다면 의리(義理, 알음알이)에 걸려서 도무지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며,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증상만인(增上慢人, 아만. 즉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므로 간절히 모름지기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어려운 이주민 齒痛(치통) 치료하며 세상의 벽 허물고 하나 되죠"

화계사 무료치과 진료 '다인치과 봉사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 화계사 무료치과진료소에 다인치과(대표원장 양현봉) 직원들로 구성된 10여명의 봉사자들이 도착한다. 이들은 토요일 병원 근무를 마치자마자 매주 어김없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일주일의 마지막 출근인 토요일 저녁, 휴식을 취하고 싶을 법도 한데 봉사자들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서 환자들을 맞는다. 무료치과진료소를 찾는 이주민 환자는 매주 15명 내외. 다인치과 봉사회는 치과 진료가 절실한 이주민들에게 지난 5년간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보시행의 발원… 무료진료소를 열다

2010년 6월 12일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화계사 구 백상원 건물 1층에 문을 연 무료치과진료소는 다인치과 양현봉 대표원장(51)이 보시행을 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불법 만나 회향의 중요성을 깨달은 양 원장의 의지가 오늘의 무료치과진료소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불교 교리에 대해 공부하고 난 뒤부터 불자로서 회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저희 병원이 지점을 새롭게 내면서 외형적으로는 병원이 커지는데 지역 활동이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동안 지역 어린이 도서관 사업, 북한 어린이 의약품 등을 지원 해왔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됐죠.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화계사가 국제포교로 유명하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곳을 찾았어요. 당시 주지스님이셨던 수경 스님께서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이렇게 무료치과를 열게 되었습니다."

화계사와 주식회사 신흥, 그리고 다인치과가 함께 시설 투자에 들어갔고 2010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무료치과진료가 시작되었다. 양현봉 대표원장은 매주 진료를 오고, 50여 명의 직원들은 순번을 정해 이곳을 찾는다고. 양 원장은 오고 싶은 날도 오기 싫은 날도 두루두루 그 마음 잘 살피며 오다보니 5년이 지났다고 말한다.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매주 이곳에 오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오기 싫었던 날도 있었죠.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깊이 생각도 해보았는

양현봉 대표원장 발원으로
2010년 무료진료소 개원
매주 토요일 이주민 15명씩
보철 · 틀니 등 치과 치료 봉사

"오직 모를 뿐 수행하라"는
숭산 스님 가르침 새기며
형식적 봉사 경계하고
세상에 잘 쓰이는 일 고민

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기꺼이 오고 싶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았죠. 다만 일주일에 한번씩 이곳에 오는 걸 원칙으로 삼으니 그 원칙만 지키면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이제는 좋고 싫은 마음을 떠나 토요일 오후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향하게 돼요. 어쩌다 개인적인 일로 제가 빠지고 직원들만 오게 될 때에는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니 이제는 무료진료는 제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된 셈이죠."

직원들 역시 양 원장과 함께 무료진료에서 보람을 찾는다고. 2011년부터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사 김흥식(38)씨는 좋은 취지로 하는 봉사인 만큼 뿌듯함을 느낀다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치료해준다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피곤한 날도 있지만 여기서 진료를 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 오게 되죠. 물론 장비의 제약 등으로 치료의 한계가 있어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 되어 조금 더 다양한 진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계사 무료진료소는 미용을 위한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가 절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가 없거나 빠진 이들을 위한 보철 치료가 주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욕심을 부리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환자들은 설득을 시켜 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양 원장은 전한다.

"처음에는 간단한 치료가 목적이었는데 진료를 하면서 이가 없는 이주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관련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지금은 보철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철 같은 경우는 최소한 3~4회 정도를 방문해야 치료가 완료되니 대부분의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니 저희들도 진료를 한 주도 거를 수가 없어요. 명절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 진료소는 매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진료소 문을 연지 5년이 지나다보니 이런 저런 사연도 많다. "몇 번의 치료를 마치고 보철만 하면 되는 단계에서 환자가 중병이 걸려 진료소를 찾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환자는 이틀 후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보철이 안 맞아 난감했던 일도 있었죠. 결국 다시 보철을 제작해 소포로 부쳤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불교 안에서 세상을 만나다

양 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인 회향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다인치과 봉사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화계사 무료치과진료소에서 5년째 무료 치과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다인치과 직원들의 무료 진료 모습.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염불처럼 강한 해탈(三界超脫)문이 없고 선정같이 빠른 증득(開悟成就)문이 없다.

염불은 정토왕생에 제일 확실한 방편이다.
닦는 이마다 하나같이 죽음도 능히 정복할 만큼 편안히 미소 지으며 정토왕생을 쉽게 성취한다.
선정은 심통(큰 깨달음)을 얻는 제일 똑똑한 수행법이고 닦으면 번뇌가 싱거울 만큼 전심(全心)이 성취되는 부사의(不思議)한 큰 도력을 얻는다.

염불을 정진하고 누가 극락왕생을 못하며 선정이 숙달되고 누가 개오(開悟)를 못 이루는가?
염불에 득력하면 생사를 가지고 놀고 선정에 득력하면 마음을 가지고 논다. — 본문 중에서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염불수행을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

불교를 만나면서부터다. "공부를 더해보고 싶은 마음에 2005년도에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시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했는데, 사고의 한계성을 느꼈죠.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교를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화스님 책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토회를 알게 되었고 예술의 전당의 전시회를 들렀다가 근처에 있는 정토법당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 길로 불교대학과 경전반을 다니며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죠."

당시, 양 원장은 정토회 산하 국제구호단체인 JTS의 거리모금 캠페인에 매달 참여했다. 제 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JTS의 거리모금은 봉사자들이 모금함 박스를 직접 들고 거리로 나와 굶주리고 병들고,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모금을 통해 그들에게도 보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낯선 행인들에게 모금을 청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오로지 굶주리는 아이들의 현실을 알려야 하지만 막상 거리로 나가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 모금을 외면하는 이들을 보면 분별심이 나고, 다른 도반들의 모금함이 가득 차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모금통이 비어 있을 때에는 조바심도 난다. 또 모금함에 돈을 넣을 거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다가가는 자신을 관찰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인사동에서 거리모금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장소만 정해서 그 앞에서만 모금을 했어요. 행인들을 쫓아다니며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쑥스럽게만 느껴져서 한 자리만 고수했죠. 하지만 2년 정도 꾸준히 거리모금을 하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 앞으로 나설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는 모금을 안 해 줄 것 같은 분들도 찾아다니며 모금을 권장할 정도로 배짱이 생겼죠.(웃음)"

현대화된 탁발이라 표현하는 거리모금을 통해 일상의 자유를 찾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거리 모금을 상기하면서 다시 힘을 찾는다는 양 원장. 그에게 거리모금은 일종의 수행이었고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찾는 매개체가 되었다. "거리모금을 하며 인간에 대한 벽이 깨졌어요. 세상에 좀 더 크게 회향할 수 있는 방법이 거리모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도반들과 함께 희망세상 만들기 서명운동과 최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도 했어요. 이제는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돼요."

양 원장은 정토회 경전반 졸업 후, 경전반 진행을 2년 정도 도맡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재가자들의 봉사로 진행되는 정토회 경전반은 영상, 회원관리, 법회 진행 등을 회원들이 업무를 분장해 운영한다. 진행을 맡았던 양 원장은 기꺼이 사회를 맡는 모험도 감행했다고.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병원에서 회식을 해도 직원들 앞에서 인사말하는 것조차 사양할 정도로 남 앞에서 말하는 걸 꺼려요. 그런데 경전반 진행을 2년 정도 하니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회식자리에서도 기꺼이 인사말을 할 정도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회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양 원장은 꾸준한 봉사와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을 얻었고 이는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표원장의 이런 마인드 덕분에 다인치과 직원들도 어느새 이웃과 나누는 일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의사 정성민 씨(32)는 올해 초부터 다인치과 근무를 시작해,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봉사를 해오고 있다.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올해 초부터 다인치과에 근무하게 되면서 무료진료를 시작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너무 기뻐요. 이제는 이곳에 와야 비로소 한 주가 마무리 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되는 한 꾸준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다인치과 양현봉 대표원장은 불교를 만난 뒤 회향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료치과진료를 결심했다. 그는 화계사 무료치과진료소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찾아와 치료받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년째 봉사를 해오고 있는 김유미 씨(24)는 봉사하는 시간 동안 편안함을 느낀다고. "이곳에 오면 왠지 제 마음이 편해요. 똑같은 일이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에요. 처음에는 이주민들이 낯설었는데 계속 대하다보니 이제 그들의 말을 따라 할 정도로 친숙해졌죠. 주말에 이곳에 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도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접수를 담당하는 서민희 씨(29)는 다인치과 무료진료소 시작부터 지금까지 5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곳에 왔는데 참여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세 달에 한번 꼴로 이곳을 찾고 있어요. 몽골에서 오신 바트보양 스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인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어느새 직원들은 봉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주 절을 찾다보니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는 계기가 된다고 양 원장은 말한다. "교회를 다니는 한 직원은 불교가 사이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화계사에 자주 오면서 불교도 자신의 종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또 불교 서적을 보면서 완전히 사고의 틀이 바뀐 직원도 있어요. 스님들을 통해 알게 된 불교서적에 감동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직원들과 같이 봉사하다보니 무료진료소는 소통의 장이 되었고 직원들도 불교를 편하고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이 또한 봉사로 얻은 또다른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인치과 봉사회에는 또다른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무료진료소를 찾는 대부분이 몽골 이주민이기에 환자의 폭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양 원장은 강조한다. "지금은 바트보양 스님이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몽골 환자가 다수에요. 저희 무료진료소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스리랑카 분들도 종종 오시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자들의 국적이 한정돼 있죠. 앞으로 저희 무료진료소가 더 많이 알려져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잘 써주기를 바라며 봉사 자체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돌아본다는 양 원장. 매주 화계사에 들릴 때마다 숭산 스님의 부도탑을 먼저 찾는다는 그는 '오직 모를 뿐 수행하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망상과 그림자에 쫓기지 않고 '오직 여기'에 깨어 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다인치과 봉사회는 오늘도 재능 기부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향 많이 피우면 안되나요?

저 이제부터 "딩티응앗!" 아니에요. "임지영"으로 불러주세요.

27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웃으면서 법회에 참석하자마자 요청을 한다. 자국 출신의 이름을 한국 국적 취득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개명이란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 이름을 두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리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취한 행동이었다.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갑작스런 이혼이나 기타 사유로 엄마 나라로 출국한 뒤 아직도 되돌아오지 못한 7세 이하의 한국 아이들이 1,000여명이 넘는 통계자료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무국적 상태로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그림 · 박구원

우리나라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출생한 아이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병원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각종 안정망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조금은 슬픈 현실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엄마의 이름을 두고도 놀림을 당하는 사례도 관심가져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 중동지역에 노동 인력으로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들였다. 광부, 간호사, 건설현장, 청소일, 세탁소, 공장 등에서 열심히 일해 어렵게 일가(一家)를 일으켜 세웠다. 그 분은 그곳에서 터를 잡고 2세 3세가 현지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자수성가형 교민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값진 노동이 미국과 독일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곳에서 힘든 일을 떠받쳐 주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다.

얼마 전 스리랑카 스님과 함께 찾아간 노동현장은 매우 부적합한 환경이었다. 청결하지 않은 컨테이너 안에 5~6명이 머물고 식사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 대충 끼니를 떼운다. 심지어 속이 쓰리다며 가끔식 기숙사에서 저녁도 못 먹고 자리에 눕고, 두통이 심하다거나 금기야 피가 섞인 소변을 누는 노동자도 생겼다. 폐비닐을 녹여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만드는 곳이었지만 방독용 마스크와 장갑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이 보호 장비없이 뿌연 연기 속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오른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현장에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말로만 듣던 3D업종 일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다행히 스리랑카 스님이 매월 노동자 법회를 개설하고, 상담을 하고 피부과에 데려가는 노력 속에 노동 환경도 개선되는 기회가 되었다. 임지영씨 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이주여성들의 노력이 대견하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 출신 불자들이 모여서 매월 1회씩 법회를 보기로 하였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립고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해주고 싶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향을 3개씩 혹은 한꺼번에 많이 피우기 때문에 법당 안에 들어서면 목이 탁해지는 기침을 매번 겪어야 한다. 그만큼 소원이 간절한 까닭인지라 탓할 일은 아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겐 부처님 도량은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이들이나 다문화 2세 자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양육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오는 2036년에는 한국에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2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됐다. 한국의 노령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다문화 자녀의 출가를 기대해 본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英 브릭스톤 흑인사회에 '불심' 고조

〈The Voice〉 "흑인 개종 사례 늘고 있어"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흑인 불자들은 주중 프로그램 외에도 자발적으로 주말 워크숍을 진행, 신심을 다지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명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자료사진)

영국 런던의 브릭스톤(Brixton) 지역에서 흑인 불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The Voice〉 지는 "흑인 밀집 지역인 브릭스톤에서 흑인들의 개종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련 변화의 중심에는 흑인 불자들의 신행처인 '브릭스톤 불교센터(Brixton Buddhist Center)'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브릭스톤 흑인 사회의 주류 종교는 기독교였다. 그런데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흑인 대상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소개되면서, 흑인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브릭스톤의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이 인종 · 문화 ·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한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마크 케니(Mark Carney) 법사는 "브릭스톤에는 백인 외에도 다양한 유색인종이 밀집해 있으며, 각 인종 간의 생활 격차가 크다"며 "이중에서 가장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The Voice〉 지에 따르면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흑인들은 일상적인 문제부터 신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하면서 자긍심을 키우고, 나아가 브릭스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고민하는 한편 바자회나 문화 공연 등을 공동 기획 · 진행하며, 지역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브릭스톤 불교센터 리더십 프로그램'
흑인 사회 변화의 플랫폼 제공
소통 화해하며…사회적 공헌에 관심

"브릭스톤 사회에서 인종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색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한 안수 제인(Anshu Jain · 48) 씨는 "리더십 과정을 밟으며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보다 많은 흑인들이 브릭스톤 불교센터에 동참하길 희망하며 거리 포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의 인과법칙을 알게 되면서 주변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헤른 브링(Helen Bring · 36) 씨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다"고 말했다.

"난독증을 앓으며 소외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는 니콜라스 딘(Nicholas Dinn · 18) 군은 "불교센터에서 친구를 사귀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며 "특히 찬불가를 합창하며 난독증 증세를 완화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학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he Voice〉 지는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리더십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흑인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는 한편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종교적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점이 프로그램의 성공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따라서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리서십 프로그램은 흑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종교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데 단초가 되고 있다"고 〈The Voice〉 지는 덧붙였다.

"리서십 프로그램에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을 일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마크 케니 법사는 "이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흑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굴레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흑인의 불교 입문은 비단 영국 브릭스톤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The Voice〉 지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가나, 브라질, 트리니다드, 바베이도스와 등지에서도 브릭스톤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티나 터너, 허비 행콕, 맥시 재즈 등과 같이 세계적인 흑인 스타들이 불교에 개종하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 티베트인 거주지서 3살 된 '환생고승' 즉위식





2009년 입적한 제3대 페놀 린포체(왼쪽)와 환생했다는 제4대 페놀 린포체(오른쪽)

환생을 믿는 중국 티베트인 거주지역에 3살 된 '환생 고승'이 거대 종파의 종정에 취임했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중국 티베트족 집단 거주지역인 쓰촨성 간쯔 티베트족 자치주 바이위현에 있는 바이위 사원은 유례없는 인파로 붐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2009년 78세를 일기로 입적한 제3대 페놀 린포체(티베트 불교에서 전생에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후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 사람)가 환생했다는 3살짜리 양시의 제4대 페놀 린포체의 종정 즉위식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의 신도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바이위 사원은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의 하나인 링마파의 본사이며, 이 종파는 인도, 네팔, 대만,홍콩,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 지에 분원을 두고 있다.

인도에서 입적 당시 고향에서 환생하겠다는 페놀 린포체의 유언을 신봉한 신자들은 작년 티베트 산난 지구 자차현에서 '환생' 한 두살짜리 페놀 린포체를 찾았다.

하지만, 링마파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설법을 했다는 초전 법륜일인 티베트력으로 6월 4일 즉위식을 거행했다.

사찰 측은 신도들의 축하 행렬이 이어지자 해외에서 온 지도자급 귀빈만을 즉위식에 참가시키고 절 밖에 대형 TV 스크린을 설치해 즉위식 장면을 생중계했다.

제4대 페놀 린포체는 7월 28일 티베트 전통 복장을 한 100여 명의 기마병의 호위 아래 수 백대의 오토바이와 승용차들이 뒤따르는 가운에 바이위사에 도착했다.

페놀 린포체의 즉위식에 이어 사원 안팎에선 각종 축하 행사가 벌어졌으나 중국 당국은 제지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당국은 또 즉위식을 전후해 이례적으로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위챗)'에 대한 단속을 완화해 즉위식에 대해 신도들의 댓글과 사진이 넘쳐났다.

중국 당국은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1990년 기알첸 노르부(24)를 티베트 불교의 2인자인 11대 판첸 라마에 내세우고 2010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판첸 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달라이 라마에 이은 서열 두 번째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바나 불교사원 '유령 축제'

조지아 주에서 처음 선보일 베트남 불교명절

미국 조지아 주에서 베트남 불교의 축제 중에 하나인 유령 축제(Vu lan, 이하 '부란')가 처음 열린다고 〈WJCJ News〉 지가 7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 주의 베트남 불교계 사바나(Savannah) 사원에서 오는 8월 10일 열리는 부란은 매년 음력 7월 보름에 열리는 불교축제로 '죽은 영혼들이 집을 찾는 날'이다.

사바나 사원의 통 랍(Tong lab) 스님은 "부란 때면 사원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마련한다"고 설명한 뒤, "미국에서 처음 준비하는 이번 부란 행사에는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도 함께 진행해, 조지아 주의 베트남 공통체의 결속력을 더욱 다져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바나 불교사원의 재가불자들이 조지아 주에서 처음 선보일 부란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현대적 디자인의 간편한 불단 어때요?"

일본 건축회사, 불단 개발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간편한 불단이 개발돼 화제다.

일본의 건축회사인 '토라푸 아키텍츠(Torafu Architects)'는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개인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불단을 개발했다.

불단은 위패, 제기, 다기, 옥수기, 꽃병, 향로, 촛대, 징 등 7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집안의 가구배치를 바꾸듯 쉽게 불단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높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층층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 불단은 두나무와 너도밤나무 원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기존 불단과 달리 다소 불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일본 건축회사가 개발한 불단

이나은 기자

사사키 스님 입적…세수 107세

미국에 선불교 처음 알려…LA 선불교 기반 다져

미국에 선불교를 처음 알렸던 조슈 사사키(Joshu Sasaki) 스님이 지난 7월 27일 세수 107세로 입적했다고 〈Los Angeles Times〉 지가 보도했다.

1962년 도미, Mount Baldy Zen Center를 창립한 뒤 50여 년 동안 LA 지역에서 선불교의 가르침을 전해 왔던 죠슈 사사키 스님은 LA 시더스 시나이(Cedars-Sinai) 병원에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종욱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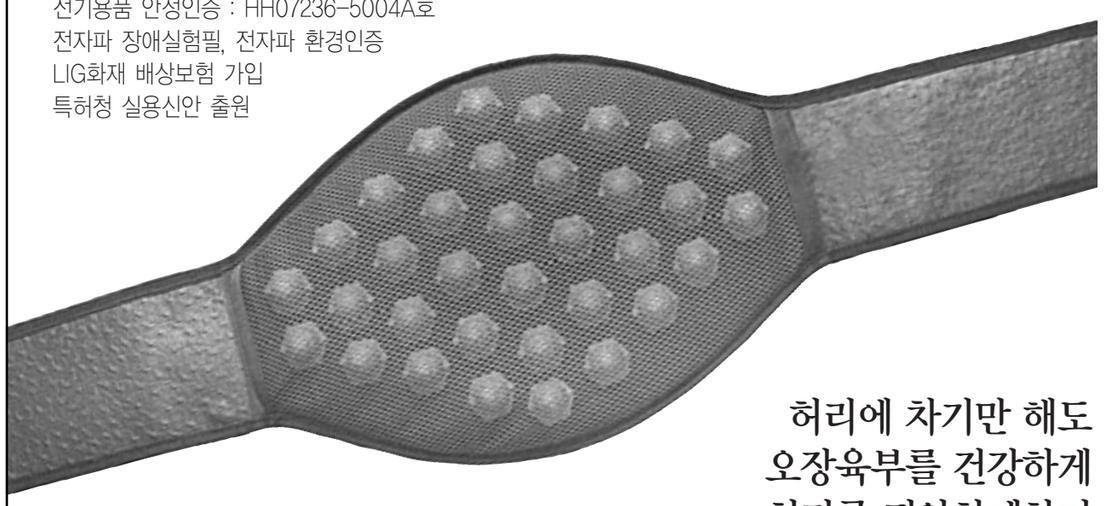
조슈 사사키(Joshu Sasaki) 스님의 생전 모습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社)世界佛教法王廳

제 6회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및 대종사 품수 수여식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추대 1080인 위원회)

일시 : 불기2558(2014)년 **7**월 **29**일 오후 **3**시 / **장소 :** 하림각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사)세계불교법왕청(대승정 목탁)은 29일 평창동 하림각 연회장에서 '제 6회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및 대종사 법계 품수 수여식' 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승정 목탁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등 법왕청 소속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진성스님의 집전과 한상권(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혜정스님의 경과보고와 대승정 목탁스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과 법계품수 마정수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세계불교법왕청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중앙정부 각료 구성을 완료하고 11월 태국을 시작으로 법왕청 세부 구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승정 목탁스님 인사말

세계불교를 하나로 묶는 세계불교법왕청에 대한 크나큰 원력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군가 언제라도 이루어 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교황청도 500여년전 7분의 신부가 시작해서 현재의 거대 교황청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쉬지않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꾸준한 동참을 보여주신 여러 큰스님들이 계시기에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3년전부터 준비해 온 세계불교법왕청은 오늘을 기점으로 중앙정부 각료를 구성하고 태국을 시작으로 각국 법왕청을 구성하여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역사적인 세계불교법왕청을 완성할 것입니다.

대덕 큰스님들.. 부디 각자의 명예를 내려 놓으시고 세계불교의 큰 씨앗을 심는 대업에 큰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승정 혜은 목탁 스님 약력

· 現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이사장
· 現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장. 미얀마 관광청장
· 現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 現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現 법무부 교정위원 35년(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 종교성장관 표창, 이외 80여회 수상)
대한불교조계종 3회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 2007년 3월 미얀마 대통령이 주관하는 미얀마 국제승려 최고품수 수여식에서 '마하 사다 함마 조디카 다자' 작위 수여
– 2014년 3월 미얀마 대통령이 주관하는 미얀마 국제승려 최고품수 수여식에서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작위 수여
: 최고의 작위로 전 세계적으로 극히 없으며 한국승려로는 최초 수여.
: 미얀마 연방정부로부터 공로 메달 및 미얀마 불교수호협회로부터 공로메달 수여.

■법계품수 및 마정수기 봉행

· **전계대화상 :** 대승정 목탁,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 **삼 사 :** 불원. 혜승. 혜선
· **증명법사 :** 혜월. 대붕. 법상. 성각. 법장. 도암. 진성. 대풍. 해월

■경과

· 1994년 외교법인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설립
· 1996년 종교법인 국제지도자협회 설립. 미얀마문화원 설립
· 2011년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창종
· 2013년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 2013년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국 대사들과 미얀마종교성 부장관, 국회정각회 정갑윤회장 등 각계각층 종교지도자들을 모시고 세계불교법왕청 추대위원회 선포



대승정 목탁스님의 인사말씀



품계수여 및 마정수기



법왕특보 혜정스님의 임명장 수여


법왕특보 지암스님 임명장 수여


내각총리 법민스님 마정수기


세계불교법왕청 소속 200여 사부대중 동참





(사)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구성

• **세계불교법왕**
• **세계불교승왕**
•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승왕 및 종정으로 구성된 장로위원**

• **추대위원장 :** 대승정 혜은 목탁 108 원로 및 고승단
• **추대부위원장 :** 불원
• **법왕특보 :** 지암. 향운. 성각. 구달. 혜월. 청광. 지우. 대경. 혜정. 성범. 해월. 현덕.

• **사서실장 :** 대연 **의전실장 :** 도암 **경호실장 :** 진성
• **비구니 자문단 :** 법성. 보성. 송운. 보경. 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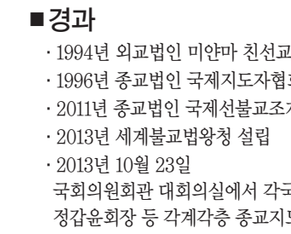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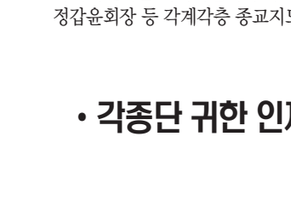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협의회 :** 총재 향운. 회장 법상. 수석부회장 대붕
• **대한불교종정협의회108종단종정 :** 총재 혜월. 회장 혜선. 수석부회장 박혜정
• **대한불교고승단 :** 총재 성각. 수석부회장 고산
• **세계불교원로단 :** 총재 지암. 회장 정오. 수석부회장 송몽

• **내각총리 :** 법민
• **부총리 & 예경의전원장 :** 혜승
• **조직관리부 :** 대붕

외무 : 도명. **법무 :** 대풍. **내무 :** 법장. **행정 :** 고산. **재무 :** 현담.
문화 : 법상. **포교 :** 청운. **사회 :** 혜선. **산업 :** 정오.
행정집행 : 도언. **문화사업 :** 송현.
과학 : 돈조. **관광 :** 도안. **보건복지 :** 심오. **홍보 :** 혜일. **환경 :** 법천.
과학연국원장 : 송몽. **무임소 :** 혜관.
사업제2국 : 법현. 120명의 각 나라 특명전권대사
불교전국기능인협의회 : 대목장 이종설
부산지역 포교사단 : 사무총장 대각 이광수

(사) 세계불교법왕청 사무소 02)733-5665

• 각종단 귀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각기 각 요직에 발탁합니다. • 각종단 지도자들의 입단을 환영합니다. • 부끄러움을 알고 가슴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스님 환영합니다.
• 권모술수와 분당과, 거짓 술수로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도취되어 진실이 없고 의혹이 많으며 머리로만 사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27일. 10월25일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9월 5일. 9월 18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10월 21일. 11월 25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9월 3일. 10월 11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9월 10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5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10월 15일. 10월 27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8대 성지/아그라 11일 11월 25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문화 단신

진주박물관 '고성전' … 진관사 태극기 전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 흔적 보여줘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진화수)은 8월 31일까지 2014년도 지역특별전 '고성'을 개최한다. 지질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남 고성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진관사 태극기가 전시돼 눈길을 끈다.

진주박물관은 "개항 이후 고성도 다른 지역처럼 급격한 행정 개편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다.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각 분야에 뛰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는 백초월 스님, 김열규, 추송웅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나라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백초월스님 활동을 말해주는 '진관사 태극기'

한편, 고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이 전시는 동의동유적 출토 '새무늬 청동기'를 비롯하여 1,700여 점의 각종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055)740-0664 정혜숙 기자

동국대, 2014 썸머 뮤직플레이 캠프

30일부터 4박 5일간… 김형석, 박칼린 공동 진행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 썸머 뮤직플레이 캠프를 트라이볼, K-NOTE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는 7월 30일~8월 3일 4박 5일간 동국대(서울)와 트라이볼(인천)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불리는 김형석과 박칼린이 강의를 맡았다. 실용음악과 뮤지컬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실용음악 캠프(보컬 · 작곡)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형석을 필두로 작곡가 돈스파이크, 가수 김조한, 재즈피아니스트 정원영, 기타리스트 한상원, 가수 신연아(빅마마), 작곡가 이현승, 재즈아티스트 대니정 등이 참여했으며, 뮤지컬 캠프는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됐다.


뮤직플레이 캠프 합창 연습 장면

박칼린은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션과 아티스트들과의 수업을 통해 뮤지션이 되고 싶은 학생들의 꿈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취지를 전했다.

2014 썸머 뮤직플레이 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1:1 레슨, 레크리에이션, 앙상블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재능을 독려하고 이끌어냈다.

정혜숙 기자

탑골미술관 '이상(理想)한 실험실' 개최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8월 10일~14일 5일간 '이상(理想)한 실험실'을 개최한다.

헌 옷을 재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이상한 실험실'은 예술과 복지의 융합,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지향한다. 탑골미술관은 "헌 옷으로 골판지 시계, 스탠드 액자, 디퓨져병 등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을 디자인하고 미적 감각을 가미해 변모시키는 작업이다. 우리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비록 삶은 가난했으나 손끝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지혜와 솜씨를 가지셨다. 그 때의 추억이 예술로 승화되는 과정"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마음의 눈으로 빚어낸 구도의 노래

첫앨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발매한 명상음악가 홍관수 씨

시각장애인으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가수 홍관수(42) 씨가 1집 앨범을 발표했다. 인연의 소리, 님 찾아, 나의 길 등 총 8곡의 음악이 실린 이번 음반은 그가 지난 7년간 작곡하고 공연해왔던 곡들을 모은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시력을 잃고 10년간 절에서 살며 사미계를 받았을 만큼 불교 속에서 자랐기에 그의 노래에는 불교적 색채가 진하게 담겨 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아무도 갈 수 없어/ 나만이 가야할 길 나만의 길/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 따라 가고/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할 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나의 길…'

'나의 길'은 불법에서 말하는 스스로가 '주인공'임을 노래한다. "4년전 제주대에서 상담심리학 석사 논문으로 음악명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성지원이 되는 자료를 보려면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했어요. 남들보다 논문이 늦어지니 불안하고 초조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받는 불이익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답답했어요. 급기야는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고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제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부처님 말씀처럼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의미를 담아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꿈에서 깨어나'는 실상을 바로 보면 모두가 꿈이라는 것을 알고 헛된 욕망을 버리자는 의미를 담았고, '님 찾아'에서의 님은 아미타불을 의미하며 나 자신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과정을 노래에 담았다. 또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숫타니파타〉의 구절을 인용 어떤 세상에도 물들지 않고 참나를 찾고 싶은 의지를 담았다. 홍 씨는 "장애인으로의 삶이 고단했고 고민도 많았던 시절 〈숫타니파타〉를 읽으며 마음을 위로받았다. 이 노래는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자는 내용을 노래에 실었다"고 설명한다.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거리문화예술제 등에서 공연을 하다가 지난

시각장애인 아픔 불교로 극복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 찾는 과정
음악에 담으며 진리의 길 노래
9월부터 제작 사찰 순회 공연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앨범 표지

2007년 명상곡 '인연의 소리'를 시작으로 불법이 삶에 응축된 내용의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 왔다. 홍 씨는 자신의 음악 활동은 '참나'를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음악은 '참 나'를 찾는 한 방편일 뿐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인연법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수로 또 수행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상음악가 홍관수 씨는 1집 앨범을 발표하고 9월부터 제주지역 사찰 순회공연을 갖는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고열로 시력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해 고학년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시력을 잃으면서 건강조차 나빠진 그는 어머니를 따라 제주 한림읍 황룡사에서 요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비록 세상만사를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마음의 눈으로 새로운 삶에 눈뜨게 된다. 스님과 매일같이 예불을 올리며 경전을 독송하는 등 천수경 정도는 자연스럽게 읊을 정도가 됐을 무렵 사미계까지 수지했다. 경전 삼매에 빠질 때는 3~4분 숨을 쉬지 않고 독경했을 정도였는데 이는 지금 가수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홍 씨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살을 한번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절에 있을 때 저를 잘 챙겨주셨던 한 보살님께서 늘 '지금은 비록 힘 들겠지만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기에 언젠가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그는 이렇게 10년 동안 사찰에서 살며 삶의 좌표를 정했고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음성공양으로 대중의 지친 삶을 위로해 주고있다.

첫 앨범을 발매한 그는 9월부터 제주의 상림사, 관음정사, 한마음선원, 우리절 등에서 공연을 펼치며 불음의 향기를 전파할 예정이다. 010-5697-183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량수불, 극락에서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한미산 흥국사 괘불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10월 26일까지 서화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테마전 '무량수불, 극락에서 만나다 · 한미산 흥국사 괘불'을 개최한다.

한미산 '흥국사 괘불'은 펼쳤을 때 높이가 6m가 넘는 크기의 불화로, 큰 화면 안에는 극락세계의 부처님, 무량수불(無量壽佛)과 관음 · 세지보살, 가섭 · 아난존자, 그리고 문수 · 보현보살의 일곱 존상을 그리고 있다. 무량수불은 손은 길게 내밀어 극락에 왕생할 자를 맞이하고 있고, 주변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오색구름을 만들어 낸다.

이 괘불의 발원자는 명성황후의 상궁으로 있다가 훗날 계비의 지위에 오른 순비 엄씨다. 순비는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황제와 황태자 내외, 아들 영친왕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 이 불화를 경기도 고양군 흥국사에 봉안했으며, 극락에서 무량수불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계비인 순비 엄씨 발원으로 제작
10월 26일까지 불교회화실서

나아가 그녀는 왕가의 안녕과 아들 영친왕의 평안을 위해 30년에 달하는 만일의 기간 동안 무량수불, 곧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염불하는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를 흥국사에서 열었다. 순비의 청을 받고 당시 건봉사에서 능엄경과 화엄경을 통달했다는 해송 스님이 초청되어 왔고 매일 1만 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합송하는 만일기도회가 흥국사에서 열렸다. 당시는 역사와 정치적 격변기였던 구한말이었기에 사회적 불안함과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 무량수불을 염불하면서 불교의 이상향인 극락세계를 꿈꾸었다.

괘불의 제작은 근대의 대표적인 불화승 경선당 응석 스님이 맡았다. 스님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70여 점의 불화를 그렸으며 왕실발원 불화를 여러 차례 제작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화사였다. 음영법 등 서양화의 요소를 가미하여 불화조성을 한 몇몇 화승과는 달리 새로운 요소를 지양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계승하며 그의 화업을 쌓았다. (02)2077-9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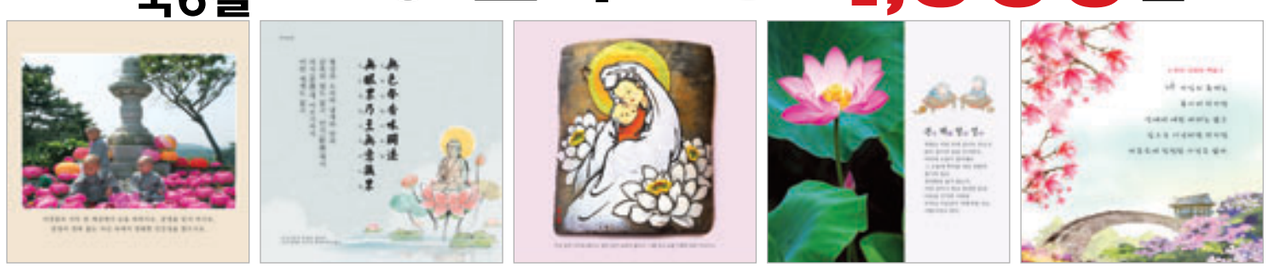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계비인 순비 발원으로 제작된 흥국사 괘불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 사용
불교달력 정직한가격!!

小 25.8㎝×26.5㎝ 12절
2백부 이상@ 1,000원
3천부 이상@ 800원

大 30.5㎝×31㎝ 국6절
2백부 이상@ 1,200원
3천부 이상@ 1,000원



호수	품 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1호	마하반야바라밀다경	6절 (6종) 1,900원	1,2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400원 ※ 2000부 주문시 1,100원 ※ 3000부 주문시 1,000원
2호	산사로 가는 길		
3호	연향이 머무는 곳		
4호	천진미소		
5호	행복바라밀		
6호	향기로운 말		
7호	가람의 향기	12절 (13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200원 ※ 2000부 주문시 900원 ※ 3000부 주문시 800원
8호	관 음 도		
9호	기달마도		
10호	찬년기와 동자		
11호	마음이 머무는 곳		
12호	물소리바람소리		
13호	반야동자		
14호	반야심경		
15호	부모은중경		
16호	부처님사랑합니다		
17호	선의 세계		
18호	세계의 명찰		
19호	연꽃이 있는 풍경		
20호	홀로있는 시간		

호수	품 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20호	맑은 향기	미니 (6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 2000부 주문시 400원
21호	우리말 반야심경		
22호	연꽃향기		
23호	자비의 향기		
24호	천 진 불		
25호	행 복 동 자		
26호	나를 다스리는 말	수첩 (6종) 800원	6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800원 ※ 2000부 주문시 600원
27호	미 소 동 자		
28호	아름다운 풍경		
29호	천 진 동 자		
30호	청 정		
31호	마음의 소리		
32호	마음에 핀 연꽃[비닐]	차걸이 (4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33호	마음에 핀 연꽃[홀더]		
34호	동자 꽃[비닐]		
35호	동자 꽃[홀더]		
36호	선	2,400원	1,600원(200부 이상)
37호	행복한 하루	2,400원	1,600원(200부 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문화人

그림과 나무속에 禪 사상 담아 … 자연과 삶 일체된 세계 추구

오제 전정구 전각가


전정구 작가는 선을 모티브로 전각 선화 판화 등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여 왔다.

"스님, 흰구름이 청산으로 왔던가요" 차를 마시며 선문답하는 모습을 선화로 표현한 전정구 작가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일으킨다. 선화, 전각, 판화 등 선(禪)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전 작가만의 세계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편안하면서도 경쾌하고 명쾌하면서도 담담함이 배어나오는 그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입가에 빙긋이 미소를 짓게 된다.

7월 31일, 인사동에 위치한 오제 전정구 작가(54)의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전각으로 시작해 판화, 선화까지 폭넓은 작업을 선보여 왔는데 요즘은 비구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저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18년 동안 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전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전각 공방을 다니며 공부하기도 했는데 저한테 잘 맞지 않았어요. 독학을 했으니 틀에 맞추어 작품을 할 이유가 없었죠. 작품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니 초창기에는 기존의 선배들과 마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한테 맞는 작업들을 찾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전 작가의 작품은 자연과 일상 그리고 인간의 삶이 하나 되는 세계를 추구한다. 고정된 틀에 갇히기를 싫어하는 그의 작업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 선상에서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고전적인 듯하면서도 세련되고, 또 그 속에서 털털한 인간미까지 배어 나온다.

특히, 전각 작업은 알음알음으로 그의 작품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을 만큼 인기가 좋다. 그는 전각 중에서도 한글 작업을 즐기는데 한글의 조형미는 그 어떤 언어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제 작업의 대부분은 문자를 모티브로 해요. 한글만큼 아름다운 문자가 없죠.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종과 획 원과 각이 모두 들어있어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한글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최근에 완성한 한글 반야심경 전각조각도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서 개인전 열기도
"한글만큼 아름다운 소재 없어"
대행 스님 저서에 삽화 작업도

또한 그의 선화는 여백의 미가 백미를 이루기에 출판물에서도 주목받는다. 특히, 한마음선원의 선법가 CD집과 다이어리, 대행 스님의 저서 〈禪, 침묵의 천둥소리〉등에 그의 작품이 삽화로 들어가 눈길을 끈다. "제 전시를 보러 오신 한마음선원 스님들이 작품을 삽화로 넣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 작품이 여백이 많기 때문에 삽화로 쓰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듯해요. 그 이후로 한마음선원과는 10여년 정도 다양한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 공방으로 출근해 밤늦게까지 작업실을 지키는 그는 여느 직장인들보다 오랜 시간 작업을 한다. 혼자서 공방을 지키는 것이 외롭고 고독한 일이지만 이 작업이 곧 수행이라고 그는 말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것은 고행의 연속입니다. 돌을 깎고 채색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전 과정을 홀로 이루어내는 일은 외롭고 쓸쓸하죠. 한겨울에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새로운 작품을 잉태시키는 또다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홀로 작업하는 과정은 수행과 같아요.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또다시 그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 말이죠."

2012년 프랑스에서 제 5회 개인전을 열기도한 그는 앞으로 2년 정도 꾸준한 작업을 거쳐 새로운 전시를 열고자 한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보다는 제 세계가 충만히 표현된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요. 작품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좋은 전시를 열고 싶습니다."

비 개인 오후처럼 늘 좋은 일만 있으라는 의미를 담은 그의 호 오제(午霽)처럼 전정구 작가는 외로움을 딛고 하나하나 작품을 잉태해 나가며 대중들에게 화창한 오후를 선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섬과 바다' 그의 선화는 짧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여백의 미가 백미를 이룬다.


한글 반야심경 전각조각

산 그리워 진작부터 절에서 자고 싶었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㉛ 화엄사 (上)




화엄사의 중심공간 각황정(국보제 67호)

신라 화엄십찰의 장엄미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화엄사(華嚴寺)는 이름 그대로 화엄의 이념을 받드는 사찰이다. 화엄은 꽃들의 장엄이다. 물론 꽃이란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일체중생이 그 자체로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밝히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라 의상 대사는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전국에 큰 화엄사찰을 조성했다. 부석사와 해인사 등이 대표적인데 화엄사도 화엄십찰의 하나로 꼽힌다. 8세기 연기조사에 의해 대가람으로 사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창건 배경에서부터 다양한 설화가 전하며 그 깊은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유서 깊은 절은 역사적 진실보다 신앙적 감동이 많다. 4사자3층 석탑에 얽힌 연기조사 이야기와 각황전 창건이야기 등은 화엄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중생들의 귀의처였는가를 말해준다. 화엄사는 신앙적 역사와 가치를 떠나서도 문화유산의 보고이기도 하다.

큰절로서의 화엄사는 역사의 흐름 속에 수없이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해 왔다. 도량이라는 유형의 존재는 전쟁과 노략질의 화마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가르침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아 다시 불전을 짓고 향화를 사르며 불심을 이어 온 것이다.

다른 큰 절들에 비해 화엄사를 배경으로 지은 시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원래부터 화엄사를 읊은 작품이 많지 않은 건지 멸실 누락되어 전해오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비들의 시문집에 전하는 화엄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조선 후기의 학자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의 작품이 그의 문집 〈매천집〉에 전한다.

매천 황현은 전남 광양에서 출생했다. 1883년(고종 20) 초시에 1등으로 뽑혔는데 시험관이 시골출신이라고 2등으로 내려버렸다. 그는 중앙관료의 부패에 환멸을 느껴 회시와 전시를 치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친의 권유에 못 이겨 시험에 응시해 장원을 했다. 그러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이 이어지며 급변하는 정국에 수구파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 지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

구례로 낙향한 황현은 3000여 권의 책을 쌓아놓고 독서와 글짓기에 매진했는데 역사연구와 경세학에도 깊이 빠졌다. 국권상실로 치닫는 위기를 느끼고 후손들이 민족의 정기를 이어가도록 〈매천야록(梅泉野錄)〉〈오하기문(梧下記聞)〉〈동비기략(東匪紀略)〉등을 지었다. 1910년 8월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다량의 아편을 먹고 자결했다.

매천 황현의 템플스테이

이건창 김택영과 함께 구한말의 삼재(三才)로 불릴 만큼 문재(文才)가 뛰어났던 황현. 그는 37세 되던 해에 화엄사와 관련된 시를 지었다. '약속대로 해학과 함께 화엄사에 가다[赴海鶴華寺之約] 라는 제목의 칠언율시 두 수가 〈매천집〉 제1권에 전한다.

마수종명이모천(馬首鐘鳴已暮天)
목란화노감당년(木蘭花老感當年)
벽사홍수조평중(碧紗紅袖嘲平仲)
춘초명금몽혜련(春草鳴禽夢惠連)
모우불사초아음(冒雨不辭招我飮)
사산구의여승면(思山久擬與僧眠)
독서대로유능기(讀書臺路猶能記)
전급분명백탑전(級分明白塔前)

말방울 울리며 가노라니 날은 저물었는데
목단 꽃 시들었어라 번화한 때가 느껍구려.
푸른 깁 붉은 소매는 평중을 비웃었거니와
봄풀이랑 우는 새는 혜련을 꿈꾼 거고 말고.
비를 무릅쓰고 술자리 초대는 사양치 않고
산이 그리워 진작부터 스님과 자려고 했었네.
독서대 가는 길을 아직도 기억하거니
벽돌 계단이 분명히 흰 탑 앞에 있었지.

시의 제목으로 보아 황현은 해학이라는 스님과 교유를 한 것 같다. 첫 수에서는 스님과 함께 화엄사로 간 소감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수련에서는 말을 타고 저물녘에 화엄사에 도착하고 보니 목단꽃이 시들어 만개하던 한 때를 생각게 한다. 무상의 질서를 일몰과 시든 목단 꽃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함련에서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는데 '푸른 깁 붉은 소매는 평중을 비웃었다' 는 이야기를 등장 시킨다. 평중(平仲)은 송나라의 이름난 재상 구준(寇準)의 자이다. 시인 위야(魏野)가 준을 수행하여 섬부(陝府)의 사원에 가 노닐면서 각각 시를 쓴 일이 있었다. 뒤에 다시 함께 그 사원에 놀러 가서 보니, 구준의 시는 이미 푸른 깁으로 잘 싸놓았으나, 위야의 시는 그대로 방치하여 먼지가 끼어 있었다. 마침 그 일행을 수행했던 총명한 한 관기(官妓)가 즉시 자기의 붉은 옷소매로 먼지를 닦아내자, 위야가 천천히 말하기를 "항상 붉은 소매로 먼지를 닦을 수만 있다면, 푸른 깁으로 싸 놓은 것보다 나을 것을"이라고 말했다는 고사가 〈唐 言 卷7〉에 전한다.

이어지는 '봄풀[春草]이랑 우는 새는 혜련을 꿈꾼 거고 말고' 라는 대목도 중국 고사를 끌어 온 것. 송나라 시인 사영운(謝靈運)이 시를 지으려는데 도저히 시상이 막혀 좋은 글이 떠오르지 않다가 꿈에 그의 친척 동생 사혜련(謝惠連)을 만나 "못 둑 위에 봄풀이 난다[池塘生春草]"라는 시구(詩句)를 얻어 시를 완성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절을 귀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꿈에 혜련을 보았다는 말은 명작을 완성했다는 듯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황현은 화엄사에 당도하여 목단을 통해 무상의 질서를 느끼고 도량의 아름다움을 통해 '잘 된 작품' 을 귀하게 여기는 심미안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절에 닿은 선비의 마음은 가볍고 경쾌하다. 경련과 미련에서 본격적으로 마음을 드러내 하룻밤 절집에서 스님과 두런두런 이야기 하며 자게된 것을 즐거이 여기는 심사를 보여준다.

서른일곱 살의 선비 황현은 읽던 책과 세속의 수심을 내려놓고 화엄사로 템플스테이를 간 것이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도(求道)소설
자유인 해월의 구도(求道)와 깨달음 이야기
소설 군야 석암 지음 | 150*210 | 248쪽 | 11,000원
〈소설 군야〉는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한 고개를 넘기 위해 지구에 내려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수행해나가고, 마침내 자성관음(自性觀音)을 발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원력을 가진 수행자상을 그려나간 것이다. 저자는 석암스님(양구 관음선원장).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합合하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合한다
동양학의 근본 경전 주역 바로 읽기
주역 개설 최정준 지음 | 신국판 | 232쪽 | 12,800원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선생의 제자인 철산(哲山) 최정준 박사(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겸임교수)는 기업인 • 공무원 주역교육의 최고 인기강사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八卦)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법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3 ~ 7/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3	그대에게 가는 길 (아함의 말씀)	무원	맑은소리맑은나라
4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5	깨달음	법륜	정토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담앤북스
8	한글 아함경 (재개정판)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9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남회근, 송찬문	마하연
10	서방극락이 그대의 집 (선화상인 염불법문)	정원규	민족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실존적인 메시지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 정석훈 옮김
판미동 펴냄 | 1만8천원



“위기로 인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돈과 소비가 아닌 다른 것을 기반으로 문명의 토대를 다시 다질 수 있다.” 세계적인 종교사학자이며 철학자로서 프랑스의 지성으로 불리는 저자 프레데릭 르누아르는 인류가 혼란의 시대를 살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류의 스승으로 불리는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 인류가 정신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재 인류가 맞고 있는 상황을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인류가 무한 성장을 전제한 발전 이론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다.

산업혁명 이후, 즉 1960년대 이후 인류는 소비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저자는 이때의 성장 동력을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성장이란 ‘더 많이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성장이자 발전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생활양식은 소유하고 축적하며 많은 물건을 끊임없이 신상품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양식이 한 번 삐걱거리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며,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개되는 무한 소비 욕구를 일일이 채워줄 수 없을 때, 한정된 자원으로 분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의 삶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오히려 ‘더 많이 갖는 것이 퇴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류는 제대로 된 질문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의미, 돈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자는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보며, 위기로 인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돈과 소비가 아닌 다른 것을 기반으로 문명의 토대를 다시 다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위기는 경제와 금융에만 국한되지 않고 철학과 정신의 영역에도 해당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여기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인류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소비가 성장 동력인 현 문명 위기
무한성장 전제 발전이론 재고해야
역사상 처음으로 돈 · 소비 아닌
새로운 문명 토대 창조할 기회
3인 성현의 삶과 가르침에 답 있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길 제시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전 지구의 위기에서 비롯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이 답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류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다. 과연 인간은 ‘소유’만을 이상을 삼아 구축된 문명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존재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책은 세 인물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피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화를 재조명하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정의, 사랑, 자비 등의 메시지가 현재의 우리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준다.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기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란 무서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저자는 세 성현의 삶을 서로 교차하며 조망한다. 유년기부터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 각가의 개성,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후대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역사가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본다. 저자는 불멸, 진리, 자유, 사랑 등의 키워드들이 세 성현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면서도, 그 차이점을 짚으며 어설픈 통합을 지양한다. 세 성현의 윤리적 가르침 중 어느 것을 따르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독자들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고 붓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내가 볼 때,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보편적인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개별적 존재와 그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서도 개별적 존재들이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몸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자유와 사랑 그리고 자기 인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지혜롭게 어우러져 있다. 비록 그 메시지들이 다양한 종교적 기반에 뿌리내리고 있긴 하지만 포용력 없이 교조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상식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으며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에도 호소를 한다.”

세상의 가치와 정신적 축을 만든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간결하다. 인간의 삶은 고귀하며, 저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도 함께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인간적이며 영적인 메시는 ‘왜 사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에두르지 않는 대답이기도 한다. 삶의 스승 3인이 전하는 가장 뜨겁고 실존적인 메시지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데 단단한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부풂과 꺼짐,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위빳사나 백문백답

마하시 법문 | 비구 일창 담마간다 편역
이솔 펴냄 | 1만3천원



불교의 수행법 중의 하나인 위빠사나는 호흡에 집중하여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서 초기 불교부터 매우 중요시 되어온 수행법이다. 책은 미얀마의 큰스승으로 미얀마는 물론 전 세계에 위빠사나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마하시(1904~1982)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소개한다. 마하시 수도원은 오늘날 전 세계에 500개 분원을 두고 있으며,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명상을 수행한다.

“위빠사나 수행은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는 물질법과 정신법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질법은 지금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물들입니다.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몸 전체가 물질 무더기, 물질법입니다. 정신법은 아는 마음과 여러 마음부수(마음과 함께 생겨나서 사라지는 여러 정신작용들)들입니다.”

1부에서는 위빠사나를 왜 수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으로, 마하시 사야도의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고, 수행의 기본 방법을 제시하는 〈위빠사나 수행법〉을 이어서 수록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모습에 대해 우 소다나 사야도가 평소 법문한 것을 토대로 편집한 〈위빠사나의 실제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질문 54-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부풂, 꺼짐’이라고 두 가지로만 관찰하다가 ‘너무 쉽다. 새김이 성글다. 꺼짐과 부풂 사이에 틈이 길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2부에서는 위빠사나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을 백문백답으로 엮어 소개하고 있다. 70권이 넘는 마하시 사야도의 여러 법문집 중에서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사마네 –m사야도가 문답형식으로 편집한 〈마하시 사야도와 최근 위빠사나 수행방법들〉과 〈마하시 사야도와 새김확립 여러 가지〉라는 두 권의 책을 편자가 다시 마하시 사야도의 〈위빠사나 수행방법론〉을 토대로 해서 〈위빠사나 백문백답〉으로 재편집했다.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위빠사나 수행이란 무엇인지, 위빠사나 수행을 왜 하는지, 위빠사나 수행을 화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바르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책 1부의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처음 한국어로 번역됐다. ‘위빳사나 수행법 법문’은 영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있으나 이번에는 미얀마 원문을 번역하여 실었다. ‘위빳사나 실제수행법’은 그동안 복사와 제본, 혹은 파일을 통해서만 법보시해 왔었다.

〈위빳사나 백문백답〉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마하시 사야도와 최근 위빳사나 수행방법들〉이라는 책은 영역본을 번역하여 〈위빳사나 관련 질문에 대한 마하시 스님의 법문〉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만들어 법보시한 바 있다. 이번에 그 책과 함께 〈마하시 사야도와 새김확립 여러 가지〉전문, 그리고 마하시 사야도의 〈위빳사나 수행방법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백 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간추려 〈위빳사나 백문백답〉으로 엮었다.

박재완 기자

불법의 핵심을 쉽고 명쾌하게 읽는다

공과 자비

황명찬 지음 | 지혜의 나무 펴냄 | 9천8백원



사성제와 연기법, 팔정도, 육바라밀, 공사상, 지관법 수행 등 부처님 일대사의 주요한 가르침들을 좀 더 편안히 읽고 이해하기 위한 책이다. 간단히 풀어낸 반야심경과 여러 경전을 인용하고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를 곁들인 해설들은 좀 더 깊은 이해를 돕는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전했다. 그 전법의 시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사성제와 12연기법을, 중기에는 반야심경과 금강경 등 반야계통의 가르침을, 그리고 말기에는 법화경을 가르쳤다.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으므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르쳤고, 중기에는 ‘공(空)’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고(苦)’로부터의 해탈이 그 중심을 차지했다. 누구나 부처님처럼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하여 성불하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긴 했지만 반야심경에서 보듯이 고로부터의 해탈이 여전히 관심사였다. 성불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일은 법화경에 들어와서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중기에 가르친 공(空)은 고로부터의 완전한 해탈과 궁극의 열반을 얻는데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님처럼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큰 불사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전법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화경 화성유품에서 부처님은 열반할 때가 되고,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공을 완전히 통달하고, 깊이 선정에 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문과 보살들을 모아놓고 궁극적 진리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설한다고 말씀하셨다. 배우는 사람들이 초기에 네 가지 진리의 가르침인 선정에 잘 들 수 있고, 중기의 가르침인 공을 통달한 다음에야 비로소 법화경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초기의 가르침인 ‘연기법’과 ‘사성제’이고, 중간 부분이 ‘공과 이해와 경험’, ‘반야심경의 이해’와 같은 글이며, 마지막 부분이 ‘가르침대로 수행하기’,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는 길’, ‘보살행’과 같은 글이다. 차례로 읽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소승은 다라니 매일 330독 주력 기도중 지난 6월 15일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시어 사문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 더욱 빛나게 하라는 계시와 좌측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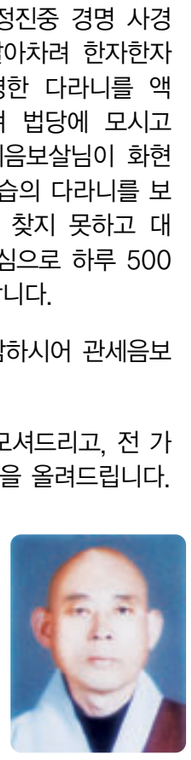
소승은 기도 정진중 경명 사경 다라니임을 알아차려 한자한자 정성드려 사경한 다라니를 액자에 표구하여 법당에 모시고 기도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6월 27일 다시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시어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어째서 사진과 같은 모습의 다라니를 보여주셨을까 답을 찾으려 기도정진 하였지만 그답을 찾지 못하고 대의정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제 그 답을 찾으러 대 신심으로 하루 500독 1,000일 50만독 주력기도 와 참회 기도에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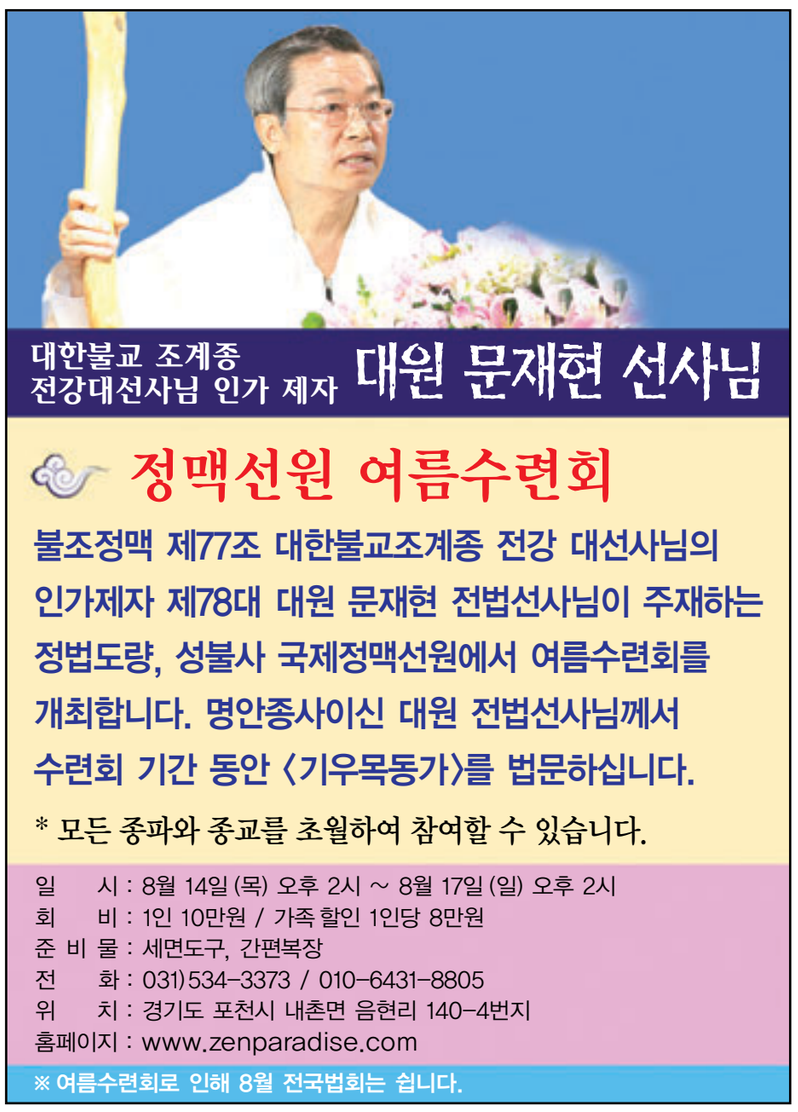
많은 불자님 다라니를 각 가정에 모시고 기도에 동참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가피 받으시어 소원성취 하세요.

기도에 동참하시는 불자님은 액자 표구한 다라니를 모셔드리고, 전 가족의 소원성취를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하여 기도 발원을 올려드립니다.

입재일은 8월 17일이며
1년 기도비는 한가족 30만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424번지 지하철 1호선 송현역 3번출구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도량 수정사 혜명 합장
전화 053)621-6367 / 010-4028-3622





"어렵고 무거운 불교 누구도 원치 않는다"

두글자로 깨치는 불교

가섭 지음 | 불광 펴냄 |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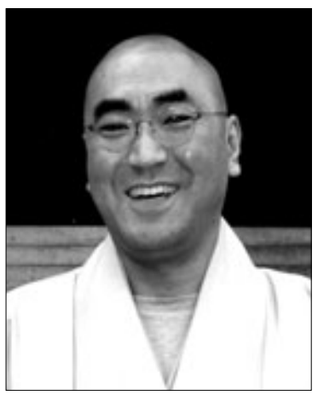
불교는 흔히들 어렵다고 한다. 용어때문이다. 누군가는 또 불교는 무겁다고 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신행체계가 난해해서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도 난해한 불교를 단 두글자로 깨칠 수 있다는게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에 책장을 스스르 넘기니 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절묘하고 재치넘치는 책 제목에 무릎을 쳤다. 이 책에는 불교의 핵심 키워드 49개가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 그 키워드가 모두 두 글자다. 그래서 책 제목이 〈두 글자로 깨치는 불교〉인 것이다. 키워드는 '번뇌' '업보' '합장' '총림' '청규' 등 불자로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교리와 신행 용어들이다. 저자는 이 용어들을 경전에 근거해 풀어가며,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제안까지 덧붙였다. 무엇보다 특히 이 책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20여년간 저자의 수행 생활의 경험이 오롯이 녹아 있어서다.

가령 저자는 이 책에서 합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해인사 행자 시절 합장하는 법을 배웠다. 손바닥을 합쳐 명치 끝에 놓고 열 손가락은 물샐틈없게 한다. 서 있을 때 두 발은 나란히 병족 하며, 걸어다닐 땐 차수 하는 위의를 몸으로 체득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경직된 자세지만, 행동을 단속하며 마음까지 단속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합장 자세를 바르게 하면, 그만큼 신심과 환희심이 모아진다는 사실도 경했다. 합장의 바른 자세는 마음의 간절함과 비례한다. 간절한 만큼 손을 모으고, 지극한 만큼 바른 자세가 나온다. 그래서 합장 자세는 그 사람의 종교적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딱딱한 이론의 재배치가 아니라 직접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설명인 만큼 귀에 쏙쏙 들어온다. 현장감이 느껴지는 생생한 풀이가 불교에 대한 갈증을 시원스레 풀어주고 있다.

몇가지 더 소개한다.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 '정진'이다. 흔히 '수행정진' '참선정진' 이라고 붙여 말한다. 그렇다면 어렴풋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집중해서 수행한다는 뜻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인 가섭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저자는 "숨이 턱에 받치는 삼복더위에도 각 사찰에서는 하안거와 백중기도로 여념이 없다. 사부대중은 한결같은 정진으로 무더위를 이겨낸다. 재가신도들도 전국 각 도량을 찾아 정진을 통해 부처님 향기에 흠뻑 젖는다. 비오듯 땀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환희와 감동을 준다. 정진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저자는 '무상'도 설명한다. "한시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 현상을 보며 덧없음을 곱씹는다. 무상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생멸을 거듭한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한 현실을 순간순간 잊고 산다. 영원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상에 대한 통절식 없이, 현상적인 모습에 집착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다."


저자인 가섭 스님

불교 핵심 키워드 49개 설명
20여년 수행 경험도 전해줘
삶의 구체적 실천방향도 제시

이 책은 이렇게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불교 일상용어 안에 현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불교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절집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만 제대로 풀어봐도 생생한 불교의 낱낱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수많은 불교입문서가 교리에 치중한 반면, 이 책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절집서 날마다 주고받는 '두 글자'의 불교용어에 천착해, 삶과 밀착된 친근한 해설로 안내해 읽기가 부담이 없다. 이 책의 저자 가섭 스님이 가슴 한편에 늘 풀어야 하는 화두처럼 대중 눈높이에 맞춰 불교를 쉽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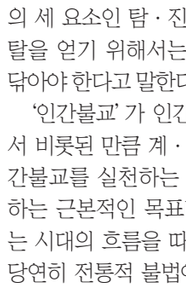
승가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이끄는 사찰 주지로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함께하는 복지관 관장으로서, 불교종책연구에 정진하는 연구소 소장으로서 다양한 활동 이력이 활자로서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외에도 불교의 사상적 토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며, 복잡다단한 우리 시대에 불교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 삶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향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교리신행서의 범주를 넘어선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간불교는 시대 순응하는 흐름 … 부처님 전통 가르침에 토대

계·정·혜 인간불교의 근본 가르침

성운 지음 | 조은자 옮김 |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인간불교'라는 개념은 한국 불교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인간세계에서 태어나고, 수행하며, 깨달음을 이루고,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으므로 사실 불교 자체가 인간세계의 불교라는 관점에서 세상 속에서 불법을 구현하려는 새 불교운동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불교계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사회 전체가 자연스럽게 불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인간불교가 전통적 관점의 계 · 정 · 혜 삼학을 시대적, 현실적 요구와 상황에 부응하면서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에 의해 주창돼 크게 호응을 얻은 인간불교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불교이자, 현대 인류 사회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불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불교 역시 부처님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토대를 둔다. 즉 중생 고통의 세 요소인 탐 · 진 · 치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계 · 정 · 혜 삼학을 닦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불교'가 인간적 부처님의 가르침서 비롯된 만큼 계 · 정 · 혜 삼학 역시 인간불교를 실천하는 자들이 힘써 닦아야 하는 근본적인 목표다. 인간불교의 전파는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는 면도 있지만, 당연히 전통적 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불교가 발전돼 올 수 있었던 것은 초기불교의 계 · 정 · 혜를 인간불교 사상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삼학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읽고, 현대인의 생활 속 실천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성운대사가 이 시대의 불자들이 불법 수행의 핵심인 계 · 정 · 혜 삼학을 인간불교의 관점에서, 전통과 현대의 시대적 정신을 서로 융합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이해하고 실천케 하려는 의도로 법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계 · 정 · 혜 삼학에 맞추어 인간불교의 계학, 인간불교의 정학, 인간불교의 혜학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부 '인간불교의 계학'에서는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계의 제정'은 때에 따라 제정하고 시기에 따라 폐침, '계의 정신'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중생을 이롭게 함, '계의 실천'은 봉사와 실천은 나와 남이 다 이로움, '계의 목표'는 인격을 완성하고 원만한 보리를 이룸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광산의 종문 청규를 소개하고, 인간불교를 위한 팔정도로 '인간불교현대율의' 등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제 2부 '인간불교의 정학'에서는 성불하기 원하지 않고 깨달음 얻기를 바란다는 '정의 목표', 맑고 소박한 생활과 망상분별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정의 수지', 경계를 따라 바뀌지 않고 자아를 끌어올린다는 '정의 묘용', 망상을 없애버리고 신심을 편안케 한다는 '정의 이익',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한다. 특히 정의 수지 부분에서는 비로자나 칠지좌법, 육묘문, 오정심관, 사념주, 구주심, 사료간, 사선팔정, 지관쌍수, 인연관 등 10여 가지의 전통적 선 수행법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면서, 선이 우리의 생활이자 우주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인간불교의 혜학'에서는 반야연기가 인간지혜의 근본이라는 관점과 지식과 사고로 인간지혜를 해득하는 관점, 이러한 지혜의 응용으로서 생활 속에서 인간지혜를 적용하는 관점, 그리고 모든 생명을 나와 한 몸으로 봄으로써 인간지혜를 원만히 한다는 네 가지 관점에서 혜학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삼학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덕쌍수(福德雙修), 해행병증(解行竝重)의 근본적인 힘이 되어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탈 위해선 삼학 닦아야
삼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
10여 가지 전통 수행법 정리

김주일 기자

▲저자인 **성운대사**는?
1927년 중국 강소성 강도에서 태어나, 12살에 남경 서하산에서 지개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했다. 서하율학원과 초산불학원에서 불법을 공부했으며, 임제종 48대 전인이 되었다. 1949년 타이완으로 건너와 월간지 인생, 각세순간, 금일불교 등 불교 간행물을 편찬했다. 1967년 불광산을 창건해 '인간불교'의 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 문화, 교육, 자선사업 등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전 세계 200여 곳에 사찰을 건립했으며, 6개의 불교대학과 지광중학교, 보문중학교, 남화대학교, 불광대학교, 서래대학교를 설립했다. 2000년에는 인간복보를 창간했으며, 국제불광회 중화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불교도우의회 영구 명예회장을 맡아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는 물론 인간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공덕을 쌓았으며, 백여 권의 저술은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불보살의 역사와 탄생배경 소개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불상의 마음

고명석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접해서 귀에 익숙하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불보살의 이름과 탄생 배경, 그 속에 간직된 이야기, 역사 및 문화적 특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따라서 그저 미적 대상으로만 여겼던 불보살들이 왜 우리 곁에 나투셨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불상을 통해 불교의 사상과 신앙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다.

불교에는 수많은 다종다양한 신들은 물론 불보살님들이 존재한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더라도 종교성이 빛바래지 않는다. 아울러 불상의 모습 또한 한결같지 않다. 왜 그런지 까닭을 궁금해 하는 이가 많다.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여러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불보살님들은 저마다의 본원을 지닌다. 여기에 의거해 불교의 다양한 신행이 전개된다. 여러 가지 기도법과 수행법은 물론 이에 따른 신행문화도 모두 이런 본원에 의해 전개되는데, 이 책에서는 불교의 다양한 신행과 문화를 각각의 불보살님을 통해 조명한다. 더불어 각각의 불보살님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도 및 수행도량도 소개해 준다.

이외에도 불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불보살십대제자의 마음도 조명한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십대제자들은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들을 구제해 나간다. 불교의 대표적 성인으로서 이러한 님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영역 속에서 깨달음의 밝은 빛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불상의 마음이자 정신이다. 불교는 '차이'를 조화의 근본으로, 잘나고 못난 '차별'이 없는 '절대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종교이다. 이러한 불교를 깨달음으로, 수행하는 삶으로 보여준 분들이 바로 불보살십대제자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주일 기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시아독 수트라

비구 범일 | 김영사 펴냄 | 2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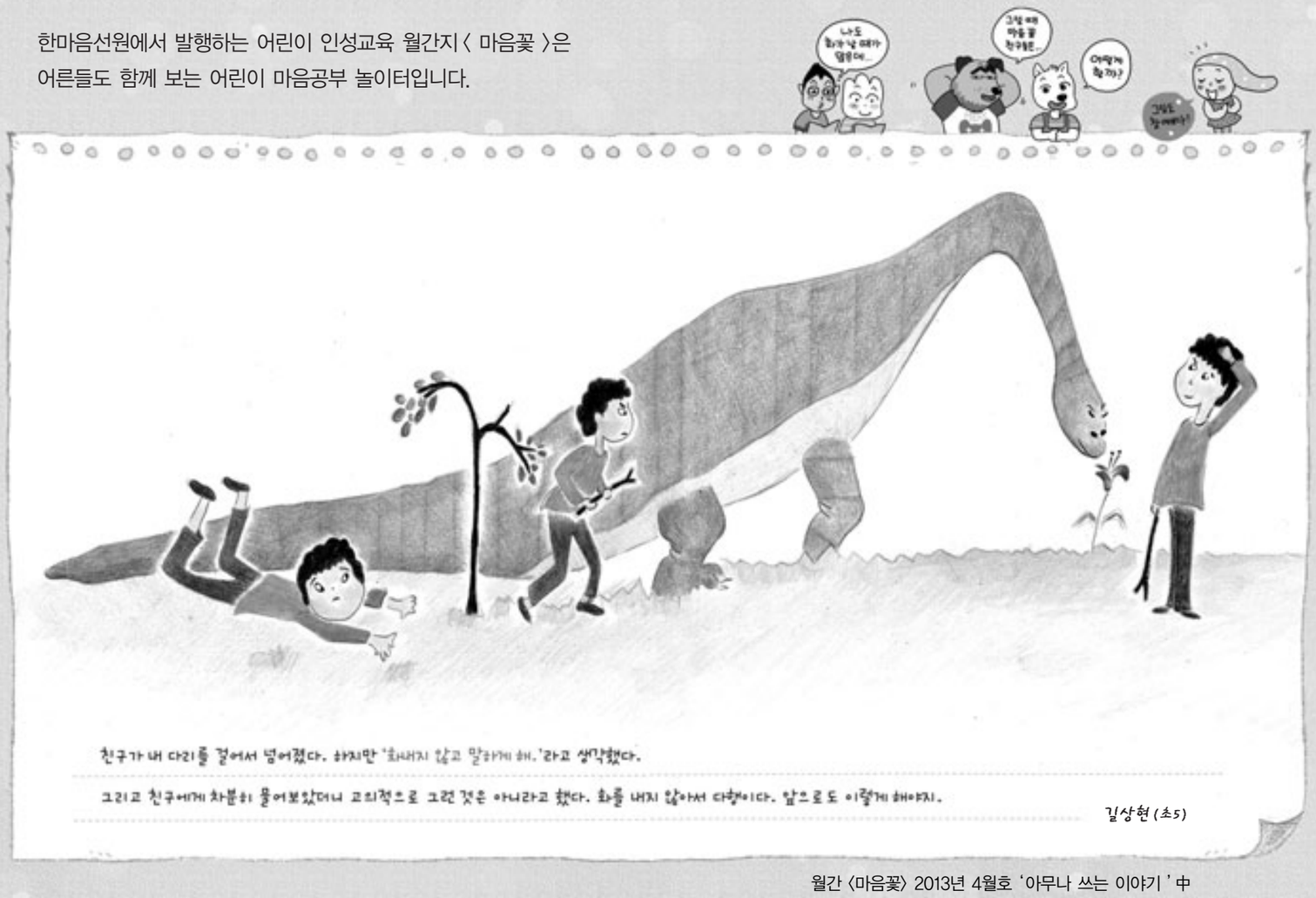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성장한 저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찾아 자연과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였다. 어릴 때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만큼 대학에서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해 이론천체물리학(우주론)을 전공했다.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자연과 우주의 진리에 대한 원리적 한계를 이해하였고 비물질적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저자는 영원불멸한 진리를 찾아 물질과학의 우주론에서 정신과학의 불교로 탐구방향을 전환하여 출가했다. 승려로서 체계적인 불교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물리학의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와 너무나 상이한 국내 불교학의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를 접하면서 한때 외국의 불교학계와 외국승려들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졌다.

졸업논문을 쓰며 10년 넘는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한다. 이때 저자는 고(故) 고익진 교수의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1970)와 이중표 교수의 박사학위논문 아함의 중도체계 연구(1990)를 접하게 됐다. 이 두 논문은 사아함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저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저자는 이 논문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시도를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접고 재출가하는 마음으로 지리산 함양의 토굴로 들어가서 불법(佛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경전들을 직접읽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 결실들이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펴어라,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너와 나는 의존해 살아간다”… 진화의 본질

불교로 읽는 古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다윈이 다년간에 걸친 자신의 연구 결과를 1859년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이라는 책으로 출간함으로서 서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단지 생물학이나 자연과학에 그치지 않는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밝힌 생명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선택’ 된다는 점이었다. 이런 진화론은 직접적으로는 서구문명의 큰 줄기인 전통적 기독교의 창조론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흔드는 입장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 프랜시스 베이컨 등에 의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던 서구 근대과학의 귀납적 시각에 대한 재고도 담고 있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연선택을 통한 종의 진화에 대한 이론을 담고 19세기에 등장한 다윈의 ‘종의 기원’이 20세기 서구문명의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 셈이고, 더 나아가 21세기 근대 서구문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류 100대 명저 선정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요 저서가 되었다.

진화론에 근거한 논의는 단순한 생물학의 영역을 벗어나 근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문 영역에 있어서도 ‘종의 기원’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유전학과 더불어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 진화심리학, 진화발생생물학 등의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분화하였고, 이어진 현대진화론에 있어서도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과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 간의 유명한 논쟁 사례처럼 지금도 진화는 뜨거운 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자연에 대한 서술이지 규범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진화론이 격론을 유발하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때로는 부정적으로까지 활용되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말하고자 했던 진화는 우생학적 시각이 아니라, 생명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자연에 적응하면서 생존해간다는 뜻이고, 이는 시간의 전개에 따른 창발성(emergency)이자 역사성을 말한다. 생명체가 최선의 상태로 진보해 간다는 뜻도 담고 있던 진화에 대한 초기 오해는 후에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생명체는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신의 생존 확보를 위해 자신도 변하고 주변 상황도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정착된다.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생명체와 주변 환경이 공동으로 펼치는 선택과 존속의 ‘상태’이며, 이러한 진화론의 관계적이며 적응주의적인 시각은 현대 생태학적 시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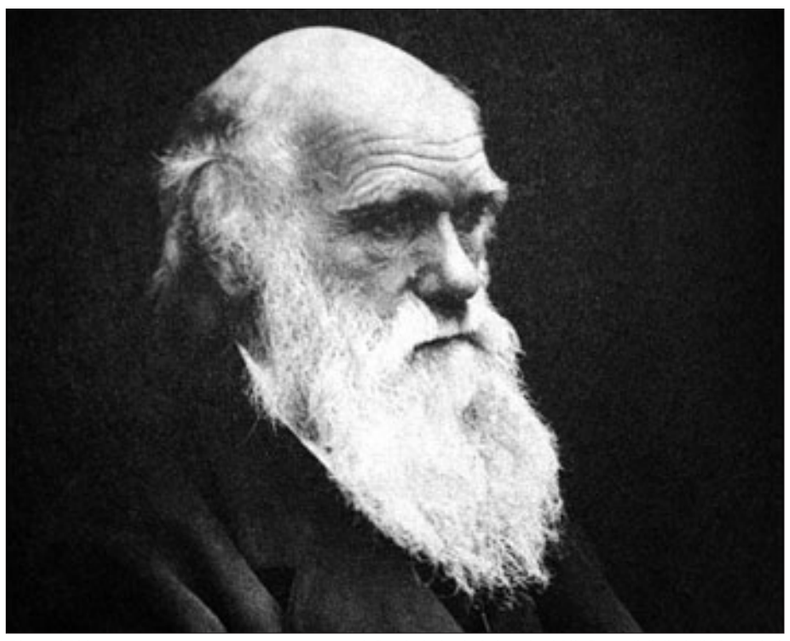
진화론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모를 거치고 그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진화론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생명체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적응해 왔다는 것이기에, 모든 존재의 관계성과 그에 기반한 실상을 강조하는 불교의 연기적 관점은 진화론적 입장과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동시에 서로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

불교의 연기법 그리고 다윈의 진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緣起法)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경전인 아함경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로 정리된 연기법은 상호의존적으로 항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흐름으로서 표현되는 진화론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불교의 상호의존적 변화에서도 한 개인의 삶에서 성취하는 개선은 있을지언정 피안을 향한 궁극적인 최선의 목적지향적이라는 개념은 불이(不二)로 부정된다.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밝힌 연기법에 의거할 때, 서로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의 관계성으로 인한 실체 없음을 지칭하여 일명 공(空)이라고 한다.

한계가 있는 감각기관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표면적 인식 체계를 넘어서 세상의 연기적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본래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불교는 존재의 관계성에 대한 무지(無知)로 인해 생겨나는 불필요한 고통과 폭력을 지적하면서 존재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한다.

한편,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연기법이 밝힌 상호의존적 관계성은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면서 끊임없는 변화로 이어지지만, 이런 인과관계를 발생시키는 의도적 행위를 업(業, karma)라고 부른다. ‘의도적 행위’는 불교의 인과법이 단순한 숙명론이나 운명론, 더 나아가 진화론의 표면적 기술과도 확고히 분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은 자신의 저서 〈종의 기원〉을 통해 “생명체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적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근현대 사회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

주위 환경에 적응 · 변화하는 진화론 관계성 중시하는 ‘연기법’과 맞닿아 ‘열린 관계’로 새로운 인식 지평 열어

생물학뿐 아닌 정치 · 사회 · 문화 등 전 영역에 영향 미친 획기적 저작

‘종의 기원’에서 제시된 진화론과 연기법의 접점을 살피기 위해서는 진화 과정의 상호의존적 관계성과 더불어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도출되는 불교의 업 개념이 다윈의 진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 살필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과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로 구성된 생명계(biosphere)가 극히 적은 수의 물질원소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는 한정된 공통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만의 개체고유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생명체를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구성 물질들이 아니라 섭취된 물질의 관계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현하게 되는 생명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라는 현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축을 따라 실체 없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계속하는 가변적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생명체는 매 순간에서의 현존(現存)만이 있으며 그러한 매 순간의 현존 역시 관계일 뿐이다. 단순한 물질로부터 나만의 개체고유성을 지니게 되는 생명체야말로 상호관계에 의거해서 유지, 변화되는 창발적인 존재다.

‘진화라는 지속된 시간의 누적 속에 생겨나는 반복과 차이’가 ‘종의 기원’에서 다루는 생명체의 종간 다양성의 터전이라면, 모든 개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관계 덩어리인 삶을 반영하고 있다. 탄생 이후 누적된 관계의 집합으로서 생명체를 말한다면, 비록 내가 나인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만 가능하지만, 지금의 나라는 존재도 긴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의 나, 더 진행하면 내 부모도 담고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모든 것이 시작된 약 137억 년 전의 우주 대폭발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는 지금 현재의 몸에 약 137억 년의 진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의지적 행위의 결과이자,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힘인 업(業)과 다르지 않다.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생에 대한 의지를 지닌다.

서양의 기계론적 입장을 담고 있는 현대 생물학에서는 ‘DNA로 이루어진 유전자에 프로그램된 유전 정보에 따라 만들어진 몸’을 생명체라고 하여 기계론적으로 정의하기에, 생명체의 진화를 유전자에 의한 생명현상으로 환원시키려 하는 사회생물학의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진화론과 불교의 근본적인 접점은 불가능하다. 생명체 진화의 근거가 단지 유전자라는 고정된 실체가 되어 기계적 유물론의 입장은 상론(常論)이 되어, 이는 그 어떤 고정된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불교적 세계관과 공존하기가 어렵다.

이렇듯이 진화론과 연기법은 생명체의 관계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과학적, 종교적 개념이 그렇듯이 해석에 따라 매우 미묘한 입장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 같은 내용이라도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진화론의 중심으로서 ‘종의 기원’에서 다뤄진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진보라는 개념과 더불어 적자생존으로 전환되어 독일에서 창궐한 우생학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생명 존중과 더불어 전형적인 비폭력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관계론에 의거한 진화론과 불교적 연기론의 시각이 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불교가 종교적 입장에서 열려있는 욕망과 지혜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진화론은 과학 이론의 한 분야로서 제시되어 결과적으로 인간의 가치 체계에 귀속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다윈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진화론적 시각은 불교의 연기적 관점처럼 너와 내가 서로 의존해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존재의 열린 관계성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자 진화의 힘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관계의 상호작용과 생명의 모습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생명의 진화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고 있으며, 생명체는 그러한 시간의 누적을 담고 있을을 역설한다.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은 긴 시간의 누적을 다루며, 결코 하루하루의 일상을 다루지는 않는다. 거대한 시간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생명현상이라는 결과에 주목하고 그 과정을 밝힌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은 거대담론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앞으로의 긴 시간 속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현상이라는 복잡계 현상의 예측불가능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다루고 있는 과학에서의 진화는 과거 지향적이다.

이에 반하여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보는 관계성은 언제나 현장성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라는 직선으로 흐를 때 다윈의 진화론과 상통하지만, 불교에서 강조되는 관계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공존하는 현재 지향적이다. 비록 한 생명체가 숨 쉬는 이 자리에서의 한 순간이 이미 현대천체물리학에서 말하는 137억년의 시간을 담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과학으로서의 진화론과 불교적 관점의 근본적 차이가 드러나게 지점은 진화과정의 시간을 선형적으로 볼 것인가 비선형적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에 있다. 대승불교에서의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상의 시간 개념을 떠나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비선형적인 시간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세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의 오직 들숨과 날 숨 사이에 자리잡는다. 업(業)이라고 하는 형태로 긴 시간의 누적 속에 지금의 내가 있지만 관심의 대상은 과거의 긴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이다. 따라서 불교의 연기적 진화를 말한다면 찰나에 삼세가 담겨있고, 137억 년을 담고 있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생물학적 진화론과의 차이가 분명한 셈이다.

한편 비록 모든 생명체는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가지만 불교적 통찰은 주인으로서의 인간이 보다 능동적으로 주위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 가야함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진화론이 생명체와 자연의 상호관계를 평면적으로 기술했다면, 블교의 상호관계성은 삶의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관계맺음으로 이어진다. 진화론은 자연의 관계성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만 불교에서의 관계성은 그것이 자기 내면이거나, 가족이나 사회와 같이 주변과의 관계이건,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의 근거로써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불교의 생명체는 진화론에 근간한 단순한 진화가 아닌, 적극적 관계 형성과 실천의 진화를 매 순간 경험하는 존재이다.

이처럼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한 모습으로서, 생명체와 환경간의 관계성에 기반한 진화라는 개념을 서구사회에 제시했다. 이는 비로소 생명과 자연의 근본 원칙으로서의 관계지향적 사유가 근대서구사회에 구체적인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대 계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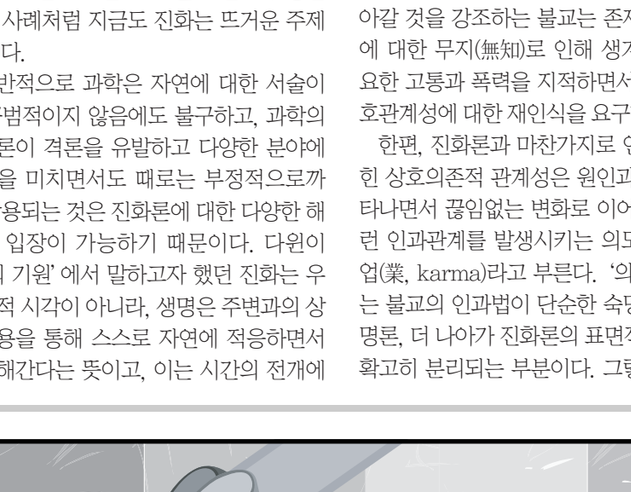
물론 진화론은 긴 시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공유되지만 진화론이 현재를 알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과거지향적 접근이라면, 불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피는 미래지향적이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의 비선형적 시간 속에서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는 불교와 선형적 시간에 기반한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종교의 본질적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기에 이런 점이 결코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불교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비록 사물의 원리를 기술한 것에 불과할지 몰라도 관계에 의한 상호작용과 그에 의존한 생명의 모습을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저서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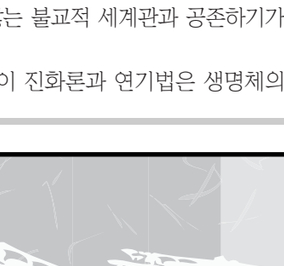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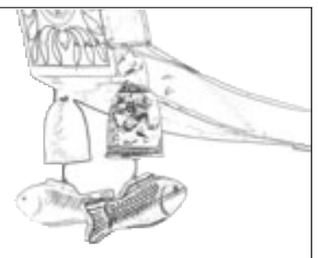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로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과 사는 아득하니
바 른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 출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선묵화 및 한문 개인지도

내용 : 문학, 한학, 선묵화
수강료 15만원
주 2회강의(오후)
숙식 별도 문의
전화 010- 3749-4553
합천 보림사 금강학림



달마와 인연을

소승은 아미타종
초대 종정입니다
이제 걸망을 내려
놓아야 겠다
간섭 받지 않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무소유)
010-9003-778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함께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0-3774-4099

60세 이상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아이 있어도 무관
* 가족처럼 계실
분만 연락바람
010-4587-1011

폐암(말기)

산중에서 기화,
요초, 근피
음용으로
치유합니다
010-8861-1785
무착스님 합장

노 비구가 싼 보시금으로 백중 염불해 드립니다

010-3221-0839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수능 상담 무료

가족의 기운을 받자
기적의 촛불기도
하루 3천원,
축원문 쓴 당일까지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041)544-4441
한학선원 (마루대절)

박사학위 (명예)

미국령
꼭 필요하신 분
055)384-2032

울산에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여법하게 불사하며
오래계실 스님을 찾습니다
약간의 보증금으로
월세 없이 계실분
법당 15평,산신각2평,용왕당,
요사채 등 일체 구비되어 있음
010-2500-1514

물 좋고 공기 좋은 조용하고 편한 곳. 깨끗한 숲속의 고찰사원에서 비구니 두분을 4년간 정진수행하며 살 스님을 맡기고자 찾고 있음. 그리고 노스님 간병하며 원없이 자기 기도하며 불심으로 절을 의지처로 삼고 마음껏 있을 무보시 봉사할 신심있는 40-50대 보살님을 속히 찾고 있음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구직광고

자연생식,치료예방학회
관절,당뇨,각종암,동맥경화,
뇌졸증 예방 치료,
약초,벌침. 침술대가
화주보살, 암자인연 요
무보시 경상도 조건부
010-2281-3060

일체 무상 보시해 드립니다

팔공산 어산 40년 전통전문의식
천도제(49제), 예수제,
기초교리강좌
법문, 회심곡, 방생법회,
바라, 승무
무릉선원
010-6577-8385
010-6513-0585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사 찰 건 축 전 문

- 상담분야 : 사찰건축 계획, 건축평면구성, 토목, 건축일체
풍부한 고(古)건축이론과 오랜 현장경험, 탁월한 직관력, 안목
* 짜임새 있고 정교한 책임시공으로 보람된 불사(佛事)가 되도록 함
- 시공상담 : 목조건축, 콘크리트건축, 기타 사찰건축일체
• 문의 : 고(古)건축전문 시공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시공 가능함)
031)677-1373.010-6405-2060
천년 고(古)건축

인연 명리 강좌개설

삶은 인연생, 인연별이라!
- 십이운성과 십신을 접목
- 토(土)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
- 모집대상 : 기초반,통변반
- 강의장소 : 삼성역 8번출구(3분)
010-4047-0134
불국사 정인스님 직강

전화상담 안내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로 속 시원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전통 선묵화 (禪墨畵) 연구원

(마음 닦는 그림, 선묵화를 통해서 참나를 찾고자 하시는 분)



(연구회원 모집)
자격요건
1. 서예, 사군자, 문인화 중 1년 이상 공부 하신 분
2. 선(명상) 공부 1년 이상 하신 분으로 그림에 관심 있는 분
3. 초보자는 면담후 결정
지 도 일 정
1. 1회. 선강의, 명상체험 , 선묵화 지도
2. 1회. 통신 선묵화 지도
지도 법사
범주 스님 지도
(홈페이지: http://www.dalma-art.com)
속리산 선(禪)문화 예술원 054)535-037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백중 천도재
▶ 4재 : 7월 25일(음. 6. 29, 금), 조계종 대종사 현해큰스님
▶ 5재 : 7월 30일(음. 7. 4, 수), 봉선사 조실 월운큰스님
▶ 6재 : 8월 7일(음. 7. 12, 목), 조계종 대종사 암도큰스님
▶ 막재 : 8월 10일(음. 7. 15, 일),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밀허스님
※ 백중 천도재 동참하신 분께는 회주 無一 우학스님의 금강경 CD와 천도 법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 053)474-8228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전국 선인 회원 모심

전직 대통령님들 90% 적중
각종 방편술. 무병장수법,
중국전통침술 등 420쪽 전수함
삼장법사 청하스님, 영험달마
특별보시. 보시금 5만원
농협 187-02-274348 이청하
010-2506-2425 사리암

3천년에 한번 핀다는 신비의 꽃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불사중인 스님,
사업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010-6707-6048
055)351-330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 편백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웰빙의 조계종 사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한분을 모십니다.
- 보시는 월 130만원 - 개인방사
- 2박 3일 휴가,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상담전화 055)645-5324 (24시간상담)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개운사
• 법 명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
법정(문상국)
• 주 소 : 경북 안동시 경동로 1555번지

위 인과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백발백중 귀장술 수강생 모집

《 초보자 환영 》

교재 제공
쉽게보는 원판(특허제품) 제공

외울필요 없이 원판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 재 철 학 원
010-6390-189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효사비결 2014

(효사활인천역집 제7판 육임 CD프로그램)

"뭐니 뭐니 해도 그거 하나면 끝나 데"
"자기만 아는 비밀한 사정들이 아예
다 써져 있는 거라!"
"들어서자마자 먼저 말하면 딱 딱 맞는거야"
"가지가지 귀신, 부정이 다 드러나고,
'방법' 까지 있어서 참 좋더라고"
- 기존 것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02)738-8680
고복자 효사

육임도서 · 운세 컨텐츠 · 육임CD프로그램 개발 전문
육임나라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309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깊이 인연을 보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떠 나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 장아함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산청(산세 수려함)
- 총부지 : 1300평
- 건물 : 목조 법당(20평), 요사채 등등
- 양도금액 : 1억 7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 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용왕각,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 전문 연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조계종스님만 연락주세요
- 충남 도심 목조사찰 양도
- 토지1400㎡
- 목조법당 요사 260㎡
- 도심속 아담하고 알찬사찰
- 양도금액 : 6억원(융자있음)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1-297-4281 (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주시 건천IC 7분소요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 2억 8천

010-4184-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지적 : 14,509㎡
- 종교허가 면적 : 2,770㎡, 전 70평, 요사채 22평,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외 토목공사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484-391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30평
- 인법당 : 30평
- 시내 토굴형
- 양도가 : 3억5천
- 위치 : 경기양평
- 부지 : 1700평
- 법당 : 30평,전각2채
- 요사 : 60평
- 양도가 : 13억3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 관계로 10억이상 되는 실 불사금 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부근 병풍산 아래
- 지장기도 도량 총평수 175평
- 법당 약 25평 / 방3개, 주방, 창고1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0-8330-0005
054)776-54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재개발 예정지
- 인법당 약 100㎡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탱화, 산신, 용왕전,방2칸, 공양간
- 기도하기 좋고 상담하기 좋은곳
- 재개발 예정지로 확정 발표
- 가액 : 4천 5백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중개보조원)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 대지 : 75평 건평10평
- 사정상 급 안내
- 몸만오십시요
- 가액 : 1,300만원

010-4113-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년된 사찰
- 가액 : 15억

010-8625-1225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108번길(당리동 대광빌딩)
- 6층에 5층(엘리베이터) 법당, 방 2개(45평)
- 약사, 관음, 500호신불
- 모든 준비 일체 되있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75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61-32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산 143-30 외
- 자연녹지 13,000㎡
- 청도군청 2분거리에 있고 최고의 조망권과 주택1동, 야외 음악당시설이 있습니다
- 가액 : 6억 1천만원

010-5658-667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삼전동 5-3 잠실관광호텔 앞 • 50평
- 석가모니 후불 1,000불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들었으나 사정상 급 안내 3천만원 합 5,000만원

010-2225-25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방보살, 삼신당, 호신불 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66만 / 3천 월55만원 /4천 월44만원 선택
- 시설비: 700만원

010-4590-6777
010-3869-6799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2,000만원

010-4680-93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불박이장2 방2, 주방 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300만원 조절가능

010-3589-81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 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 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225-0012
02)403-33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4층건물 내 2층
- 평수 : 45평
- 법당 공양간 접견실
- 시설 및 최상의 위치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000만원(조절가능)

010-9036-213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대로변 6층 전망 최고
- 특징 : 베란다 넓은화단, 상추밭 가능, 본존 1불 고불존상, 시원한 맞바람
- 6층 독채사용, 뒷산 배경 운치함
- 평수 : 45평(월세 저렴함)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60만원 (빌딩관리비, 부가세 포함) 시설비 저렴한 1천만원 (원 시설비 2천 5백 소요)

010-5553-38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암 자 안 내
- 위치 : 문경읍 고요리 산 123-2
- 면적: 임야 694㎡(210평) 건물 시멘트 단층 주택 52.4㎡ (16평)
- 토지이용: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진흥지역
- 가액 : 1억

010-8555-4480

수도권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평수: 2층 건물의 2층 80평
- 구조: 법당.대방3.주방거실. 욕실.화장실.가스보일러
- 서울근교 도심포교적지. 아파트주변.검단산 등산로입구
- 가액: 합9천만원.월130만원

010-9669-1358

개인 사찰임대 및 안내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위치 : 조선대학교 인접 - 동산초등학교앞 버스길에서 약 500 야산 밑
- 토지 : 전체 700평(임야650평 대지건평 50평)
- 법당 : 약 20평 요사채 3동 수도, 전기 심야보일러 2대. 사찰 약 100년
- 임대 : 보증금 천만원 월60만원 양도는 상담
- 현지에 가보시고 뜻이 있는분 전화바랍니다

019-379-99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변산반도 뒤로는 소나무 숲이며 앞으로는 저수지도 있음
- 총평수 130평
- 요사채, 법당, 종각, 접견실, 미륵부처님, 산신당
- 가액:1억 6천만원

010-6478-156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토굴 (터) 안내
- 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청옥산 아래 조용한 터
- 대지200평 계곡 접
- 앞 트여있고 해발 600고지 상류, 주변 국유지 관심 있으시면 지번을 알려드립니다
- 가액 : 5,500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사정상 급양도(밀양IC근교)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010-3456-115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심야전기 2,
- 삼존불, 소불, 108불, 신중칠성탱화, 집기일체양도
- 가액 : 일억삼천만원

010-8900-48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A급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주불 아미, 관음, 지장, 소불, 인등
- 가액 : 전세 2천 월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비품대 및 시설비 1,700만원 약간절충

010-2553-88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아파트 상가 대로변 2층 상가
- 규모 : 2층건물 2층 전체 80평, 법당 50평, 공양간, 방3개, 창고2개
- 시설: 삼존불 개금불, 신중단, 영가단
- 냉난방시설 완벽, 집기일체
-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주차공간 충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3574-38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 2분 2층상가
- 60평(법당 30평, 방3, 사무실1, 창고1, 주방, 욕실, 앞뒤 베란다)
- 도시가스 생활편리
- 가액 : 전세 7,00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약간(상담후 조정가능)

010-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문화재사찰 구할 분
- 법당 목조30평, 건물2동 문화재 2점
- 평수 1,000평
- 가액 : 15억

010-9798-10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331번지
- 법당 20평(목조) 기도방 2칸 요사채 30명(현대식)
- 주차 : 대형차 가능 고목과 오죽이 절 주변에 둘러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오래된 암자 시설비 절충

010-8958-21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산시 북정동 아파트 단지내
- 평수 80평, 방 2칸
- 가액 : 일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무

010-3927-1299
010-5716-10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333평
- 현재 지가가 100만원 정도 형성되 있음

011-9551-33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산 5-1 450-62
-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408평
- 정남향 조망수려
- 가액 : 6억5천만원

010-3755-8745

토 굴 안 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4 화장실2, 목욕탕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010-2461-301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반송동 소재
- 5층 중 3층, 33평, 법당 2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신중 관음소불 100불, 방1, 주방, 실내화장실
- 집기일체 준비되어있음
- 가액 : 1. 500만원 30만원 2. 1,000만원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조절가능)

010-5541-23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대구은행 옆
- 3층건물 3층 30평, 3존불,
- 수미단, 운각, 관음소불 108불, 16나한
- 가액 : 보증금 500 월30만원 시설비 2,700만원(시설완벽)

010-7740-60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 2층.. 공양간, 3층..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절터로 좋은곳
-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을 낀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토성작업 한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평수 120평, 인법당 27평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M 지장보살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 실내 화장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붓다락키따 스님 (보리수선원장)

〈1〉 나를 바로 알기

내 근본 문제 해결은 '나'를 알아야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고 했다. 바로 위빠사나 수행과 사마타 수행이다. 우리는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성냄, 질투 등 끊임없는 감정으로 '나'를 일으킨다. 사마타 수행은 이러한 감정에 휩싸인 '나'를 잊을 수 있도록 하는 수행법이다. 그러나 사마타 수행방법만으로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아 갈애, 어리석음, 성냄, 탐욕 등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와 달리 고난과 장애, 잘못된 견해 등이 있을 때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아는 방법이 있다. 부처님이 수행했던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다. 위빠사나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발견해 깨달음을 얻은 수행방법이며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수행방법이다. 현재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불교권에서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불교의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본지는 보리수선원장인 붓다락키따 스님이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주제로 펼친 법문을 5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붓다락키따 스님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미얀마 참매수행센터에서 우 자나카 참매 사야도에게 비구계를 받은 후, 미얀마, 라오스, 태국에서 두팅 수행(두타행: 숲 속에서의 금욕적 수행방법)에 전념했다. 1999년도에 귀국해 보리수선원을 만들었다.

삶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마음은 양극단으로 달려갑니다. 괴로울 때는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행복할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볼 때 무엇이 '나'를 가장 괴롭히고 또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것은 바깥 대상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유교 경전에 '소인은 상대를 탓하고, 대인은 자신을 탓하나, 군자는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갖가지 문제들은 모두 '나' 자신과 연관되어 있으며, 번뇌는 개념적 '나'인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문제는 '나'라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재인 몸과 마음을 벗어나 상대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논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만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역경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어야만 상대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힘이 없는 상태이면서도 자리이타(自利利他)라고 해서 상대를 돕는다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이끌고 가는 격이 되어 오히려 상대에게 올바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까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사업 손실을 따지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 학생이라면 숙제와 예습, 복습하는 일이 지금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먼저 해야 할일들이 아닙니다.

만약 몸과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채 학생이 공부한다면 과연 잘 될까요? 책을 들고 있더라도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이고, 주부 역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정성을 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실수로 손을 다치거나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면서 짜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로 알 수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의 '나'라고 생각되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분명하게 현재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바깥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면,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수행의 측면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잊어버리는 수행방법인 '사마타'와 다른 하나는 나를 분명하게 아는 수행방법인 '위빠사나'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던가요?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잊어버릴 때 가장 행복하지 않던가요? 때때로 우리는 텔레비전, 스포츠, 음악, 책 등을 즐기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행위들을 하면서 스스로 근심, 걱정, 괴롭고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근심과 걱정을 갖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이를 덮어놓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잠시 마음의 쉼을 갖습니다. 자, 이것이 '나를 잊어버리는 수행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나'란 개념적입니다. 개념은 폭넓은 의사소통과 사회질서를 위해 단지 약속으로 정해놓은 글자나 말, 표시입니다. 흔히 '나'라고, '누구 스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를 잊어버린다고 했을 때 '나'란, 개념으로써 말한 것일 뿐 실재적으로는 즉 진리나 법(Dhamma)의 측면에서는 몸과 마음인 물질적 과정과 정신적 과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라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루빠(rupa) 즉 물질과 마음이라고 하는 나마(nama)로서 여기에는 느낌(웨다나), 지각(산냐), 의도(상카라), 의식(윈냐나)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으로써 우리는 바깥 대상을 인식하고 희노애락을 즐기며 슬픔과 불만족을 갖게 됩니다.

>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지금의 '나'라고 생각되는
> 몸과 마음 안정시키고
> 분명하게 현재의 대상 인식하는 것
>
>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
> 해결하는 수행 방법
>
> 사마타…나 잊어버리는 수행
> 위빠사나…나 분명히 아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 다섯 명의 비구에게 제일 먼저 중도(中道)를 말씀하신 후 사성제(四聖諦)를 설하셨습니다. 사성제에 따르면 몸과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나', '자아'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지 물질인 몸과 정신적 과정뿐이지요. 그렇지만 몸과 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아울러 말을 하면 사회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쇠고기를 사오라고 부탁할 때 물질을 얼마만큼 사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이 개념과 실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장부경 디가 니까야와 중부경 맛지마 니까야의 〈대념처경(마하사띠빳따나 숫따)〉에서 부처님께서는 오온(몸-마음)을 분명하게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괴로움, 고뇌, 한탄, 비탄을 소멸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도(道)와 과(果)를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닙바나에 들어서기 위해선 몸과 마음의 성품을 알아차려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담인데, 한 독일의 철학자가 개인적 견해로 지구에서 위대한 성인 네 분을 꼽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양인과 동양인이 각각 두 명이었는데, 서양인은 예수와 소크라테스였고 동양인으로는 공자와 부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성인과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인과 훌륭한 철학자와 과학자 중에서 누구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더라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논리적, 분석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드시 죽는다면 반드시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병듦과 늙음과 죽음마저 초월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증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 이시빠타나의 미가다야에서 다섯 명의 비구에게 첫 법문을 하셨을 때 그 자리의 비구들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부처님처럼 윤회에 들지 않고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사이에 제자들이 늘어나 첫 번째 전법여행을 떠났던 '야사'와 60명의 청년 또한 늙음과 죽음과 병듦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많은 이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며 검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위빠사나 수행과 사마타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성냄, 탐욕, 의심, 무기력, 후회, 감각적 욕망, 질투 등이 끊임없이 '나'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나'를 이렇게 분명하게 바라볼 힘이 없을 때는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 집중의 힘으로 그것을 눌러놓아야만 합니다.

이렇듯 '나'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이 수행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마타 수행방법은 선정을 목표로 하며, 선정에 드는 길을 매우 정확하게 잘 밝혀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타 수행방법으로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아 갈애, 어리석음, 성냄, 탐욕 등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힘듦, 고난, 장애, 어려움, 잘못된 견해, 무지 등이 있을 때 상황을 피하거나 막지 않고 맞닥뜨려서 그대로 보고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쓰셨던 빨리어로는 '위빠사나' 수행이라 합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대상을 내 주관적 측면에서 보지 않고 대상이 가진 속성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붓다락키따 스님이 법문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보리수선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마음이 고프면
암자로 오세요
이곳은 일본에 있는 한국절에 시골암자입니다. 수행과 포교에 여념이 없으신 불자님들과 비구니스님들에게 자유로이 마음을 쉬여 가실수 있게 하여 드리고자 마련한 휴식처입니다. 또 「고구려원」과 「백제토굴」은 교또와 나라시에 가까운 오사카에 위치하고 있어 고대한국문화전통의 일본흐름을 엿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내에서는 종일 금주 금연이며 가발과 외출복 세탁도 금지입니다. 객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고구려원과 백제토굴은 큰방사용} 이용하실분은 15일전까지 전화예약이 필요합니다. 5인이상 함께 오실 경우는 입국시 간사이공항에서 암자까지, 출국때 암자에서 간사이공항 및 출국수속까지 무료 안내하여 드립니다. 여비나 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또 암자에서는 부주지스님 3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월보시는 10만엔이며 자격은 강원에서 대교를 보신분으로써 우리 암자에 1회 3박 이상씩 5차례 이상 이용하신분이면 됩니다. 또,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을 한뒤, 대학공부를 더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곳에서 1년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단기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뒤 정규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박사과정까지 암자에서 학비전액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개인용돈은 자기부담입니다.
자세한 것은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세요. 한국어 메일, 전화가능.
주지 고 조 선
전화 0599-26-6999
080-8349-4076
메일 : sinlaam@zeus.eonet.ne.jp
주소 : 鳥羽市安樂島町 1075-10 주지 고조선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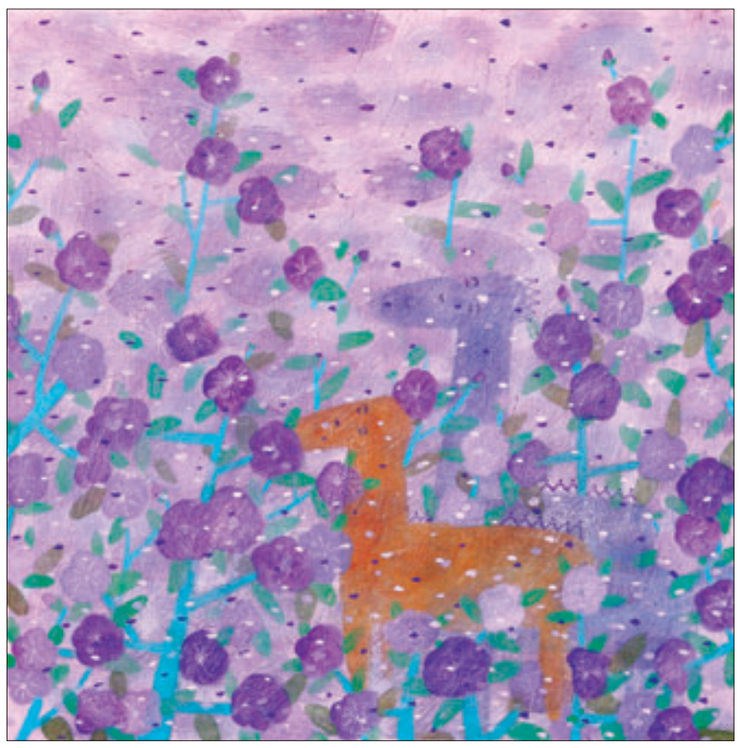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갤러리 색즉시공



저 너머

저 너머에 무엇이 보입니까?
목을 길게 빼고 멀리멀리 바라봅니다.
저 너머에 무엇이 보이세요?

다시 발끝을 세우고서 멀리멀리 바라봅니다.
고개를 더 길게 내어 빼고서 다시 바라보세요.
저 너머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림·글=희상 스님

당신은 올바른 상식과 정의가 두려운가

Buddha in Comic & Ani

⑭ 최규석의 '송곳'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다. 〈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왜 일까. 만화가 최규석의 작품 〈송곳〉을 보며 연상되는 사자성어가 '낭중지추' 였다. 뛰어난 재주를 지닌 사람이 아닌 사회라는 주머니에서 툭 삐져나온 '송곳' 이 생각나서다.

단편집 〈아기공룡 둘리의 슬픈 오마쥬〉, 경향신문 연재물인 〈습지생태보고서〉, 자신의 가족사를 보여준 〈대한민국 원주민〉까지 사회의 부조리를 특유의 위트로 주제 있게 풀어낸 최규석의 신작인 〈송곳〉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이다. 출판만화가 아닌 웹툰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탄탄한 작화 실력과 무게 있는 주제 의식은 여전히 명불허전이다.

'아니오' 라고 말할 용기

〈송곳〉은 대형 마트 이수인 과장이 자칭 '이 동네 똥' 이라고 불리우는 노동상담소장 구고신을 만나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요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이수인 과장은 성품이 대쪽같아 쉬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송곳' 이다.

학창시절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돈 많고 뒷배 있는 일진에게 옳은 소리를 한 유일한 학생이었고,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에는 3성 장군이 보는 앞에서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을 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10년의 군생활을 하며 송곳의 끝은 무뎌지고 전역 후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불합리에 익숙해진다.

주인공은 대형마트 과장까지 진급하고 별 다른바 없던 일상을 지내오던 중 외국인 지점장에게 함께 일하던 아채 청과 판매직원들을 모두 퇴직시키라는 명령을 받는다. 고민하던 이수인 과장은 명령을 거부하게 되고 지점장은 그를 회사의 '투명인간' 으로 만든다. 단 한번의 '아니오' 가 그를 조직의 룰을 어기는 걸림돌로 전락시킨 것이다. 여기서부터 걸림돌의 투쟁은 시작된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 원칙을 이야기하고 부당한 사측의 요구에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다.

1초 개그와 스크롤 액션이 주류인 웹툰 시장에서 〈송곳〉의 이야기는 매우 불편하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수인 과장의 주변인들은 모두 우리들이다. 조직과 자본이 주는 얼마의 녹봉을 위해 부조리에 순응해야 하는 보통의 서민들이다. '아니오' 보다는 '네' 를 말해야 하는 백성들이다.

철을 때리면 그 성질이 변하듯이 규제를 계속적으로 받다보면 익숙해지고 편해진다. 기실 우리들은 불편한 진실은 멀리하고 부조리가 가져다주는 안락함에서 안심을 얻는다. 그래서 만화가 아닌 실상에서 이수인 과장 같은 인물을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정도로 생각한다.

부조리에 눈을 감는 당신에게

흔히들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유연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유연성은 사회와 조직의 부조리에 눈 감을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한다. 눈을 감아야 하는 이유는 명증하다.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타인의 희생이 예상되지만 나는 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다. 건설 부문 대기업 노동자 중 71%가, 은행권에서는 80%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하늘의 별따기다. IMF이후 '노동 유연화' 를 외치며 진행해온 '비정규직' 이라는 폭주 기관차는 이제 위험한 수준에 와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기업 눈치를 보며 눈을 감고 있다.

내가 살기위해 타인의 희생이 강요되는 현대 사회상 비판해

"나만 아니면 돼" 비겁의 共業 우리 사는 세상은 병들어 간다

부조리에 길들여진 사회가 무서운 이유는 대학 강사인 오찬호가 지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에서 다양한 사례로 잘 나타난다. 한 대학 강사가 학생들에게 "지방대에 대한 취업 차별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즉답한 대학생의 답변이 이렇다.

"지방대는 저희 학교보다 대학서열이 낮아도 한참 낮은 곳인데, 제가 그쪽 학교의 학생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만화가 최규석의 첫 웹툰 〈송곳〉의 한 장면들. 노동 문제를 통해 대표적 대한민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부조리를 이야기한다.

현재 20대는 자기 극복만을 이야기하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대신 '스펙 구분' 이라는 새로운 차별 양상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학내 카스트'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조리에 맞서기보다는 순응하는 사회가 현재 20대들을 '차별이 당연하다' 고 생각하는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차별' 이 무서운 이유는 〈송곳〉에서 최규석이 이야기하듯 약하다는 사실 자체가 강자들에게 혐오감을 자극하고 혐오 대상에게는 사람은 진심으로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부조리에 순응한 우리의 공업이다.

학덕이 높은 고승들의 좋은 말씀이나 행동들을 모은 〈선림보훈(禪林寶訓)〉에는 이 같은 구절이 있다.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당장 어렵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의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부조리함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오' 라고 답할 용기가 있는가. 〈송곳〉은 이 같은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대행 스님

막 그냥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수행만 하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복이라는 것은 남이 농사지어 놓은 데 가서 '한 됫박 주시오.' 하고 얻어먹는 것이고, 공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서로서로 빈 데를 도와주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두 손가락으로 집는 거하고 열 손가락이 다 한데 합쳐서 드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도리, 마음의 섭류는 우주 삼천대천세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전체가 돌아가는 법계를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어서 이게 공덕입니다.

그러나 이 섭류를 하나도 모르고 내가 목마르면 급박하게 '물 한 그릇 주시오.' '옷 한 벌 주시오.' 하고 비는 것이 기복입니다. 빌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똥마려우면 똥을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자유스런 사람으로서 살아라.' 하고 사람으로서 진화돼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고등 동물이라고 했지만 고등 동물의 그 한계 내에서도 벗어나야 자유인이 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이름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벗어나야 만물의 영장이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49년의 그 뜻은, 그 길은, 그 진리는 바로 자기가 혼자만의 국한된 부처라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되고, 형님이 되고 아우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아주 걸림이 없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그렇게 어디에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걸림이 없듯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해 놓고 부처님이라고도 이름을 해 놓고 여래라고도 이름을 해 놓고 그런 겁니다. 모두가, 부처님 문수 보현 또는 지장이나 관세음, 칠성 용신 지신 산신 독성 신중 이 모두가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릇을 안 하고 사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딴 사람을 해치는 걸 보면 그냥 덤벼서 해치는 사람들을 헤쳐 놓고 모두 말리지 않습니까? 그게 신장입니다. 금방 자기가 신장이 돼요. 그랬다가 또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건 너무 잘못해. 저건 아유, 얄미워 죽겠어. 저거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생각을 내는 법신이 됩니다. 몸뚱이로 움죽거려서 그거를 확연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화신입니다. 보신이며 화신이죠. 보현이면서도 화신 말입니다. 화신은 바로 바뀌는 그 시점을 말하고 다 바뀐 것을 보현이라고 그럽니다. 화하는 것은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즉 말하자면 생각할 때는 우습지만 우리가 항상 '컵을 들었다. 물을 뜨는 과정이다. 물을 먹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신통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천안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천이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타심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숙명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천이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단 말을 하지 마라." 하셨는데 이 뜻이 뭐냐? 듣고 보고, 남의 속을 잘 알고, 남이 어디서 온 거를 알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이건 도가 아니니라 하는 뜻입니다. 컵을 만들어서 컵을 들고 물을 뜨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을 떴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다 이거지요.

보세요. 심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심안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무효! 보이지 않는 데 오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 어디서 온 거를 빤히 다 알아도, 남의 속을 다 알고 과거에 어디서 살다 어떻게 온 거를 알아도 무효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없고 줄 수 없다면 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목이 마른데 물을 떠서 줄 수 없다면, 떠서 먹을 수 없다면 도가 아니니라 이런 소리에요. 컵을 들고 물을 뜨고 자시고 해도 먹을 줄 모른다면 도가 아니니라 이거지요. 갈증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먹지 못하면 갈증을 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주지 못하고 자기도 먹지 못하니 이건 무효다 이거지요. 아무리 물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물을 뜰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일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면 이건 도가 아니고 무효니라.

여러분이 모두들 어떡하든지 그저 돈 벌어서 살 궁리만 하시는데, 하하하…. "그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허! 너 먹을 게 지금 없잖아. 먹을 게 있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입도 빌리고 몸뚱이를 빌려서 다 심부름해 줄 뿐이지 너희들이 먹는 거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한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큰 다라가, 생철로 되지 않은 다라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다라 하나를 얻어야 할 텐데….' 하고 '다라를 얻는 것도 이 집도 모두 한울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한마음 울에서 집도 한 거니까 다라도 거기에서 해결해. 사람들이 각자 와서 모두 일하는데 다라가 없으면 안 되니깐 너 알아서 해.' 그래 버렸지요. 고것이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부리는 법이지마는 자기가 자기를 부려서 그렇게 해 왔다면 자기가 신장이 될 때입니다, 고 찰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장이 됐다 부처가 됐다, 산신이 됐다 독성이 됐다,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조왕이 됐다, 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심안의 그 무심한 도리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 시험 볼 때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 한생각이라고 할 때…, '한'이 들어갈 때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할 때도 '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주인공을 믿고 자기 주인공에다 맡기라고 하십시오. '네 심부름을 하려면 네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거기 맡기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의 뿌리는, 바로 자기의 마음의 씨는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마는 저런 나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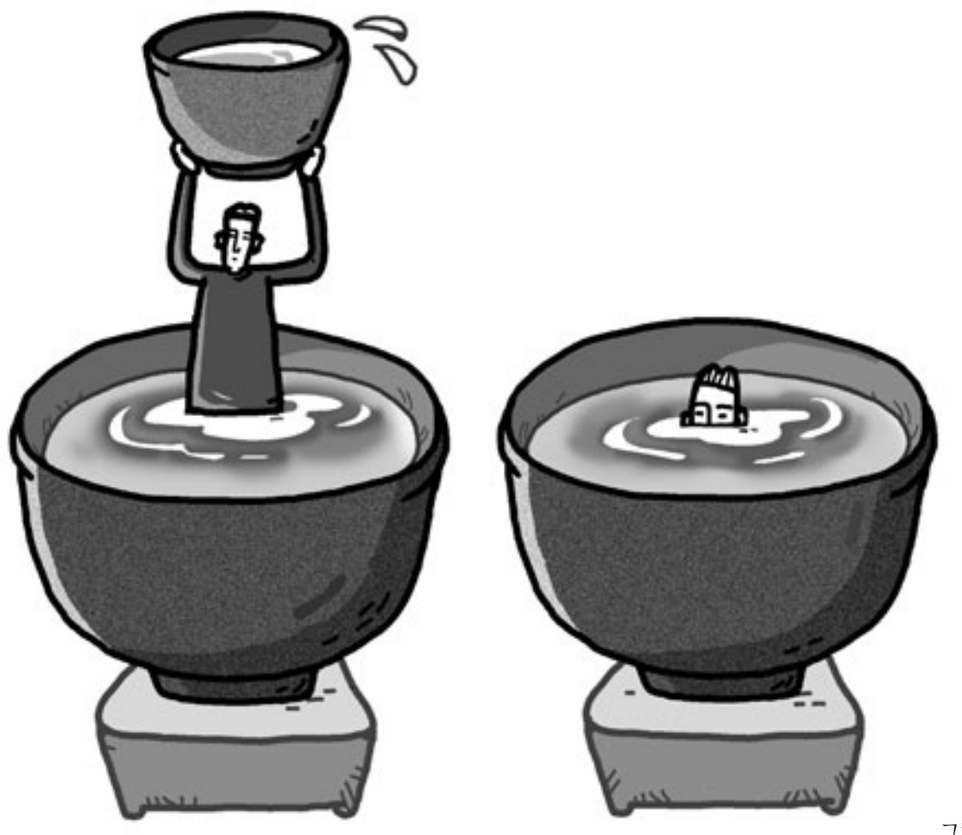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여러분의 모든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다는 것을 일러 주십시오. 알아야, 이해가 가야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저 뿌리와 나무가, 뿌리를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 뿌리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러고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오. 주인공! 합격되게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 가지곤 도저히 힘들어요. '너만이 할 수 있다!' 라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아야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지금 누가 끌고 다니는데요? 자기 운전수가 없으면 차는 그냥 그만이에요.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파워를 일으켜도 자기 육신은 쓰러져요. 그런데 자기라고 그렇게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니, 간장 공장만 파워를 일으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그럴 게 뭐 있느냐고요. 간장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피 공장에서도 고장이 나면 백혈병이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모든 병 자체가 바로 업식 속에서 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기 뿌리에서 흡수해서 나무로 올려보내는 거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에서만이 할 수 있죠. 병고도 그렇고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재료니까, 시험 합격 하는 것도 반드시 거기에 놓고 '너만이 합격하게 할 수가 있다. 합격하게 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 심부름 하게 하려면 합격되게 해.' 하고 진실히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사람' 이러는 거는 '부처님' 이러는 거와 같아서, 전체 한데 합쳐진 것이 '사람' 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형성된 형체를 바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침체해서 돌아가는 거라든가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잡아야지 육체가 잡아지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모자식 지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같이 의합하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화목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몸을 잡는 법이니까요. 자기한테 가설이 돼 있으니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를 구합시다.

도를 구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가 맡겨서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켠다고 해서 거기다가만 그렇게 하고 말은 막 하고 막 악을 쓰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속을 북북 긁어 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나가서 만약에 자고 들어온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마구 딴 짓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너 이놈의 새끼, 뭐 어쩌고 어쩌고…." 하는 도로 뛰쳐나갈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낳았고, 내가 인연을 맺었고, 또 부모로부터 내가 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하고 부딪침이 있고 나하고 인연이 된 거지 내가 없는데 어찌 인연이 됐겠나. 그러니 모든 게 내 탓이로다.' 그러고선 '모두 저렇게 안되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자기한테 다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면서, 부드러운 행을 해 주면서, 증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마음속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쪽까지도 불이 들어옴으로써 그쪽까지도 나한테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화합심이 생기고 자식들도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출중한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없이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불법이 어디 있으며, 생활이 없이 어떻게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란 부처님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처고, 부처님도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같이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한데 합한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이죠. 여러분도 부처님인데 자기의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자생중생들을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부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거를 잘 다스려서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놓고 돌아간다면 바로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보현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칠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자유껏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저는 법형제 심용회 총무로 있는 신도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아주 반드시
'마음은 체가 없구나.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알아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 상태에서 생전에 지은 업연에 따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계로 나오기도 하며 육도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심령과학의 노력으로 과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공부를 잘하는 분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분은 또 못하는 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저희는 죽으면 어떤 마음의 차원이 되며 선원 법우들도 다시 만날 수 있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하하하…. 모두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과 한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이 도리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두를, 업연을 없애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는 깨침의 도리를 일러 주기 위해서 자꾸 생활에서 닥쳐 오니까 그런 수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기 한 시간 전에 이 마음의 도리를 알고 행하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아주 너끈히 웃을 수 있고, 죽지 않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몸뚱이는 사대로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영혼 자체는 슬기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여래와 한자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법우님들하고 같이 항상 영원토록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기복으로만 끄달리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죽으면 그 의식들이 집에도 있고 무덤에도 있고 친척간에도 있어요. 의식들이 그렇게 떠나질 못하고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살던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가려니 물 소용돌이를 벗어나야 될 텐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거고 또는 불 소용돌이를 지나야 될 텐데 타 죽을까 봐 못 가는 겁니다. 마음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타 죽을까 봐 빠져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또 그 모든 업연들이 뭉쳐져서 보이는 곤충들, 짐승들 또는 귀신들이 모여 있는 데를 넘어서려니 그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보여서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니까, 그 업연 굴레에서 무명 굴레에서 악연 굴레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간 차원 그대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 그 관습에 젖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로도 되고, 돼지로도 되고, 닭도 되고, 뭐 별거 별거 다 되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왜 본체만체하느냐. 왜 나는 안 주고 너희들만 먹느냐.' 하고 귀찮게 구는 거죠. 자기 몸뚱이가 살아 있는 줄 알거든요. 지금 자기라는 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끼리만 알아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유전이 돼서 자식들한테 내려오죠. 그러니까 천도해라. 마음을 공부해라. 둘이 아닌 공부를 해라. 그렇다면 어떠한 영계성이든 유전성이든 세균성이든 업보성이든 다 한 컵의 물방울이다. 물방울을 열 개를 이 속에 넣어도 한 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고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고도 더러운 물도 말갛게 맑은 물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대대로 대대손손 그런 유전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부모나 미래의 자식이나, 과거에 살던 자기나 미래에 자기가 갈 거나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지금 막 요리를 하는 거죠.

막 그냥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막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그게 참선이고 관법입니다. 집어넣는 그 수행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수행만 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할 테니까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너만이 나쁜 짓을 안 하게 할 수 있어.' 하시고 속상하면 '아, 마음을 싱그럽게 하고도 오래 살지 못하는데 아니, 왜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몸뚱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약속할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려면 아주 반드시 '마음은 체가 없구나. 마음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 저게 됐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알아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 빼놓고 내 몸 빼놓고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출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병고가 없고 애고가 없고 그래야만이 나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기도한다고 집을 비우거나 해서 애들 밥을 지어 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남편 음식을 소홀히 생각한다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집안 가사를 잘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을 빼놓고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데 좀 더 너그럽고 화합해서, 또 애고가 없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위 법문은 1993년 8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등 54번지 www.msjy.co.kr

천비록(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룡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춘양당서점/충장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무료배송 66%



엡손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교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전시상품 절대 아님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검색
입금계좌: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불자 세상보기

여름휴가, 독서 그리고 힐링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여행이라고 하면 왠지 해외여행이란 말이 떠올라 은근히 돈 걱정을 하게 되지만, 휴가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덜한, 글자 그대로 잠시 일로부터 벗어나 '쉬는 시간'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을 수 있어 부담이 적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휴가라는 용어가 따로 없으니 휴가라면 대체로 여름휴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장마가 끝난 8월 초가 피서의 절정을 장식하지 않을까 싶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도 '휴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휴가라는 말은 언감생심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삶의 축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덕분에 우리는 저마다 고유의 빛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채울 나만의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휴가는 그런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그 중요성을 널리 공인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여름휴가는 휴가의 후유증 때문에 다시 휴가신청을 해야만 될 것 같은 피곤한 휴가가 아니라 풍성한 내면을 가꿀 '내려놓음과 쉼'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통체증의 짜증과 피서지의 불쾌한 기억들, 그리고 휴가비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런 휴가계획 말이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휴가보내기가 바로 독서 휴가이다. 독서 휴가는 독서 피서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틈틈이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기분이 내키면 가까운 산에라도 오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런대로 꽤 실속 있는 휴가가 아닐까? 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진부한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예부터 이런 방식으로 더운 여름을 난 선비들도 많았다고 하니 애써 위안을 삼아 보기로 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 윤증이 쓴 '더위(暑)'라는 시에는 무더운 여름날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선비들의 고상한 멋이 행간마다 절절히 묻어난다.

"구름은 아득히 멀리 있고/나뭇가지에 바람 한 점 없는 날/누가 이 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더위 식힐 음식도, 피서도구도 없으니/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제일이구나."

연암 박지원도 이맘때쯤 사촌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옷을 벗거나 부채를 휘둘러도 불꽃같은 열을 견뎌내지 못하면 더욱 덥기만 할 뿐"이라며 "책읽기에 착심(着心)해서 더위를 이겨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군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독서휴가를 주어 책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책읽기 폭탄 세례'를 받은 학자들이 발휘한 창의성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 냈지 않았을까?

책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의 또 다른 삶을 풍성하게 가꿀 자양분을 무한정 공급한다.

누구나 경험한 바 있듯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생생한 울림, 예컨대 갑자기 번갯불을 본 듯하고 문득 천둥소리를 들은 것과 같은 환희심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 이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 맑아지고 통찰력은 더욱 깊어진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힐링의 담론은 몇몇 유명 힐링 멘토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심은 자칫하면 힐링의 상업주의를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힐링을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이 또 다른 집착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힐링 관련 책을 읽어야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습관적으로 읽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 그대로 힐링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직 별다른 휴가계획이 없는 독자들이 있다면 '독서 휴가' 내지는 '독서 피서'를 한 번쯤 고려해 볼 것을 '강추'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지 않는 한 '문화재 환수' 없다



혜문 스님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귀중한 물건을 대량 훔쳐갔던 도둑이 잡히며 사과와 함께 물건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 도둑은 당신에게 사과와 함께 훔친 물건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은 그 도둑이 당시 훔쳐간 물건 중 값어치 있는 것들은 숨기고 돌려주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들로부터 약탈해 간 것 중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만 6만여 점이다.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며 당시 일본정부는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정부가 요구한 문화재의 32%를 돌려주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서야 당시 일본정부가 약탈 문화재 중 대부분을 이르바 '희소본'이라는 표기와 함께 숨겨 왔음이 드러났다.

위안부 할머니와 일본시민단체 '한일회담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문서공개 소송 과정에서는 은폐 문화재 목록의 존재와 함께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은폐 저의도 함께 드러났다.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문화재 일람표, 데라우치 문고 관련 기록, 쇼료부 소장 서적 목록 등은 우리 문화재의 반출 경위를 알 수 있는 문서다. 이 문서가 모두 공개되면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에만도 도쿄국립박물관이 전시 중인 경주 금관총 출토 유물이 불법반출된 정황이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이번 문서 공개건에서도 정부 관계자의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정도이니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세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환수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환수문화재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격적인 환수는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말이 있다. 재단 곳곳에 정부의 관료들이 있어 일처리가 늦다는 말도 있다.

한국의 언론도 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번 문서 공개 소송과정을 보면 추가적인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가장 먼저는 불법 도난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황룡사 기와, 석가여래좌상, 약사여래상, 불화 등 오구라컬렉션에 대한 취득경위를 공개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지난 2010년부터 오구라컬렉션에 주목해 왔고, 오구라가 작성한 '오구라컬렉션 목록'을 입수 4건 34점이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수집된 도난도굴품임을 밝혀냈다. 이에 도쿄국립박물관에 8월 1일 보관중지 요청서를 발송하고, 8월 20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일본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민족 정기를 찾는 과정이다. 가장 먼저 나태함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컬렉션 중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백제 7세기 불상으로 공주의 한 절 석탑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社說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에 거는 기대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4월 세종신도시 종교용지 매입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계약을 7월 31일 체결했다. 총무원 집행부가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두 번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내 종교용지에 전통가람 양식과 도심사찰의 특성을 잘 반영시켜 건립하고, 건립이후 수행과 신행활동의 거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매입 비용은 세종시 종교용지와 거의 비슷한 평수인 약 3천평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다보니 매입 비용이 세 배 가까이 더 들었다. 하지만 이번 용지가 더욱 의미있는 것은 특수전사령부와 제3특전여단의 군법당으로 사용하던 호국 사자사와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는 점이다. 부대이전에 따라 폐사 예정인 부지를 조계종이 매입함으로써 신도시 포교의 거점사찰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은 개별 사찰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는 그동안 종단의 해묵은 과제였다. 33대 집행부에서 시작된 종교용지 매입 추진 계획이, 34대 총무원 집행부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매입은 분명 신도시포교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과 불사계획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종교용지 매입 계약은 성사됐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 종교용지 매입대금도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신도시 포교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생활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과연 우리 불교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가 여름 휴가문화를 바꾼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가 피서에 절정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올해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내수 경기는 침체이며, 정치인들은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피서지보다 휴식과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10선'을 선정했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고, 가족이 함께 힐링하며, 내면의 여행을 찾는 세 가지가 이번에 선정된 여름 템플스테이 주요한 테마이다.

굳이 선정된 10개의 템플스테이 사찰이 아니더라도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가진 사찰들이 전국에 산재돼 있다. 시원한 여름 산사는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게 할 준비를 마쳤다.

국민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힐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발표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적 성취도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성찰 등 정신건강 가치가 5.45(7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템플스테이 발전의 중요 가치 역시 정신건강이 6.32점(7점 만점)으로 국민들은 템플스테이의 정신적 가치에 기대 ·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만큼 불교계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은 산문을 활짝 열고 대중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안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이제 여름의 절정이다. 지치고 힘든 당신, 휴가철 향락보다는 여름 템플스테이로 떠나고 볼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범어문도에 공개 건의

성주사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귀의삼보 하오며,

존경하는 범어사의 대덕과 문도 여러분!

'범어사'라는 사명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긍지와 경건함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사상의 진작을 통해 피폐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며 역사의 매 고비마다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선찰대본산 제14교구본사가 아닙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범어사는 문중의 바람대로 총림으로 도량을 장엄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서는 '한반도평화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종단과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도시(부산광역시)를 품고 있는 유일한 본사로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에 새로운 바람이 일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건대 오늘의 금정총림이 과연 원융과 화합이란 총림상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본사 범어사가 대중과 불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불교중흥에의 기여는 고사하고 문도들이 말사 성주사를 놓고서 갈등과 반목을 지속한다면 그 어떠한 명분을 떠나 본분사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강압과 물리적 충돌은 결단코 승가가 행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잠시나마 반목했던 과오를 거름삼아서 대 화합과 원융의 장으로 회향한다면 모두에게 큰 지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범어사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부디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중진 대덕은 성주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 **범어사 집행부와 성주사는 모든 제소를 취하하고 대화로써 해결하십시오!**
- **임회는 종법에 근거한 활동으로 본사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해 주십시오!**

불기2558(2014)년 7월 31일

法應 합장
(전 범어사 운영위원)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아침나갈때 저녁들어올때 합장하고 기도드리면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단타왕자가 창을 들고 고기잡는 어부로 변장하고 헤마말라공주는 정대(頂戴) 머리카락 속에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를 숨겨 스리랑카로 전수했다.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사진을 가정에 모신다면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성전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아래 사진 두 종정스님은 대통령을 예방받는 아주 친견하기 어려운 종정스님을 친견하고 자문을 받아 아래글을 대신합니다. 특히 주한 스리랑카 대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대종사님께서도 자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티샤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대사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아스기리 종정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대종사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말와두 종정



한·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방필석

한국불교도인 여러분들께,

한국불교도인과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 협의회 멤버들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리랑카, 캔디소재 'Sri DaladaMaligawa'에 안치되어 있는 불치사리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교계의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는 모든 불교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한 스리랑카의 대사로서 부처님의 치아탑 사진이 한국의 불교 가정과 사찰에 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으니 매우 기쁘며 한국에서 불치사진이 사찰과 가정에 장식됨으로써 축복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에게는 삼보의 축복이 자연히 내려질 것임을 불교국가의 대사로써 이 또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스리랑카와 한국의 불자의 상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티샤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대사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모시는 공덕

부처님 치아 사리는 스리랑카뿐 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도들이 매우 성스럽게 여기며 신성시하는 성물로서 모시는 사람이 그 나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전설 때문에 왕권투쟁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성스럽고 위대한 부처님 치아 사리를 모셔놓은 성전을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는 것조차 국빈급인사가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치 사리탑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별한 인연공덕을 쌓은 분에게만 허락되었다. 불치사를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엄한 경호하에 두 분의 종정스님과 정부관리자로 불치성장관급으로 따로 임명되어 있다.

이 거룩한 치아 사리탑 액자를 누구나 겸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에서 각 가정에 모셔놓고 정성과 뜻을 새겨 모신다면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과 똑 같으며 무명 중생을 깨우쳐주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고 뜻한바 소원성취는 물론 7대 죄업이 소멸되며 자손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병고도 없이 잘 살 것이며, 밝은 지혜를 깨우쳐주고 내일의 일을 예시해 주어 자비심이 생겨 이기고 지는 마음을 버리고 자아를 깨우쳐주어 복과 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하여 세계의 불도 순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모여들고 있다. 석가모니치아사리탑 액자를 가정에 모시는 공덕으로 매년 스리랑카 페라헤라 축제 때 초청장을 받을 수 있고 친견하는데 국빈급 VIP대접을 받고 방문시 대사관의 협조가 이루어진다. 현지에 가서 직접 친견하고 온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에게 삼보의 축복이 자연히 내려 줄 것입니다.

한·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방필석

협력 :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주관 : 한국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

잘될 사람이 보는 전화번호
문의 : 02)739-8259